



3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3호

(루게 557)



◆◆◆◆◆◆◆◆ 차 례 ◆◆◆◆◆◆◆◆

| | |
|--|----|
| 혁명적문학작품창작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 4 |
| 가는 세월도 좋아 오는 세월도 좋아 | 6 |
| 수령님 오신 길은 | 7 |
| 끝없어라 민족의 궁지여 | 7 |
| 마흔 넘어 꽃봉오리 | 8 |
| 백두산 장수와 두 제자 | 9 |
| 김일성대원수님께 드리는 노래 | 11 |
| 조선인민의 밝은 태양 | 11 |
| 인민상계관작품을 꽃피운 종자 | 12 |
| 소백수 물소리 | 15 |
| 시대의 웨침 | 16 |
| 려단장과 전사 | 17 |
| 쌍무지개 | 18 |
| 3월 1일에 부치여 | 20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따르려는 시대의 념원에 대한 진실한 형상 | 21 |
| 혁명의 어머니 | 25 |

| | |
|--|----|
| 명제해설 | 26 |
| 그 믿음 나에게 있어 | 27 |
| 삼천리를 비치다 | 28 |
| 땅은 흙이 아니다..... | 29 |
| 밤 잠 | 38 |
| 신념과 인간..... | 39 |
| 소대장의 목소리 | 42 |
| 우리의 것 | 43 |
| 고향과 사랑..... | 52 |
| 나는 청춘으로 산다 | 54 |
| 부래산의 복무자 | 55 |
| 전사의 영예훈장..... | 62 |
| 봄은 여기서 시작된다..... | 63 |
| 새날의 약속 | 64 |
| 력사는 말한다 | 65 |
| 두 《친구》 | 66 |
| 나의 고향집 문앞에서 | 76 |
| 봉건적억압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싸운 농민들의 투쟁을 폭넓게 그린 작품..... | 77 |

혁명적문학작품창작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지금 우리 작가들은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나게 옹호고수한 커다란 긍지와 신심에 넘쳐 희망찬 1994년 새해에 들어와 새로운 창작적양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보루를 굳건히 고수한 지난해의 투쟁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새해에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신년사는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온 민족을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으로 부르는 불멸의 대강이며 우리 시대 자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신년사는 우리 작가들에게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불패성에 대한 신심과 투지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총진군운동을 다그치고있는 우리인민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고무하는 문학작품을 더 활발히 창작하도록 불타는 창작적충동을 안겨주고있다.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은 적들의 악랄한 도전과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 질식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압살하려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공세를 강화하였다.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적들과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이어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지난해에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준엄높은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한사람같이 전선을 탄원하여나섰으며 격동적인 시가를 비롯한 전투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적극 불려일으켰다.

우리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그 어떤 힘도 오

직 자기 당,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억센 의지와 신념을 꺾을 수 없다는것을 더욱 철석같은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당과 수령의령도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의 기치이며 주체조선의 룡성번영의 근본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제때에 령활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위훈과 승리로 이끌어주시였다. 조국과 혁명 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오고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시고 혁명적공세로 적들의 반혁명적공세를 맞받아 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체 인민을 전승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무비의 담력을 떠나서 지난해에 우리 인민이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최고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치렬한 대결에서 승리한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지금 작가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와 우리 당의 혁명적경계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첫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근로자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창작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고있으며 올해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휘날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하며 우리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대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에 당중앙

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당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락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천리마에 《90년대속도》를 가한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으로써 당과 수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를 형상적으로 구현하는데 특별한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불멸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의 기치라는것을 진실한 형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오래고도 간고한길을 헤쳐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일심단결의 력사, 자력갱생의 력사라는것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준엄한 시련을 뚫고 빛나는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여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과 자력갱생의 기치가 모든 문학작품들에 힘있게 구현되고 세차게 나뭇기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작가들이 모든 창작적 탐구와 열정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일심단결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있다는것을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생동한 반영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가장 준엄한 시련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지난해의 투쟁을 통해서도 강철의 의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한 그 어떤 원썩와도 싸워이길수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철통같이 단결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필승불패의 승리의 길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가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현실생활과 사회주의 건설투쟁을 반영한 모든 작품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심단결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문학형상을 통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정신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는 혁명적기치이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은 지금 우리 인민들에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부름이며 우리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결히 옹호보위해나갈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을 통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전투적구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인민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전투적인 시 작품을 비롯한 생활을 민감하고 기동성있게 반영할수 있는 문학형식을 적극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전후 어려웠던 시기에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 그때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문학작품창작을 통하여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해서는 작품의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예술적형상수준이 높은 작품이라야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고 그들의 사상정신생활에 활력을 주는 영양소로 될수 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사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형상의 옷을 입지 않으면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오늘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로부터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아직도 우리 일부 작품들은 당의 사상이 높은 예술적형상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못하고있다. 소설인 경우에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가의 론리가 전면로 로출되어 사상을 설명하거나 덧붙이는 폐단이 있으며 시작품인 경우에는 정치적구호의 직선적인 라렬과 작가의 설명으로 시형상을 대치하는 부족점이 있다. 이러한 부족점들은 다 작품의 가치를 상실케 하며 작품이 독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창작에 반영하는 철저한 창작기풍과 함께 그것을 높은 형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시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록 하는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창작적재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재능은 작가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작가는 창작적재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는데 대하여 늘 가르치시면서 최근에는 또다시 작가는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재사라고 하시면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작가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되기 위하여서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 재능이 없는 작가는 당에 충실할수 없으며 재능이 없으면 작가로서의 존재도 없어지게 된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적재능을 가지는것이 작가의 생명을 빛내이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소유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탐구하고 사색하며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이 창작적재능을 발양하고 더욱 련마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현실체험을 잘하는것이다. 시대와 인간, 생활을 심장으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최근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가 것처럼 수령관이 투철하고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헌시와 가사를 창작하여 만사람을 격동시킬수 있는것은 심장의 체험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락을 실현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체험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며 진실한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의 위대한 현실에 대한 심장의 체험이 없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모든 작가들은 현실체험이야말로 현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푸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근본열쇠라는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늘 현실체험문제를 훌륭한 작품창작을 위한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 그를 옹계 수행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벌려왔지만 아직 우리 작가들의 현실체험은 당의 요구에 비해볼 때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이 류레없이 간고하고 첨예하면서도 전례없는 승리로 빛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을 뜨겁게 체험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의 관조자가 될것이 아니라 위대한 현실의 창조자가 되어야 하며 현실을 취재할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체험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충효일심이 발양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현실속에 몸과 마음, 온 넋을 푹 잠그고 체험하는 여기에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어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 근본비결이 있다. 모두다 현실속에 들어가자. 그리고 위대한 시대와 인간과 생활과 한덩어리가 되어 심장으로 체험하자. 그리고 그 체험을 그대로 작품에 반영하자. 그러면 우리 독자들은 그 형상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더 큰 위훈을 창조할것이다.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이다.

모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제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충진군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자.

가사

가는 세월도 좋아 오는 세월도 좋아

문기창

이 땅우에 낮과 밤이 쉬임없이 바뀌여도
우리는 마음속에 밝은 날만 안고사네
친애하는 그이 모신 사회주의 내 나라는
가는 세월도 좋아 오는 세월도 좋아

이 땅우에 사계절이 쉬임없이 찾아와도
우리의 가슴속에 봄빛만이 흐르네
그이께서 지켜주는 사회주의 내 나라는

가는 세월도 좋아 오는 세월도 좋아
이 땅우에 낮과 달이 쉬임없이 흘러가도
오늘의 우리 행복 천년만년 꽃피거리
그이께서 빛내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는
가는 세월도 좋아 오는 세월도 좋아

아 **김정일**동지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나라는
가는 세월도 좋아 오는 세월도 좋아

수령님 오신 길은

김영근

소식을 알리시고
오신 길이 아닙니다
마중을 받으시며
오신 길도 아닙니다

연백벌 멀리 달빛을 밟으시며
아버이수령님 찾아오신 길
새벽빛을 밟으시며
기쁘시여 걸으신 길

탐스런 이삭을 손에 드시고
넓은 들 가득히 미소로 채우시며
몇번 다시 알수를 세어보실 때
나락의 무게만을 헤아리셨던가

연백벌에 넘치는 농민들의 진정도
수령님께서서는 듣고계셨습니다
친애하는 그이를 잘 받들어
우리가 농사를 더 잘 지어가리니
이제 더는 들길을 걷지 마시라는...

그 소원, 그 진정 뜨겁게 들으시며
이렇게 오시기를 잘하셨다고
풍년든 벌을 보니

1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하시며
걸음마다 기쁨을 남기신 수령님

아, 이처럼 새벽길에 찾아오실줄은
꿈에도 모르고 가꾼 벌입니다
떠나실줄 모르시고 이처럼 기뻐하실줄은
꿈에도 모르고 가꾼 풍년입니다

년세도 많으신 수령님께서서
더는 들길을 걷지 마시라
그 소원 연백벌에 나락으로 익혀가는
농민들의 그 진정이 오실 길을 넓혔습니다
농민들의 그 진정을 기쁨으로 펼쳐드렸습니다

나라의 농사걱정을
연백벌의 금물결로 다 씻으신듯
기쁨만을 안고 걸으신 길입니다
행복만을 남기시며 걸으신 길입니다

아, 달빛을 밟으시며
수령님 오신 길은
새벽빛을 밟으시며
이어가신 그 길은...

끝없어라 민족의 금지어

김용하

내 오랜 세월
사랑의 마음 담아
그대를 노래했노라
허나 오늘은
류다른 공지를 안고
조국이어 그대를 찬미하노라

신화의 질은 안개속에 가리워지고
세월의 두터운 락엽밑에 묻히였던
단군조선
유구5천년 민족사의 시원을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었으니

기뻐하노라
반만년의 억센 뿌리우에

더욱 굳건히 서고
단일민족의 혈맥이
더욱 뜨겁게 이어진
나의 조국이어

빛을 뿌리는 옛성의 로대
이끼돋은 성벽을 쓰다듬으며
내 마음 뜨거이 생각하노니
강토가 있어
력사가 이어지고
사람이 살아
민족의 넋이 살아 고동치던가
홍망의 풍운을 헤쳐온
수수천년
묻노니 조국이어

그대를 지켜
애국의 피를 뿌린이 얼마이며
그대를 빛내여
이름을 남긴이 얼마나

허나
우리 수령님 아니였더라면
우리 지도자동지 아니였다면
그 누가 찾아주고
빛내여주셨으랴

간악한 침략자들이
짓밟고 략탈하고 산산조각내여
망각의 광야에 뿌려던진
우리의 강토 우리의 역사를

오랜 세월
사대의 돌문속에 깊이 갇히워
빛을 잃었던
동방문화의 요람
고조선의 장한 모습
민족의 성스러운 원시조를

아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위대한 태양의

그 빛발을 안고
5천년 민족사는
누리에 빛을 뿌리노라

위대한 애국자의
그 품에 안기여
슬기로운 민족의 넓은
불멸의 존엄을 펼치노라

백두에서 한나에로
세차게 굽이치라
끊을수 없는 겨레의 피줄기여
지구의 어디에서 살건
가슴과 가슴에 높이 뛰라
단일민족의 자랑이여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오늘이 보람차고
래일이 희망차고
반만년 역사로 빛을 뿌리나니

노래하노라
이 땅에 영원할
영광찬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이여

마흔 넘어 꽃봉오리

(총련) 홍순련

...
행복이 무엇이나 그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 행복은 우리
...

귀익은 노래소리 들리어오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우리 수령님 서시였던 자리
내 다가서노라면

대리석 목란무늬마루
그 연분홍 꽃잎자리에
조심조심 한발
조심조심 두발...

이 순간에
마흔고개 넘은 이몸
그만에야 그 품에 안긴
꽃봉오리가 되고말았다네

행복이 무엇이나 그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 행복은 우리
...

설맞이공연 무대우에서
이역의 사랑동이 노래부를 때
아버이수령님
선참 큰박수를 쳐주신 자리

그자리에
나는 다가서네
조심조심 한발
조심조심 두발...

이 순간에
마흔고개 넘은 이몸도
그 품에 안긴 꽃봉오리처럼
인생의 설맛이를 하였네

백두산 장수와 두 제자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삼천리라는 터전이 거의 산악으로 이루어져 어느것이 산마루가 아닌것이였고 어느것이 봉우리가 아닌것이 없다.

이 우뚝 솟은 봉우리들과 깊이 패인 골짜기들은 아무리 흠어진 실과 같고 엉켜진 삼거위과 같더라도 반드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 법이다.

이 모든 산의 근본뿌리요 조종인 백두산에서 도를 닦으신 **김일성** 장군님의 도술이 못부리는 조화가 없으니 지극히 응당한 일이어서 그 소문이 삼천리에 자자하게 퍼졌다.

신비한 묘기와 천지조화를 한손아귀에 거머쥐신 김장군님을 찾아 이 나라의 뜻있는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백두산으로 밀려드니 그 수가 천인지 만인지 이루 헤아릴수가 없었다.

어느해 어느날 뜻을 품은 두 청년이 백두산으로 찾아와 김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자기들의 소청을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희들은 장군님의 능한 도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저 찾아왔습니다. 부디 제자로 삼으시어 그 령험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사람구실을 하도록 해주옵소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곧 제자로 삼으시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장군님에게서 직접 도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술에 무술을 겸비하여 축지법, 승천입지, 변신술, 둔갑술, 분신술은 물론이거니와 미리 천기를 내다보는 방법과 천문지리에 정통하여 모든 것을 마음대로 거침없이 하는 방법도 배워나갔다.

두 젊은 제자가 도를 닦기 시작하여 꼭 석달 열흘이 되는 날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두 젊은이를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도를 닦기 시작한지도 어언 백날이 되였거늘 그사이 술법을 얼마나 익혔는지 궁금한 마음 없지 않노라. 오늘 북만의 왜놈헌병대본부를 습격하여 그대들의 술법을 남김없이 보이라.》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두 젊은이에게 구체적인 분부를 내리셨다.

《헌병대본부는 넓은 수로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있으나 그대들의 재주로 그것을 넘기는 그리 힘들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넓은 수로는 반드시 그물을 밟고 건너야 하며 높은 담장은 반드시 타고넘

어야 하느니 뛰어건드거나 날아넘으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라.》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백두산을 내려 눈깜짝할사이에 수천리밖 북만의 왜놈헌병대본부가 있는 그 앞산에 이르렀다.

장군님께서 배워주신 축지법을 썼던것이다.

두 제자는 장군님께서 내리신 분부대로 헌병대본부를 들이치기 위해 숲속에 몸을 숨기고 적정부터 자세히 살피였다.

헌병대본부는 넓은 수로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있는데 경계가 얼마나 심한지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했다.

두 제자는 은밀히 수로옆에까지 다가갔다.

그들은 수로를 건너뛰려 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장군님께서 반드시 물을 밟고 건너야 한다고하신 말씀이 생각나 그들은 어떻게 할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그때 마침 그리 멀지 않은곳에 호박넙쿨이 뻗어간것이 보였다. 그들은 제일 큰 호박잎 두개를 뜯어내어 수로우에 띄웠다.

그리고 그 호박잎을 날쌔게 짚고 정충 건너갔다. 얼마나 날쌔게 짚고 건너뛰였던지 호박잎은 그자리에 그냥 떠있었다.

두 제자는 자기들이 신통한 생각을 해냈다는 자랑을 안고 물우에 둥둥 떠있는 호박잎을 내려다보았다.

다음 그들은 담장밑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도저히 그양은 오를수가 없었던것이다. 날아넘으면 간단히 넘어가련만 반드시 타고넘어야 한다니 어쩔으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궁리를 짜던 두 제자는 담장밑에 흠어져있는 벽돌을 모아 쌓은 다음 그것을 딛고 담장을 넘으려고 하였다.

벽돌을 외줄로 반길이나 되게 쌓고 거기에 올라섰다.

그러나 담장우까지는 아직도 어방없이 높았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달이 나서 망설이기만 했다.

아무리 살펴도 주변엔 벽돌이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래 이번에는 다시 있는 벽돌을 가지고 모로세워 쌓아보았다. 여전히 높이가 모자랐다.

두 제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쌓아보다가 맥이 진하여 땅바닥에 주저앉고말았다.

이때 갑자기 머리우에서

《맥을 놓고 주저앉지 말고 용기를 내라.》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분명 장군님의 음성이었다.

그들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담장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장군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다시 벽돌을 쌓아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높이가 모자랐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있는데 또다시 장군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것을 딛고 담장을 넘으라!》

그쪽 담장우를 바라보니 운무에 싸인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보였다.

담장우에 서계시는 장군님께서 한쪽손을 땅을 향해 내리퍼시였다.

그러자 땅에 있던 벽돌이 자석에 끌리듯 장군님 손에 썩 날아와 붙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그 벽돌을 들더니 담장옆에다 갖다 대시였다.

벽돌은 자석마냥 담장에 척척 들어붙었다.

장군님께서는 다음벽돌을 그아래 또 붙이고 또다른 벽돌을 연방 그밑에다 내리쌓으시는것이였다.

자기들과는 반대로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쌓으시는 장군님을 바라보고있던 제자들은 하도 신기하여 눈을 크게 뜨며

《야, 장군님께서 또 신비한 도술을 쓰시는구나.》하고 감탄하였다.

두 제자는 얼마나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어서 담장을 넘어들어가 왜놈들을 치라!》

장군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자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이께서 내려고여주신 벽돌을 딛고 단번에 담장우에 올라섰다.

그제야 장군님께서는 담장우에서 내리시여 넓은 수로를 건너가시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마치 땅우를 걷듯이 물우를 딛고 걸어건느시는것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호박잎을 딛고 건는것이 몹시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얼마를 배우면 장군님의 술법을 백의 하나라도 깨칠수 있을까?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술법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것을 깊이 깨달았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익힌 무술과 도술로 현병대본부를 치고 바람처럼 썩-백두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장군님! 이 미련한 제자들을 용서해주옵소서. 백날을 배운 저희들의 술법이 어느것 하나 익은것이 없으니 이는 리치에 밝지 못하고 둔재임을 스스로 나타낸것입니다. 산을 허물어 평지를 만들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그런 담력과 인내로 기어 이 술법들을 깨치겠으니 부디 한번만 더 조련을 해주옵소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시였다.

《그대들의 개조가 그만하면 꽤참거늘 과히 상심말라. 술법을 익히는것이 그리 쉽지 않거늘 마음의 탕개를 더욱 조이라.》

그후 두 제자는 더욱 열심히 술법을 배워나갔으니 그때부터 삼년석달후 그들은 무술과 도술에 통한 장수가 되였다.

김일성대원수님께 드리는 노래

미하일 베드로브

소박하신 풍모
끊임없으신 혁명활동
가슴깊이
조선의 기상을 지니신분
불의에 타협을 모르시고
정의를 지키시여
평화로운 나날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는분
전투도 건설도
능란하게 지휘하시며
싸움길의 위험도

한몸으로 다 막아내신분
밝은 새 세상 원치 않는자
희망찬 앞길 가로막는자들과 대결하실 때
안팎에 분노의 섬광 번뜩이시는분
그이께 삼가 송가를 드리노니
부디 영원히 만민의 사랑을 받으시라
위대한 인민이 낳은
위대한분이시여!

(필자는 로씨야 시인임)

조선인민의 밝은 태양

카구미아-므파미조

아 주체시대의 빛나는 향도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
당신은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시는분
당신의 현명성은 어린 시절부터 간직되어있었고
당신께서 보여주신 현명한 령도력은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었어라

령도자

아 **김정일**비서
조선의 미래 당신에게 달려있고
위대한 태양은 세계인민들을
진리로 각성시킵니다

아 **김정일**비서
당신은 걸출하신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사상을 체현하시고
주석의 지향과 뜻을 충실히 받드시는분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분
영광을 드리노라

아 **김정일**비서
당신은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사랑을 베푸
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고수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만세!

아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
당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계승자
주체의 빛나는 향도성
당신은 조선인민을 통일로 불러일으키시는

(필자는 우간다 캄팔라고등중학교
교원들의 위대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성원임)

《종자에 대한 리론은 그동안 창작실천을 통하여 진리성과 생활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 종자에 대한 리론은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전성기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문학작품의 종자에 대한 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인민상계관작품을 꽃피운 종자

인민상계관작품인 예술영화 《로동가정》은 로동계급의 혁명화에 크게 이바지한 훌륭한 영화이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의 영화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상 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작될 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예술영화 《로동가정》에서 처음에 들고나온 종자는 쇠돌을 캔다고 해서 로동자가 아니며 쇠돌을 줌 다루었다고 해서 로동계급이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였다고 하시면서 로동자가정의 혁명화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려는 일반적인 의도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이렇게밖에 세울수 없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당정책에 기초하여 생활을 새롭게 리해하도록 작가를 도와주면서 생활을 더 깊이 파고들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적처지와 혁명위업에 비추어 보다 심각하고 절박한 종자를 찾아내도록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이리하여 작가는 로동계급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안다고 해도 자신을 계속 혁명화하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된다는 사상적알맹이를 작품에 심어놓을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영화문학 《로동가정》이 작가에 의해 처음 씌여졌을 때 작품은 그 종자부터가 바로 심어지지 못하였다.

《광부일가》라고 제목을 달았던 이 영화문학은 찢막한 단부작이였다.

1971년 6월 21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광부일가》의 첫 작업필름을 지도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애로운 웃음을 담으시고 영화문학작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시며 그를 자신의 옆자리에 이끌어 앉히시였다.

작가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휩싸여 언제 실내의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 작품을 어디서 취재했는가고 물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정한 음성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린 작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면서 계속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고 저 장면은 어디에서 찍었는가고 묻기도 하시고 자동차사열 장면을 보시면서는 요란하다고 크게 웃기도 하시였으며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를 주기도 하시였다.

작가들은 작품이 도달한 수준은 높지 못했으나 그이께서 신심을 주려고 그처럼 만족을 표시해주시는것이라고 생각하니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영화가 끝나고 영사실이 다시 밝아졌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가? 영화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것인가하는 긴장한 초조감으로 하여 가슴을 울렁이고있었다.

이윽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현실을 취급한 영화로서 성공한 작품이라면 예술영화 《광부일가》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취급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작가들은 자기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과 같이 인민상계관작품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것은 작가들의 준비정도로써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사색을 모으시다가 손을 델바엔 따끔하게 대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술영화 《광부일가》에서는 로동계급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로동계급의 근본을 알라도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지 않으면 변질될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던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로 이 작품의 종자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은 영화의 현상태에서 어느 부분을 수정할데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로동계급 새 세대들의 사상정치생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분석이 가해진 전혀 새로운 종자를 밝혀주시는 가르치심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탐구된 새로운 종자, 그것은 작품에 독창적인 형상세계를 펼칠수 있게 하는 훌륭한 열쇠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새로운 종자를 심어주심으로써 작가들은 무엇인가 앞길을 답답하게 가로막고있던것이 시원하게 툭 터져나가면서 벌써 작품이 성과작으로 완성될 그 환희로운 순간이 지척에 보이는것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문학을 사상에 술적으로 훌륭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 그들의 관계를 생활의 논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릴데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작품의 요구로 보아 문제성을 체현하고있는 새 세대들, 특히 두석기사의 사상적약점과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잘 그릴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극의 화살을 둘째아들에게로 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작가들은 눈앞이 환히 트였다.

둘째아들 두석이를 부정화하는 문제는 사실 창작에서 고충거리였다. 작가들은 그가 작품의 문제성을 심화시키는 기본역을 수행해야 함을 알지 못했기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작가들은 그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그의 부정의 농도를 될수록 약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이를 밝히기 시작하면 영화가 더 복잡해질것이고 다른 이야기로 빗나가게 되지 않겠는가하는 위구심에서였다.

그러다나니 극의 화살이 방향을 정확히 잡고 날아가지 못하였다. 그저 대학을 마친 지식인인 두석에게는 기술신비주의와 노동자들을 흠시하는 사상이 있을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내리였고 삼석의 경우에는 젊은 혈기에 리상은 높는데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들떠있는 청년, 흔히 볼수 있는 인간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그의 성격을 단정해버렸다. 말하자면 새로운 현실이 제기하는 갈등관계를 옹계 전형화해내지 못하였던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다나니 인물들의 성격발전과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이 생활과 밀착될리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에 맞게 생활적갈등을 설정하고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개조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주인공들이 추상성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갈등론을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가정에서 태어난 지식인 두

석기사는 사업에서 교만성, 향락, 공명주의 등 낡은 사상에 오염될수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주위에서 동요시키는 조건이 조성되자 낡은 사상 잔재를 풍기다가 결국 공격의 화살을 맞게 되었다.

밤은 깊어 자정이 지난지도 이속했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작품의 종자를 꽃피울 방도를 하나하나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창작가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몇번이고 곱씹어 일깨워주시기도 하시였다.

뜨거운 열정으로 작품의 크고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작가들은 1930년대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여러련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히 창작하시고 대원들에게 작품의 심오한 뜻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그대로 뵈옵는듯하였다.

영화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작가에게 이틀동안에 해보라고 하시면서 내 방에 와서 토론해보자고 크나큰 믿음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가슴이 몽클해난 작가는 《알았습니다.》라고 힘차게 대답올리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달라붙어보자고 하시면서 농촌물에서 하나 성공했는데 로동계급물에서도 하나 성공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작가들은 작품수정안을 이틀동안에 수정완성해냈다. 작품수정안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영화문학작가를 비롯한 창작가들을 집무실로 불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이 방에 들어서자 보시던 문건들을 밀어놓으시며 짧은 기일안에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함께 읽으면서 토론해보자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정대본을 한장한장 넘기시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얹음새 그리고 대사와 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바로 잡아주시였다.

아직 기량이 어리고 리론이 밝지 못한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리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두번이고 세번이고 알아들을 때까지 밝은 웃음을 지으시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정대본의 대사를 한구절한구절 짚어가시면서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

시고 친히 가필도 해주시었다. 그리고 사상이 명백하지 않거나 생활적인 말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려없이 작가가 함부로 쓴 대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표현해보시고 저렇게도 표현해보신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주곤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에게 자신께서 고치신 대사를 읽어주시며 이렇게 하니 대사의 뜻이 명백하고 표현이 풍부해지는것 같다고 하시며 이것이 수령님의 문풍이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작가들은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나의 대사까지 바로 보지 못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심려를 끼쳐올리는 자신들이 과연 어떻게 작가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작가들은 깊은 감동과 자책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고쳐주신 대사들을 읽어보았다. 그중에서도 정희교원이 남편인 두석이가 방안에서 나간 다음에도 빈방에다 대고 《우리가 도시로 나가는데 뭘이 나빠요? 친척들간에 서로 나들이도 다닐수 있는데... 이젠 그저 온 식구가 한골안에서 오골오골하니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고 자기 심리를 토로하는 장면의 대사는 참으로 명대사였다.

얼마나 생활적이고 예리하며 진실한 대사인가.

이 대사가 들어감으로 하여 정희가 자기의 로동가정에 대한 평가와 산골안에서 살기 싫어하는 부정적성격이 확 드러나게 되었으며 지어 그가 얼른 도시로 나가 살았으면 하는 내적행동까지 뚜렷하게 표현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지도가 미칠 때마다 작품은 새롭게 완성되어갔다.

석연치 않던 사건들은 뚜렷한 선을 타고 뻗어갔고 제길로 똑똑히 걸어가지 못하던 중요인물들도 자기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생산기술문제해명에 머물러있던 작품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인 로동계급의 혁명화문제를 취급하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혁명화문제를 기본문제로 삼은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예술영화 《로동가정》을 보시고 영화에서 주자는 사상도 명백하고 심각한 장면도 있고 생활도 있고 재미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의 한 가정을 잘 취급한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내용을 더 깊이있게 하고 주자는 사상도 더 부각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명백한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작품을 빨리 완성하기 위하여 창작력량도 붙여주시고 창작조건도 일일이 보살펴주시었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좀 지나서 창작가들은 영화를 보충완성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렸으나 그이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를 보시고 심중한 어조로 동무들이 소극성을 범했다고 하시면서 비판하려면 문제점을 놓고 비판해야지 문제점이 없이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이야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두석의 선을 고치지 않고 땀식으로 한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마지막에 있는 심각한 비판장면이 더 잘 살수 있도록 두석기사가 파오를 범하게 되는 과정을 객관적론리에 맞게 그리고 생활축적과 감정선을 통해서 잘 그릴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는데 창작가들이 끝끝내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것이다.

사실 작품의 수정과정에 두석의 성격을 발전시키는데서 등장인물들 호상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예리하게 하며 두석이를 어떤 비판의 방법으로 개조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나섰다.

새로운 현실이 제기하는 갈등관계를 전형화하는 가장 정당한 처방은 하나일것이었으나 그것이 어느것인지 알수가 없었던 작가들은 고심하던끝에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정적현상을 사건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200만산 대발파를 둘러싼 사건에서 그 해결을 찾았다. 그리고는 이것이 가장 신통한 해결방도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동가정생활내에서 문제를 야기시켜야 할 두석이가 다시 생산기술문제에 파묻히여 종자에 맞게 꽃을 피울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이 담고있는 부족점을 따듯이 일깨워주신후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걸어질것이 없으니 로동가정생활에서 이야기를 새롭게 찾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시었다가 두석의 선을 살리자면 그의 부부생활을 더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희가 자기 친정집에 들락날락하면서 남편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 두석이 일시적이거나 넘어가는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새로운 형상적발견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작가들은 비로소 것처럼 모대기면서도 찾지 못하였던 두석기사의 생활을 깊이 파고들수 있는 형상방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품은 생산기술적문제로부터 인간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정희교원도 성격이 개성화되고 두석의 성격을 부각시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살아나게 되었다.

작가들은 이렇게 되면 작품이 완성될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래일아침 다

시 토론하자고 하시는것이였다.

작가들은 그날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너무나도 생각이 깊어졌다.

이튿날아침 창작가들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좀 생각해보았는데 작품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또하나의 새로운 절박한 문제를 취급할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요즈음 큰 결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집안간판을 팔아먹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형은 당비서이고 아버지는 광구장이라고 하면서 삼석이가 부모와 형의 등을 대고 으쓱대는것을 하나 넣자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서는 아버지가 로동계급이라고 해서 아들도 다 로동계급이 되는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아들도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작가들이 등장시켜놓고도 처리하지 못하고있던 셋째아들 삼석의 성격도 시대적높이에서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부모와 형의 등을 믿고 으시대는 삼석이와 같은 새로운 부정인 젊은 세대의 성격이 창조될수 있었고 영화의 종자는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처음에는 그저 개념적으로 설정되였던 한석이도 당일군으로서 가정의 중심에 튼튼히 서게 되였고 따라서 작품의 무게도 생기고 인물호상간의 극적관계도 짙어지고 작품의 내용이 더 명백하게 되였다.

처음 작품에 그려졌던 한석은 이 가정이 대가정인것만큼 아들이 적어도 셋쯤은 있어야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맏아들로 설정되였다.

그런데로부터 동생들한테 할아버지 촌보나 아버지 광록이처럼 교훈적인 이야기나 해주는 인물로밖

에 달리 형상될수 없었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이 인물을 멀리에 있는 풍구봉광구라는곳에 툭 떼서 보내고말았었다.

이것은 작품에서 처리하기 바쁜 인물은 출장을 보내거나 강습을 보내며 학교나 휴양을 보내는 식의 단일한 창작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과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드디어 예술영화 《로동가정》이 완성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종시사회가 있던날 영화를 다 보시고나서 영화가 괜찮다고 하시며 마음먹고 하니 결작이 하나 나왔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영화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려 높은 평가를 받도록 배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완성된 영화를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을 취급한 작품이 신통한것이 없었는데 이 영화는 아주 잘되었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광부일가》라는 영화제목을 《로동가정》이라고 친히 고쳐주시고 작품에 인민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영화에 인민상이 수여되는 그 뜻깊은 날에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과 선물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후날 작가를 만난 자리에서 축하한다고 하시며 앞으로 더 좋은 영화문학을 많이 쓰라고 따뜻이 고무하여주시였다.

순간 작가는 너무도 가슴이 뜨거워 인사의 말씀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

참으로 작가가 쓴 소재에 불과했던 영화문학을 무려 10여차례나 따뜻이 지도하시여 시대의 걸작으로, 인민상계관작품으로 완성시켜주시고도 오히려 작가를 내세워주시고 축하까지 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믿음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가사

소백수 물소리

김윤희

소백수 물소리 정다운 물소리

고향집 뜨락에 노래로 올리네

2월의 그날을 못잊어 못잊어

아 오늘도 그날처럼 정답게 올리네

흰눈꽃 피어난 소백수 샘가에

추억을 부르며 다정히 올리네

어머님 그 영상 물가에 어리던

아 그날을 못잊어 뜨겁게 올리네

백두의 정기로 흐르는 물소리

정일봉 감돌며 노래로 올리네

영원한 조선의 미래를 부르며

아 행복의 노래되어 끝없이 올리네

시대의 웨침

김영길

이 세기의 마지막년대가 저물어가는
지구의 곳곳에서
조선을 우러러
기적의 신화인듯
경의에 찬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력사의 궤도가 변했다고
제국주의자들이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며
위협과 공갈로
질식시키려 날뛰는속에서도
사회주의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조선
강대한 그 존엄
불패의 그 힘의 비결은 무엇인가

아마도 몰랐으리
《자유화》의 바람에 취해
악몽속을 헤매이던 사람들
현혹의 안개 가셔지는
어지러운 대륙을 놀라 바라보며
피의 눈물속에 새기는것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사회는 무슨 힘으로 변화발전하는가

그 진리를 체득하신분이 있다
심원한 주체의 원리로
세계의 모양을 새롭게 밝히신
위대한 사상리론의 거장
령도의 대가
군사의 명장이신
김정일장군!

민족해방의 폭풍 지동치는
백두산야에 생의 첫자욱 찍으시고
강적 미제와 맞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지켜싸운 성전속에
반제혁명의 녀
탁월한 령장의 지략과 담력을 이어받으신
김정일원수!

어버이수령님 받들어
문무충효
생리로 체현하시고
력사의 주체 인민앞엔
참된 아들이 되시여 지니신 신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베푸시는 인덕의 열화 흘러넘칠수록
원췌에겐 무자비한 분노의 철추를 내리시나니
한번 구령으로
도전해오는 제국주의 떼무리들
일격에 좌절시키시고
세상의 면전에서 항복서를 받아내신
강철의 령장

오!
강대한 조선의 그 존엄은
김정일장군의 담력!
불패한 조선의 그 힘은
김정일장군의 의지와 신념!

누가 굴복시킬수 있으랴
감히 돌려세울수 있으랴
철화보다 굳센
조선의 이 혁명정신
백두에서 시작하고 개척해온
사회주의의 길-
공산주의의 길-

불멸의 이 위업을 위하여
그이께서 조선에 나섰다
력사의 이 위업을 위하여
그이께서 이 세상에 나섰다

그이는
사회주의의
승리의 법칙을 밝혀주신분!
그이는
방황하는 지구우의 인류를 깨우치시여
공산주의미래에로 이끄시는분!

력사가 뒤바뀐듯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이
그 아무리 떠들어대라 하라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사회주의를 《압살》하러 날뛰다 하라

조선이 없는 세계를 결단코 용납치 않으시는
김정일장군
그이께서 계시는 한
그이의 백전백승의 령도를 따라
천만의 심장들은 총폭탄으로 베풀쳐
제국주의를 영영 끝장내고야말리니

이 세기의 마지막기슭에서 찾아안은
 철의 그 진리
 인류는 경의에 차 이야기한다
 시대는 웨친다
김정일장군
 그이는 사회주의!
김정일장군
 그이는 공산주의!

오오!
 지구우에 위치한 땅은 넓지 않고

인구는 많지 않아도
김정일장군을 모신 조선은 강대국!
 인민도 위대한 인민!
 군대도 무적의 강군!

위대한 그이를
 사회주의의 기수로 높이 모시여
 희망의 세기 21세기는
 사회주의세기로 동터올것이다
 주체의 영원한 세기로
 찬란히 밝아올것이다!

답시

려단장과 전사

신병강

감감한 밤
 별도 없는 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가고가는 행군길 행군길

수백리는 실히 걸었으리
 노래소리도 어느덧 뜸해지고
 풀벌레 울음소리도 잦아들고...
 대오는 무거운 발걸음을 끄는데
 그 누군가 다가와
 한 전사의 총을 벗기려네
 -힘들지, 총을 이리 주게

분대장의 목소리도 아닌
 중대장의 목소리도 아닌
 석심하고 웅글은 목소리임자는 누구?
 전사는 총부력을 그러쥐며 말했네
 -총을 주다니요
 그럼 난 빈털터리가 되게요!

그러고선 말없이 걸네
 나란히 서서 걸네
 아끼는 마음
 위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힘이 되고 날개되어
 하나의 대오로 굽이쳐가는
 행군길 행군길

짧은 휴식시간
 전사에게 담배를 권하며 그는 말했네
 -동무 보통이 아니구만
 하기사 총이야 남에게 줄수 없지
 여물었거든, 총알이야!

하하하...

허물없이
 스스럼없이
 전사는 말했네
 -난 대포알이 되자면 멀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동무와 함께라면
 천만리길도 단숨에 갈수 있어요

푸름푸름 새날은 밝아오는데
 그만에야 전사는
 우뚝- 멈추어 서고말았네

깊은 밤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고
 담배도 나누어 피우던 그가
 아니 글썄
 려단장동지일줄이야

날이 밝자
 장령과 전사가 담배불 맞붙질했다는
 그 소문이 온 려단에 퍼졌네
 긴긴 행군대오엔
 웃음소리가 터져울랐네
 하늘도 불그스레 따라웃고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아 실고
 강물도 출렁이였네

-려단장동지도 말이야
 우리와 똑같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라네
 관병은 친형제
 불구름도 함께 헤칠 미더운 전우라네

쌍무지개

무지개는 자연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칠색무지개는 볼수록 아름다와 사람들은 예로부터 무지개를 신기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두줄기로 비껴선 쌍무지개를 본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할것이다. 그런데 백두산에는 쌍무지개가 비끼군한다. 더구나 백두산의 쌍무지개처럼 령롱하고 화려하며 우아한 쌍무지개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을것이다.

무지개는 반드시 비가 멎은 다음에만 비끼는것이 아니다. 관측에 의하면 강산에 백설이 뒤덮인 추운 겨울날에 무지개가 비끼는 때도 있었고 지어는 쌍무지개가 선 때도 있었다.

소백수굴에 뿌리를 박고 정일봉을 거쳐 장군봉에 걸놓이군하는 칠색령롱한 쌍무지개는 1년치고 한두번정도 볼수 있는 희귀한 풍경이다. 이러한 쌍무지개는 백두산만이 간직한 특유한 풍경이다.

그래서 사람들속에서는 이 신기한 쌍무지개를 두고 많은 전설을 전해오고있다.

나라가 해방되기 몇해전에 있는 일이다.

백두산줄기의 어느 한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에는 쇠동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그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였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하지만 험한 세상은 그의 미덕을 회롱하며 운명의 앞길에 불행만을 안겨주었다. 칠들기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왔었는데 실상가상으로 2년전에는 《징용》에 끌려갔던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고 불구의 몸으로 돌아왔다.

하늘처럼 민던 아버지마저 폐인이 되어 살아갈길이 막막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식구들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무진애를 썼다.

겨울에는 거름을 장만했고 봄에는 나무뿌리를 캐고 화전을 일쿠어 씨를 뿌렸다. 그리고 여름에는 습막히는 더위속에서 바랭이풀과 씨름질하며 김을 매고 개바닥에서 등짐으로 물을 지어올려 가물타는 곡식을 살리며 억척스럽게 일하였다.

그러면서도 쇠동이는 아버지의 병치료를 두고 여간만 마음쓰지 않았다. 김을 매려 산판을 오르내리면서 약초를 캐기도 했고 째째이 나무를 해다 팔아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왜놈들이 살판치는 모진 세상은 아버지에게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성도 알아주지 않았다.

멸망에 직면한 왜놈들이 어떻게나 지독스럽게 락

탈을 했던지 종곡까지 다 털리워 그의 가정은 한해 농사를 지어도 입에 풀칠조차 할수 없는 형편이었다.

쇠동이는 위독한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 살려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명의들을 찾아가 약방문을 알아보고 특효가 있다는 약이란 약은 다 지어다 써보았다.

하도 쇠동이가 극성스럽게 지성을 쏟아부어 마을 사람들까지 그를 도와나섰다.

그러나 골병이 든데다가 변변히 먹지도 못하여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이제는 생명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쇠동이는 참나무굴 의원을 찾았다.

쇠동이로부터 병자의 형편을 다 듣고난 의원은 아버지병에는 백약이 무효인데 오직 황생초라는 초약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약초의 생김새를 알려주면서 그 약초는 무지개빛을 두번이상 받은것이라야 약효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칠수 있다는 약방문을 얻은 쇠동이는 다소 마음이 놓이였지만 그것을 구할길이 막연하여 또 한숨을 지었다.

황생초가 눈앞에 있다 해도 무지개빛을 받으려면 봄계절이 와야겠는데 지금은 눈보라만 지동치는 한겨울이니 어떻게 하라.

이맘때에 무지개빛을 받은 황생초를 찾는다는것은 백설광풍이 휘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산딸기를 구하는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바질바질 타드는 가슴을 옥죄이며 온밤 고뇌속에 모대기던 쇠동이는 다음날아침 인정많은 이웃집에 찾아가 약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집을 떠났다.

그가 집을 나선것은 무슨 마련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수소문하면 혹시 황생초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만날수도 있고 산을 뒤흔드리면 눈속에 그냥 묻혀있는 해묵은 약초를 찾아낼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 희망이 움트고있었기때문이었다.

집을 나선 그는 예로부터 명약이 많다는 백두산 쪽으로 향방을 잡아 산발을 뒀다.

그는 골짜기들을 살살이 뒤흔며 줄곧 산에서 사는 포수들과 화전민들을 찾아가 황생초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 약을 누구도 가지고있는 사람이 없었

다.

이제는 산판에서 눈속을 헤치고 약초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약초가 있을만한곳을 찾아 수없이 헤매면서 맨손으로 생눈을 헤치고 모지랑호미로 언 땅을 두지군하였다.

집을 떠난지 열흘째되는 날이었다.

이날도 해종일 생눈을 헤치던 그는 저녁무렵에 너무도 기진하여 그자리에 쓰러졌다.

그는 피곤이 온몸을 짓눌러 눈구덩이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황생초가 있을만한곳을 살피고있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어둠이 깃들었다.

어둠속에서 백두산마루를 쳐다보니 숨같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있었다.

이윽고 그 구름장들이 말끔히 가셔지고 새로운 장수별이 반짝이며 유별나게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전에 볼수 없었던 별빛이 유난히도 밝고 찬란하여 쇠동이는 백두산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헌데 백두산이 가까와올수록 길이 험하여서 점점 걸음이 떠졌다.

그러나 쇠동이는 힘을 내어 걷고 또 걸었다.

얼마쯤 갔을가? 쇠동이는 그만 눈구덩이에 빠지고말았다.

나오려고 사지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은 더 깊이 눈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기운이 빠져 더는 움직일 맥조차 없었다.

눈보라는 윈- 윈- 기승을 부렸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어 저 백두산에 솟은 별을 보라!》하는 말소리가 울려왔다.

어디서 누가 하는 말인가? 쇠동이는 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로 솟은 백두산의 장수별이 번쩍 하고 밝은 빛을 뿌렸다.

그 빛을 보자 그의 온몸에선 기운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새로 힘을 얻은 그는 눈속에서 빠져나와 백두산을 향해 또 달려갔다. 그는 힘든줄도 추운줄도 모르고 어느결에 백두산마루에 올라갔다.

백두산정에 이르니 현란한 빛이 온 골짜기에 쏟아져내려 눈을 뜰수가 없었다.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니 희한한 정경이 펼쳐졌다.

그처럼 눈갈기를 몰아오던 사나운 광풍은 잠잠해

지고 무릎이 빠지도록 쌓였던 눈도 언제 있었던가 싶게 말끔히 녹아버려 골짜기마다에는 파란 풀들이 꽃망울을 터치고있었다.

어인 일인가 싶어 꽃포기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고향마을의 의원이 말하던것과 똑같은 황생초꽃이 발부리에 피어있었다.

쇠동이는 환성을 올렸다.

이제까지 겪은 고생은 씻은듯이 사라졌다.

황생초! 황생초가 겨울에 피어있는것이다.

《아버지, 황생초를 찾았어요. 의원님, 황생초를 찾았습니다!》

그는 목청껏 환성을 올렸다.

황생초를 감싸안고 기뻐 어쩔줄 모르는 쇠동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그들먹이 고여올랐다. 모지랑호미를 들고 조심스레 약초를 캐려던 쇠동은 웬 일인지 갑자기 손이 굳어졌다.

무지개빛을 두번 받아야 약효가 있다던 의원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기때문이었다.

이 황생초가 혹시 무지개빛을 받은 약초가 아닐가?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랴. 이 한겨울에 어떻게 무지개가 비칠수 있겠는가.

쇠동이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망설이였다.

이때였다. 저 멀리 하늘가에 붉은 노을이 타오르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천지에 뿌리를 박은 명룡한 칠색쌍무지개가 소백산을 향해 뻗어내리는것이였다.

(웁지 됐구나! 황생초에 쌍무지개가 비쳤으니 의원의 말대로 무지개빛을 두번 받은셈이로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백두산의 밝은 별을 우러러보았다.

어쩐지 이 모든것이 밝은 별의 조화라고만 여겨져 고마운 마음이 가득가득 차올랐다.

이제는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릴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마음을 다잡으며 쇠동이는 작은 뿌리 하나 상할세라 약초를 정히 캐다.

그리고는 위독한 아버지의 병을 빨리 고쳐드리리라 마음먹고 걸음을 다그치니 열흘길을 한나절에 가닿을수 있었다.

쇠동이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듣고난 아버지는 《아니, 이런 희한한 일이라구야.》 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였다.

쇠동이는 지체없이 황생초를 달여 아버지에게 대접했다.

그랬더니 꺼렇게 죽어들어가던 아버지의 얼굴에 불깃불깃한 혈색이 돌고 감각조차 없던 상한 다리에는 맥이 통했다.

아버지의 몸에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변화를 지

켜보며 런 아흐레동안 약을 복용시켰더니 어느날 아침 병세는 씻은듯이 다 나았다.

앓은뱅이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아버지가 이제 웬일인가고 환성을 울리며 별떡 일어날 때 쇠동이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었다.

쇠동이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희한한 소식이 회오리바람처럼 마을을 스쳐지나니 해살도 퍼지기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잠간사이에 쇠동이에 집 앞마당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립추의 여지없이 들어찼다.

그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난 병자를 보느라고 서로 밀치고 닥치며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냈다.

쇠동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한로인은 흰수염을 내리쓸며

《요 며칠전에 맑게 개인 백두산에 여느때 볼수 없었던 쌍무지개가 온 강산을 아름답게 비쳤으니 가난한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옆에서 로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서있던 한 젊

은이는 자기가 얼마전에 아래마을 함바집에서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는데 《백두산에 피여오른 쌍무지개는 **김일성** 장군님의 뜻을 이으실 백두광명성이 내린것이라고 하더군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 말이 옳은 말일세. 옛날에 로인성이라는 별이 하늘에 떴는데 그 별은 한나산에서만 볼수 있기 때문에 제주사람들은 장수하는이가 많다는 말이 있었네. 이번에 장군별과 함께 또 백두광명성과 같은 의로운 별이 떴은즉 그 빛을 각별히 받는 우리 백두산마을에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긴것은 웅당한것일세.》

백발로인은 기쁨에 넘쳐 머리를 끄덕이였다.

쇠동이 아버지의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은 백두광명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그때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백두산에 쌍무지개가 비졌으니 멀지 않아 조국광복의 큰 소원이 풀리고 행복이 올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곳곳이 살아왔다.

3월 1일에 부치여

장원준

두팔이 칼날에 잘리워도
기발들어 만세를 부른 날이였다
총창에 가슴을 찢렸어도
목터지게 독립을 갈구한 날이였다
오, 3월 1일이여

침략자의 총칼에 피가 흐르고
시체는 길을 메웠어도
빼앗긴 나라는 찾을수 없었던
그 피의 웨침이
오늘도 메아리쳐오는 이날!

망국의 한이 고드름처럼
가슴가슴에 얼어붙었던 세월
위대한 수령님
항일대전의 불을 지피시여
백두의 찬바람속에서 내 조국 안아오셨으니
그 력사의 교훈은 무엇을 말하였던가

탁월한 수령이 없인
무궁한 인민의 힘도 모래성이 된다는것을
위대한 령도자가 있어야 조국도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것을
준절히도 깨우치며 흘러온 날아

오, 백의민족이 흰옷을 피로 물들인 날이여
력사는 교훈을 남겨니
그렇다 참살된 백성의 반항이
조국사 75년 지난뒤 내 가슴에 불붙어

진정
깨달은 진리도 지킬 때만 진리이기에
우리 혁명의 수위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린 정녕 얼마나 행복한 세대냐
내 조국 앞날은 또 얼마나 창창한것이나

내 그 참뜻을 심장에 새겨안노라
모래도 땅이 있어야 백사장을 이루듯
그 어떤 폭풍에도 사무침에 흔들림없는
일심단결의 이 시대에 네가 부치여
이 마음 더욱 부치여!

오, 3월 1일이여
그날엔 비록 통탄에 울었어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그 빛발 찬연한
이 세월엔 웃으며 흘러가라
인민은 탁월한 수령이 계셔야 승리함을
이 땅에 피로 쓴 인민봉기의 날이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따르려는 시대의 념원에 대한 진실한 형상

-장편실화소설 《시대의 념원》에 대하여-

명일식

《21세기는 〈**김정일**화시대〉로 될것이다!》

이것은 장편실화소설 《시대의 념원》(리호인)의 마지막구절이다.

이 말은 단순히 꽃의 새 시대를 예언만 하고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새 세기를 밝히는 향도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고있는 우리 시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 뜨겁게 집약화되고있다. 여기에는 또한 오늘의 절절한 시대적념원을 안고 새롭게 꽃피여난 《**김정일**화》에 깃든 감명깊은 이야기가 실화적인 생활화폭으로 잘 안반침되고있다.

원래 실화소설은 현실속에 실지 있는 생활들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인간학적인 요구에 맞게 성격을 창조하는 독특한 문학형식으로서 그 어떤 다른 형식들보다 독자들에게 더 친근하고 실감있게 읽히우며 깊은 정서적감흥을 안겨주는것이다.

따라서 실재한 생활적사실에 충실한것은 실화문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특성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써는 그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소설, 실화소설은 다 실재한 인물과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철저히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

실화소설은 엄연히 문학인것만큼 실재한 사실에 대한 실화적인 충실성과 그의 인간학적구현, 이 두가지 요구를 다같이 훌륭히 살려낼 때만이 실화소설로서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훌륭하게 담보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장편실화소설은 《**김정일**화》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의 력사적사실들에 충실하면서도 꽃을 발명한 일본의 원예학자 가모 모도데루의 성격발전을 통하여 향도의 위대한 태양을 흠모하는 시대와 인류의 절절한 념원을 인간학적인 요구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온 누리에 만발해가는 생활화폭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특색있게 감동적으로 구현할수 있게 되였다.

매혹과 흠모

이 세상에는 수백수천종의 꽃들이 있다.

이 꽃들은 꽃마다 다 자기의 특색을 나타내며 고운 색깔과 진한 향기로, 아니면 아름다운 모양과 피

여있는 날수로, 또는 꽃을 연구한 원예가의 이름으로 제나름의 뜻을 가지고서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우고있다. 장미시대, 튜릴시대, 베고니아시대로...

그러나 이 꽃들은 다 자기의 고유한 특징들을 자랑하거나 원예가의 이름을 력사에 남기는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한생을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데 바쳐온 주인공 가모 모도데루는 이 꽃들과는 달리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한 이름으로 불리울 꽃을 육종하고싶었다. 이 소원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기 가문의 운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불리울만한 꽃을 가꾸고싶어하는 가모집안의 필생의 숙원과 직접 연관되어있었다.

하기에 작가는 장편실화소설 《시대의 념원》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되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걸출한 인간풍모에 온 넋이 다 매혹되어 자기 가문의 숙원의 꽃에 그이의 존함을 모시게 되였는가를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밝히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작가는 이것을 순수 꽃에 대한 생물학적인 문제의 해명으로가 아니라 향도의 태양을 따르며 흠모하는 시대와 인류의 새로운 인생관에 대한 뜻깊은 문제로 제기하고 감명깊게 해명하고있다.

본래 원예가들이란 누구나 꽃을 단순한 관상용으로만이 아니라 꽃에 자신의 고상한 인생관과 숭고한 삶의 뜻을 담기 위해 애쓰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뜻을 담은 꽃을 가꾸는데 성공하기만 하면 흔히 원예가들은 그 꽃에 사랑과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역시 자기 가문의 숙원의 꽃에도 그런 화명을 달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가모 모도데루의 가정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어떤 명예나 재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원예가의 량심으로 오직 자기 가문의 안녕과 행복을 수호해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온 참다운 원예가의 가문이다. 그들이 대를 이어 바라온 《수호신》의 꽃이란 악한자들을 요정내고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들을 안아키우는 용맹하고 너그러운 천품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가모의 할머니도 어머니 스미코도 이러한 《수호신》의 꽃을 육종하기 위해서 한생을 다 바쳐 애써왔으나 끝내 얻어내지 못하고 유언으로만 남긴채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가문의 열망과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고 가모 모도데루가 지금까지 애써 가꾸

어은 숙원의 꽃이 바로 《빨간 베고니아》인 것이다. 《빨간 베고니아》를 놓고 말하면 가모꽃창포에서 여러해동안이나 개량육종해온 품종으로서 일본 원예계에서 첫자리로 꼽히우는 가쓰에 지주로까지도 《수호신》으로서의 화명을 달아도 손색이 없다고 하는 꽃이지만 가모 모도데루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빨간 베고니아》는 무엇인가 부족한듯 짙은 안개속처럼 표상이 뚜렷하지 못하였고 그 미흡한 점들이 언제나 가모의 마음을 괴롭히고있었다.

이러한 피로움속에서 모대기던 가모 모도데루는 영국을 비롯한 화초의 나라인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는 과정에 그 원인을 명백히 찾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모가문의 《수호신》으로 내세울만한 꽃을 하느님에 대한 꽃으로 만들겠다고 것처럼 대를 이어 온갖 정열을 다 기울여왔지만 그 꽃을 끝내 완성하지 못한것은 하느님에 대한 표상이 명백하지 않고 추상적이었다는데 근본원인이 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하다면 과연 어떤 꽃을 피워야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수호신》의 꽃으로 육종할수 있겠는가.

작품은 이러한 문제를 인간학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주인공 가모 모도데루의 심각한 심리적모대김과 그의 진실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지금까지 모색해오던 허황하고 추상적인 하느님으로서의 《수호신》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를 발견해내듯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수호신》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여기에 형상의 초점을 두고 각광을 집중시키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수호신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과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고 보호해주는 신격화된 위인의 넓은 품을 상징하고있다.

소박한 그들이 바라는것처럼 하늘에는 그런 《수호신》이 없었다. 그들이 바라는 진정한 인간의 수호신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주체의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온 세상에 참다운 인간의 락원을 꽃피워가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주인공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는 과정에 그것을 뜨겁게 체감하고 온 넋으로 그이의 위대한 인간품모에 매혹되게 되었으며 그 매혹된 넋은 절절한 흠모의 사상감정세계로 발전해갔다.

하지만 가모 모도데루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인간의 수호자, 인류의 수호자로 높이 흠모하며 우러러따르게 된것은 그 어떤 순간적인 흥분이나 충동에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행로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것을 려과하고 종합한 심장의 총화로 이룩된것이였다.

그는 우선 한생을 진리를 탐구하는데 다 바치고 있는 존경하는 일본의 교수 이노우에 슈하찌의 저서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덕정치에 깃든 높은 경륜의 세계를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한 교수의 절절한 체험담을 통해서 인류가 열망하는 참다운 리상사회가 조선에서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끝없이 동경하게 되었다. 더구나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신봉하고 확고한 자주적인 지향성과 깨끗한 량심에서부터 출발하여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절절한 흠모심을 발현시키고있는것을 직접 목격하고는 자신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매혹과 흠모의 감정을 도저히 억제할수가 없었다. 참으로 위인의 품모에서 받아안게 된 매혹의 넓은 거대한 힘을 나타내었다.

가모 모도데루는 자기가 살고있는 일본에서도 흔히 보아왔지만 영국의 보리양 찰튼을 만나러 갔을 때 로동자들이 피를 흘리며 《로동조건을 개선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해고를 반대한다!》 등 생존의 초보적인 권리들을 찾기 위하여 파업을 일으키는것을 보고서 무거운 가슴을 두드렸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위인이 없단말인가! 생존의 초보적인 권리를 들어주는 위인이...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수호신이 없단말인가...)

이러한 가모 모도데루의 머리속에 번개치듯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처럼 애독하는 《현대조선과 **김정일**비서》란 책에서 로동계급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이 일하는곳이라면 수천길 지하막장도 찾으시는 **김정일**동지의 모습이었다.

동서고금 그 어느 력사에도 자신의 신변을 생각하지 않고 광부들을 찾아 수천길 지하막장에까지 내려간 령도자는 없다.

진정 이것은 인민의 수호자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매혹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다.

가모 모도데루는 이러한 매혹의 세계를 화초의 나라 네덜란드의 이름있는 원예가 베힌의 뜨거운 심장의 말속에서도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다.

베힌은 아름다운 꽃을 곱게 피워서 조선에 보내려고 한다면서 심장의 목소리로 말하고있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왔지만 조선에서처럼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처는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어찌나 감탄했던지 리상향에 온것 같다고 했습니다.》

베힌의 이야기를 듣는 가모의 눈앞에는 과연 녀성들의 유토피아라고 말할수 있는 화려한 평양산원이 생생히 떠올라 감탄을 터쳐놓았다.

《존경하는 **김정일**비서께서 조선의 녀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셨구나!》

참으로 이것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학대와 억압만 받아온 녀성들에게 위대한 사랑을 안겨주신 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웨침이다.

하기에 베힌은 더욱 절절하게 말을 계속한다.

《...나는 녀성들과 태어나는 얘기들을 것처럼 사

랑하고 아끼시는 그런분은 처음 봤습니다.

김정일 비서께서야말로 인간중의 인간이시며 위인들중의 위인이시며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수호신, 행복의 수호신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인간미에 반했습니다. 꽃이야 반한 사람에게 드리는게 아닙니까?...》

이 심장의 말속에는 그대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간풍모에 끝없이 매혹된 녀과 그이에 대한 절절한 혐모의 감정이 차넘치고있는것이다.

가모 모도데루의 심장속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매혹과 혐모를 강렬하게 불리일으킨것은 그뿐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 일본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본에 없는 클락새나 후투디와 같은 진조를 한쌍씩 조신의 조류박사 차신목을 시켜서 친히 보내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더욱 생활적으로 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름도 모르는 깨추아인디안족의 한 청년선원을 사경에서 구원해주신 그이의 사랑넉친 이야기를 안데스산답사의 길에서 감명깊게 듣고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혐모심을 더욱 뿌리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행로를 따라가며 가는곳마다에서 사랑과 행복의 빛발을 뿌리고있는 향도의 해발을 뜨겁게 감수하게 된 주인공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수호신》의 꽃이름으로 모실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워왔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지금까지 대대로 모색해오던 가모가문의 숙원의 꽃에 추상적이고 우상적인 《수호신》이 아니라 행복의 수호신, 인류의 수호신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을 정중하게 모시여 **《김정일화》**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문의 《수호신》의 꽃이 좁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위인의 존함을 모신 꽃으로 되는 과정은 곧 새 세기를 밝히는 위대한 태양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르는 시대와 인류의 혐모심이 나날이 높아가는 과정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작품은 잘 보여주고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이렇게 외국의 한 원예가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에서부터 싹터나서 위도와 경도를 넘어 인류의 높은 지향과 세기의 념원을 담아 인간의 참다운 수호신으로 피어나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아름답게 만발하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시대를 대표할 꽃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하는데만 형상의 초점을 두지 않고 온 가문이 달라붙어 위인의 존함으로 불리울만큼 성심성의로 꽃을 완성하는 과정을 인간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나감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적으로 밝혀낸 데 있다.

그리하여 작가는 형상의 중요계기마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매혹과 혐모심을 감동적으

로 생동하게 부각함으로써 **김정일** 화의 탄생과정이 곧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밝히는 과정으로 되게 할수 있었다.

오늘 세상에 수천수만종을 헤아리는 꽃들이 있지만 그 꽃들중에서 오늘 **《김정일화》**처럼 현시대와 미래, 인류의 념원을 안고있는 그런 뜻깊은 꽃은 없다. 그런것만큼 21세기는 **《김정일화시대》**로 될것이라는 작가의 주장에는 새 세기를 밝혀주는 향도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열렬한 매혹과 다함없는 혐모의 감정이 그대로 넘쳐흐르고있다.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시대와 인류의 혐모심을 보여줌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인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작품의 등장인물들과 작품에 그려지고있는 생활의 포괄범위가 잘 말해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일본의 이름있는 원예가일 뿐아니라 중요인물들도 동서방의 저명한 원예가들이며 작품에서 펼쳐지는 생활 역시 일본땅과 유럽, 남미주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화족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구성과 형상화족들은 그대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칭송하며 진심으로 따르고 혐모하는것이 오늘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거세찬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더 깊이있게 보여주게 하고있다.

여기에 이 장권실화소설이 거둔 또하나의 다른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는것이다.

꽃과 인간

꽃을 떼어놓고 가도 모도데루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꽃이자 가모 모도데루이며 가모의 일생이자 꽃의 한생이다.

가모 모도데루가 오늘 세계적인 원예가로 시대와 인류 앞에 명성을 떨치게 된것은 바로 시대와 인류의 념원을 담아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세상에 내놓았기때문이다.

장권실화소설 **《시대의 념원》**은 이러한 주인공의 성격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인간학적인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성화하고있다.

가모 모도데루의 성격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에 감동되고 심장속깊이 매혹되는 과정이 곧 그의 성격발전과정으로 그려지고있는것이다.

가모 모도데루는 원래 꽃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량심과 숭고한 지향을 가지고있는 인간이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원예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문의 숙원의 꽃을 육종하기 위하여 한생을 고스란히 다 바치고있는 주인공의 높은 지향과 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참으로 꽃처럼 아름답고 순결한것이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은 《수호신》에 대한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견해로부터 탈피하여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운명과 행복을 수호해주는 인간적인 위인을 흠모하고 따르는 과정으로 특징적이다.

주인공이 그토록 바라고 이 세상 인류가 절절하게 념원하던 《수호신》의 꽃을 세기적인 위인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비서의 존함으로 부르고 그 불멸의 꽃을 깨끗한 량심으로 완성하고 지켜내는 과정은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진심으로 따르고 흠모하는 과정과 일치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그의 성격적책은 위인중의 위인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렬한 매혹과 절절한 흠모로 일관되고있다.

그것은 가모 모도데루가 《빨간 베고니아》를 자기의 깨끗한 량심으로 불멸의 꽃 《**김정일**화》로 완성해내는 과정을 원예가의 이름과 함께 전국에 널리 소개하겠다고 찾아온 텔레비존방송기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끝내 되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에서 뜨겁게 느낄 수 있다.

《텔레비존화면으로 소개해준다는건 고맙지만 나는 제이름을 내기 위해서 〈빨간 베고니아〉를 육종한게 아닙니다. 더우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기자선생이 이 가모 모도데루를 그렇게 봤다면 매우 섭섭합니다.》

가모 모도데루는 이렇게 자기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량심과 신념의 호소를 터뜨리며 《빨간 베고니아》에 《**김정일**화》라고 명명할 결심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것이다.

이 얼마나 꽃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량심과 굳은 신념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는 심장의 웨침인가!

이 한마디의 말속에는 시대와 인류의 태양을 우러러 흠모하는 가모 모도데루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깨끗한 량심이 집약화되어있다.

가모 모도데루의 이러한 높은 정신세계와 신념은 또한 작품에서 돈이라면 인간의 의리와 원예가의 량심도 다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와다나베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빨간 베고니아》를 팔라고할 때 그를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빨간 베고니아》에 어지러운 티가 물을가봐 무섭다고 하면서 단마디로 일축해버리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물론 가모 모도데루가 와다나베의 요구대로 《빨간 베고니아》를 돈으로 판다면 그는 순간에 일확천금하여 돈더미위에 앉아 일생을 호의호식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조상대대로 전해오는 가모꽃창포와 쇼아료리점까지도 다 팔아 후지산중턱의 비싼 땅을 사서 8000평짜리 《**김정일**화》온실을 더 크게 지으려고 결심하는것이다.

이것은 인간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대바른 정의의 리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향도의 태양을 우러러 받드는 참다운 신념의 세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결심이며 독특한 성격의 핵인것이다.

그 누가 한생을 바쳐 완성한 자기의 꽃과 함께 원예가로서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소개되는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으며 꽃을 요구대로 팔아서 일확천금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황금만능의 사회인 자본주의현실에서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차례지는것도 아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릴 사람도 흔치 않을것이다.

바로 여기에 시대와 인류의 념원을 담아 자기가 육종한 꽃에 위인의 존함을 높이 모실만큼 숭고한 경지에 이른 주인공의 사상정신적미가 있으며 그의 성격발전의 면모가 있다.

주인공 가모 모도데루의 이러한 성격발현은 《수호신》의 꽃을 향도의 태양이신 위인의 존함으로 높이 모실수 있도록 훌륭한 꽃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자나깨나 탐구하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가모 모도데루는 지금까지 자기가 연구해온 《빨간 베고니아》에 《**김정일**화》라고 명명하자면 무엇보다도 꽃색갈을 온 누리를 밝혀주고계시는 위인의 불타는 정열을 상징할만큼 불붙는 붉은색으로 완성하여야 했다. 또한 만첩의 꽃잎마다 위인의 고결한 품모가 비껴있고 천재적예지가 빛발치게 하여 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꽃을 세계 식물사에 영원히 남겨놓자면 그 꽃의 족보도 생육환경과 생육상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여야만 하였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것은 지구의 지붕이라고 부르고있는 안데스산맥을 답사해야 했다. 그곳에 가야 안데스산계 알뿌리 베고니아에서 꽃색갈을 면바로 얻어내고 족보도 생육조건도 자연상태 그대로 다 확인할수 있게 된다.

하기에 가모 모도데루는 오직 하나 인류의 수호신이며 사랑의 화신이신 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를 완벽하게 꽃피우기 위하여 년로한 몸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약 그 멀고 험한 안데스산으로 떠나가는것이다.

안데스산맥에서 야생 알뿌리베고니아를 찾기가 지의 가모 모도데루의 생활은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힘겨운 투쟁과정이었다.

년로하고 단련되지 못한 몸인데다 병까지 만나 단 한걸음도 옮길수 없는 몸으로 담가에 의지하면서 되돌아설 생각은 단 한번도 없이 마지막순간까지도 굴하지 않고 야생 알뿌리베고니아를 찾기도 찾아가는것이다.

변변치 못한 몸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험한 벼랑길을 뚫고뚫으며 끝끝내 목적을 달성하는 주인공 가모 모도데루의 불굴의 의지는 그대로 인류의 수호신으로 위인의 높은 품모를 완벽하게 갖춘 훌륭한 꽃을 세상에 기어이 피우려는 확고한 신념의 표현이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참다운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그리는 순결한 량심의 발현과정만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에 심장깊이 매혹된 뉘트로 자신의 인생행로에서 근본전환을 일으키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인것이다.

그러기에 작품에서 《**김정일화**》의 명명과정은 꽃에다 위인의 존함을 모실만큼 훌륭한 꽃으로 완성하는 과정으로 일관되어있으며 그 과정은 곧 주인공의 인생전환과정으로 감명깊게 그려져있다.

작품은 이처럼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처음으로 육종하여 세상에 내놓은 주인공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그이에 대한 흥미를 나날이 높여온 과정으로 특징적이다.

이러한 성격발전과정은 작가의 그 어떤 예술적허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개성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더 감동적인것이다.

×

이 장편실화소설에서 독자들의 눈길을 각별하게 더 끄는것은 꽃의 세계를 역사적인 견지에서나 세계적인 판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는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작품에서 단순히 작가의 박식을 보여주기 위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시대와 인류의 위대한 태양을 상징하여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역사적인 견지에서나 세계적인판도에서 보여줌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시대와 인류의 높은 흥미의 감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려고 한 작가의 깊은 탐구의 열매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특히 작가가 제12차 국제화초전시회에서 수만수천종의 꽃들중에서 단연 특별상과 금메달을 수여받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특별히 부각하여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고있는데서 알수 있다. 때문에 21세기는 《**김정일화**》시대로 될것이라는 작가의 예언은 과학적이며 현실적으로 매우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라는것이 독자들에게 납득된다.

이밖에도 작품에는 화초의 나라 네델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대양건너 라틴아메리카에서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안데스산맥에 대한 인상깊은 생활풍습과 빠루의 중부철길에 대한 이야기 등 지형지물들도 다 아름다운 불멸의 꽃과 깊이 련결되어 눈에 방불하게 그려진것을 비롯하여 좋은 측면들이 많다고 본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장편실화소설 《시대의 념원》은 시대와 인류의 념원을 안고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통하여 향도의 태양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는 세계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의 운명이시며 시대와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칭송하며 우러러따르는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흥미의 뜨거운 마음들을 보여주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의 전초선에 선 혁명적인 작가의 영예론 사명과 본분을 충실하게 다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혁명의 어머니

리 철

백두의 눈보라를 다 헤치시며
장군님 충성으로 받들어모셨네
항일의 혈전만리 남기신 그 자욱
빛나는 그 자욱 우리 따르네
아,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온 세상 우러르는 혁명의
어머님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오시며
혁명의 사령부 지키여오셨네
한목숨 다 바쳐 가르쳐주신

그 충성 그 념원 우리 따르네
온 세상 우러르는 혁명의
어머님

장군님 보위하여 바치신 한생
오늘도 우리 가슴 덥혀주네
어머님 품으셨던 그날의 맹세
그 맹세 우리 지켜 싸워가리라
아,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온 세상 우러르는 혁명의
어머님

명제해설

《주체형의 인간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동반하는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본질적면모에 대하여 밝혀주신 이 명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가의 전형적성격을 옳바로 형상할 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옳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그 본질적면모가 뚜렷이 밝혀져야 한다. 명제에서는 주체형의 인간은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는데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있다. 주체형의 인간이야말로 온갖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는 혁명의 어려운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극도에 이른 침예한 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시대의 영웅들인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현시기 주체형의 인간전형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성격속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투철히 체현시키는것이다. 온갖 애로와 난관이 동반되는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자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시대 주인공의 성격속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체현시키는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의 결정관철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시대적임무가 나서고있는 때에 절실하고도 필수적인 요구이다.

우리 당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변천된 환경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3년간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로 하고 이 기간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로 나갈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조치는 가까운 년간에 모든 사람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문학은 주인공의 성격속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힘있게 체현시키는것을 성격형상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창작실천적인 문제는 자력갱생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이다. 자력갱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높이 추켜드신 주체적인 구호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강적을 쳐물리친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또한 전후의 빈터우에서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장엄한 진군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우리 문학은 이미 장편소설 《빈터우에서》, 《철의 신념》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고유한 속성으로 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하였다. 주용녀나 로장섭을 비롯한 우리의 많은 주인공들은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바람에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령도와 혁명의 전취물이 있는 이상 반드시 제 힘으로 일어설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주인공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형상해야 한다.

주인공의 성격속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체현시키는데 있어서 형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투쟁정신이 어디에 그 원천을 두고 있는가 하는것을 예술적으로 해명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헤쳐오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올수 있는것은 일편단심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품모는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 정세가 복잡할수록 더욱 높이 발휘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혁명의 전력사를 자력갱생의 력사로, 백전백승의 투쟁의 력사로 빛내인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의도와 결심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그이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못낼것이 없다는것이 우리인민의 담력이고 의지이다.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충효 일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끝까지 해결해나가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우리 시대의 영웅, 주체형의 인간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할수 있는 근본고리가 있다.

그 믿음 나에게 있어

장혜명

나의 한생애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명예던가
아니면 값진 재부던가

나홀로 조용히 속삭일 때
잠결에도 심장은 뜨거이 말하노니
-나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다!

새기면 새길수록
뜨거웁에 젖는 이 마음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갈 사람 없어
동행자 되라 하셨던가

떨어지면 순간도 못살아
누구나 운명을 맡기고 따르는 친애하는 그이
그이 품 어느 한끝에라도
내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이며 영광이런만

아 동행자로 불러
이 세상 누구보다
자신의 가까이 세워주신
내 삶의 태양 자애론 어버이 그 믿음이여

그 믿음 있어 나는
친애하는 그이와 운명을 함께 하는 동행자
천만대적도 발밑에 굽어보시는
용맹한 최고사령관의 어엿한 한 전사

가는 길 천리라면 못가라
그이와 함께 가는 길은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오직 그 한길에서 충성을 바치려
동행자 나의 삶이 있노라

하기에
그이 최고사령관의 엄숙한 명령으로
온 나라를 준전시태세로 불렀을 때
마음속으로 화선의 언덕 넘으며
종군의 길 달린 이 전사

이제 어머니당이
대건설의 구상을 펼친다면
미래의 설계도가 놓일 그곳에
남먼저 달려가
내 삶의 령장을 풀려니

친애하는 어버이이시여
조국과 혁명을 향도하시는 그 길에
생명을 내대야 할 일 있다면
이 동행자를 부르시라

그러면 한목숨
웃으며 기꺼이 바치리
그 길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넋이라도 남아서 영원히 따르리

아, 그 어떤 명예와도
억만 재부와도 바꾸지 않을
내 삶의 영광이며 행복인 그 믿음
가는 앞길에 비바람 사나울수록
더욱 억세게 다지는 신념의 맹세

-나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다!

삼천리를 비치다

석광희

세월은 멀리 가도
더욱 가까이
더욱 생생히
금문자로 새겨져 잇을수 없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노래하나니 .

나라를 빼앗겨
암담했던 그 시절
억눌린 겨레의 가슴속 깊이
희망의 밝은 빛 안겨주었던
조선국민회 !

경건히 옷깃을 여미고
새기고 또 새겨보노라
부르고 또 불러보노라
자주독립의 기발이었던 그 이름을
국권회복의 해불이었던 그 이름을

전에는 없었노라
제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던 그런 조직은
전에는 들은적 없었다
혈강에 대한 의존과 청원으로는
결코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 말을

그 누구도 없었다
로동자 농민과 인민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굳건히 뭉치게 하고
포악한 일체의 무장에는 무장으로
원췌를 쳐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그렇다
독립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오직 우리의 김형직선생님만이
그 강령을 높이 드시였고
그 구호를 높이 부르셨나니

선생님의 높이신 뜻을 담아

사면팔방으로 빛살처럼 퍼져갔어라
조선국민회의 수많은 조직망따라
평양에서 함흥, 원산, 청진으로
신의주로, 은률로, 해주로, 서울로
겨레들이 있는 모든곳으로

그 빛발 한줄기한줄기에
선생님의 심혈 얼마나 담겨졌던가
얼마나 큰 로고가 깃들어졌던가
걸음마다 총검의 숲을 헤치셔야 했던
캄캄한 밤길 바람찬 눈길

맞아죽을수도 있고
굶어죽을수도 있고
얼어죽을수도 있는
3대각오를 신념으로 삼으신
우리의 김형직선생님

그이의 손길을 따라
온 겨레가 일떠섰어라
그이의 걸음따라
온 나라가 따라나섰어라
눈서리에 묻혀 괴롭받던 소나무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 굳게 믿으며

하여 일제침략자의 머리우에
무자비한 물을 지르며
한줄기 빛이 그리웁던
빼앗긴 땅 삼천리에
독립의 려명을 비쳐주었거니

세월은 멀리 갈수록
더욱 소중하고 더 찬란한
김형직선생님의 업적과 더불어
조선국민회의 이름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하리라

땅은 흙이 아니다

(치너프락포르운전수의 수기)

리 빈

…강냉이영양단지찍기가 한창 벌어지고있던 어느날이었다. 나는 아침일찍 프락포르에 발동을 걸었다. 철도역으로 가서 린비료를 실어와야 했던것이다. 시간을 가늠해보니 땀뻗았었지만 점심전에 두탕을 제길 작정으로 떠나자 바람에 속도를 부쩍 높였다.

기분 좋게 마을을 빠져나가던 나는 급기야 2분조 창고앞에 프락포르를 멈추었다. 여라문명의 녀성농장원들이 한데 몰려서서 무어라고 떠들어대고있었다. 그네들 앞에는 배가 터질 지경으로 불룩한 두개의 가마니가 마치 세운채로 있기는 힘이 겨운듯 편안히 누워있었다.

(저 가마니들을 날라가지 못해 저러는 모양이구나.)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릴수 없었다.

(점심이야 좀 늦게 먹지 뭐.)

나는 곧 뛰여내렸다. 그러자 우리 뒤집아주머니가 뚱뚱한 몸을 물우에 뜬 솜보통이처럼 둥실거리며 마주왔다.

《어이구, 오늘은 아침부터 복이 굴러드는구나! … 그저 좋은 일만 찾아하는 우리네 순탄인 동네 방네 보배라니까!》

그는 마치 내가 가마니를 실어다주겠다고 이미 다짐을 했다는듯 분조원들을 향해 수선을 떨었다.

《아낙네 여러분! 분조장께옵서는 이 비료를 우리들더러 돌려메고가라 분부를 내렸지만 어랍쇼, 프락포르 덕분에 허릴 퍼게 됐시다요 예!》

벌써 이쯤되고보면 그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별수 없이 그리로 끌려가기 마련이다.

《재등너메 발으로 나갔건데 일없을가?》

지나가는 프락포르를 가로채서 제 리속을 채웠다는 시비를 들을것 같았던지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걱정을 했다. 나는 여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들은 와 달려들어 비료가마니를 붙여왔다. 감시나마 입을 놀리지 못하면 몸살을 앓는 뒤집아주머니가 또 떠들었다.

《개미 천마리면 망작을 든다. 우리 솔뚜쟁운전수님네들도 힘을 합치니깐 이것 보라구… 하나,들,셋!》 :

바위돌처럼 무거워보이는 가마니가 가볍게 적재함으로 훌쩍 날아올랐다.

두번째것이 프락포르를 향해 막 날아오를 때 마치 땅속에서 불쑥 솟아난듯 분조장 인선동무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제잡담 《솔뚜쟁운전수님네》들을 막아섰다. 비료가마니가 털썩 떨어졌다.

그바람에 배가 탁 터져나가는줄 알고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가마니는 든든했다. 녀인들의 악오른 눈길이 인선동무에게 날아갔다. 몇몇 아주머니들의 입은 바오라기라도 넉넉히 걸수 있으리만큼 삐죽하게 돌아났다. 나도 기분이 나빴다. 가마니 한귀때기 맛들어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훼방을 늘다니 발이 되는가, 더군다나 분조장인 그가!

이런 때의 감정은 《류다른》 관계가 문제로 되지않는가보았다.

인선동무는 가마니가 적재함으로 날아오를가보아 꺼리기라도 하는듯 한발을 그우에 척 올려짚고 분조원들을 나무랐다.

《왜들 이리 시키지 않는 노릇을 합니까. 운전수동무는 워낙 맘씨가 여리니까 인정에 매워서 이걸 실어다주겠다고 했을테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여서야 쓰겠어요. 프락포르한테야 체 짐이 있는데 가마니 두개나 실고 우정 먼발으로 가는건 잉어를 미끼로 새우담기나 한가집니다. 그러니까…》

뒤집아주머니가 듣다못해 툄툴거렸다.

《아무러문 잔 잡은 팔이 밖으로 내놓을가. 굴러드는 호박을 걸어찰 까닭이야 없습지요.》

나는 그의 비유가 마음에 들었다. 이제 영락없이 저 인선동무가 말문이 막히게 되었다.

(아니 ? !)

별안간 내 마음은 달라졌다. 그가 분조원들앞에서 말값의 본전도 못찾고 무안을 당할것만 같아 겁이 났던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분주히 그를 도울 생각을 굴리었다.

인선동무는 응당 이런 비난을 받을줄 알고 미리 마음속 방패를 갖추고있었던듯 조금도 낮색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마니아구리를 활활 열어젖히고 옆에 섰던 아주머니손에서 비닐소랭이를 빼앗아 비료를 푹 폼다. 그것을 도로 임자에게 돌려주며 한탄하듯 타일렀다.

《이왕 발으로들 나가는길인데 이만한것썸이야 못들고갑니까. 손발을 그렇게도 놀리기 싫어서야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말입니다. 농사를!》

드디어 가책을 받았던지 고개를 숙인 분조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소령이며 바깥에 비료를 나누어주고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인선동무는 한절반 남은 비료를 가마니채 돌려메더니 《순탄동무, 지체시켜서 안됐소. 이제 갈길을 어서 가라구.》 하고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듯 반달음을 놓았다.

(갈길이나 어서 가라고? 간참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급기야 나는 모욕을 느꼈다. 마땅히 사람의 손으로 해도 너럭할 일을 내가 말아나섬으로써 그들로부터 환심을 사려 했다고 비웃는것만 같았던것이다. 차라리 그가 나더러 《갈길을 어서 가라》는 말만 던지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사라졌다면 분명 사정은 달라졌을것이다. 농장원들의 적은 품일망정 트랙포르운전수의 량심으로 덜어주려 한 진정이 까닭없이 억울한 팽대를 받은듯싶어 여간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이때 나는 어떻게 트랙포르에 올라 드립다 몰아대기 시작했는지 알수 없다. 고개를 넘고 굽이를 돌아 멀리 오는 사이에도 분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작업반장, 분조장들은 더 말할것 없고 농장원들 그 누구누구 할것없이 무슨 일에서이든 트랙포르를 써먹고싶어 안달을 하지 않는가. 글을 적으려는 사람이 만년필을 찾듯 일하려는 사람의 머리속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곧 트랙포르이다. 트랙포르라는 현대적농기계가 알뜰히 농사를 위해 생겨난 수단일진대 어찌 안그렇겠는가.

그런데 인선동무는? 이제 알고보니 옛날 버릇대로 뼈힘을 들여야만 농사가 되는듯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닌가.

나의 이 짐작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분조장이 되기전에는 그런 낡은 때가 전혀 없이 그야말로 말쑥한 현대풍의 청년으로 빠지는데가 없었는데 분조장이 되었으면 한계단 더 발전해야지 도리어 뒤걸음질을 하다니?!

문득 한 열흘전에 있었던 불쾌한 광경이 눈앞에 떠오르며 가뜩이나 잡친 기분을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날 5분조의 포전으로 부식토를 싣고나간 나는 강녕이영양단지 표식말뚝이 박힌곳에 차를 세웠다. 참새들마냥 재잘거리며 까불까불 뒤따라온 처녀셋이 짐을 부렸다. 한차의 부식토는 네곳에 나누어 부려야 한다. 다음차로 진거름을 또 실어다가 적당한 량을 각각 여기에 보탠다. 그래야 강녕이영양단지의 한개포만 감사리가 다 마련된다.

저쪽 최뚝너머 2분조밭에서 황새다리처럼 꺾충한 1.8미터 펑프기삼각자로 무엇인가 채고있던 인선동무가 이리로 다가왔다. 나는 아는듯 모르는듯 가볍게 숨이 차오르며 가슴 또한 느닷없이 설레었

다. 사람단련에 이끌이 난 탈곡장병아리마냥 감쩍한 하차공처녀들이 벌써 무슨 냄새를 맡고 나한테 줄곧 알망곳은 눈길을 할끔거리는것만 같아 굳이 고개를 외로틀기는 하였으나 딱하게도 눈길은 내 마음을 배반했던지 그를 찾아 자꾸 쏠리려 하지 않는가. 하여 그가 바투 다가오자 차에서 내린 나는 《수고해요.》 하고 스스로없이 반겨줄수도 없지 그렇다고 랭담한체하지도 못할 얼치기 인사를 건네고야말았다. 그는 말없이 부드러운 웃음으로 답례를 보냈다. 그의 미소는 어린애처럼 천진스러워보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그런 미소는 그가 나에게만 보내는것인지 아니면 나 하나의 눈에만 그렇게 안겨오는것인지 딱히는 모른다.

적재함우에서 쏟아져내리는 부식토를 주의깊이 살펴보다가 한줌 움켜쥔 인선동무의 낮빛이 어두워졌다. 무슨 까닭일까?

그는 머리를 몇번 가로젓더니만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저쪽 우리 밭에서 바라보는데도 어쩐지 이상하더니... 왜 진거름은 섞지 않고 이것만 내오?》

《그건 아직 채 마련되지 못했어요.》

《그럼 이것도 내지 말아야지뵈.》

《일없어요. 부식토를 끌어내는동안이면 그제 뒤따라 장만되겠는데 그때 가서 제각 마저 끌어내면 그만인걸요.》

나는 인정이 남달리 뜨거운 그의, 성품(바로 이것이 나에게 애정의 불씨가 된줄은 썩 후에 알았다.)으로 미루어 남의 분조일일망정 근심에 싸이는것 같아 서둘러 안심시켰다. 했더니 그는 마치 나를 난생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이상스런 눈길로 바라보다가 《이왕 내온건 마저 부리고 다음부터 그만두오.》 라고 하지 않는가.

《그건 또 왜요?》

《진거름과 아예 섞여가지고 단번에 한판씩 푹푹 때여먹어야 하지 않소.》

《아참, 그렇게 하면 좋은줄 누가 모르겠나요. 하지만 분조형편이 말처럼 안되니까 마련되는것부터 손쓸수밖에 없지 않아요 글썄.》

설명은 보람이 없었다. 인선동무는 아무려나 그 래서는 안된다는듯 고집스레 고개를 가로젓더니만 자기네 밭으로 건너가버렸다. 뒤흔들 일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주의를 환기시킨 의도는 좋았기때문에 반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어쩐지 그저 좀 섭섭할 따름이었다. 이러나저러나 오늘은 5분조에 배치된만큼 그 분조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으므로 두번다시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밭머리에 나타나자마자 인선동무가 부리나케 달려오더니 막 밭으로 들어서려는 트랙포르앞을 가로막는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나는 와락 제동기를 밟았다. 가슴이 철렁하

는 순간 약이 바짝 올랐다, 하마트면 어쩔뻔했는가.
그가 밭살스럽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생각된다.

《동문 왜 그래요?》

《이렇게 부식토만 따로 내서는 안된다지 않소!》

거친 대답. 나는 견잡을수 없이 화가 복받쳤던 참
이라 총알처럼 내쏘았다.

《5분조는 자기네 형편에 따라 일을 하는데 동문
왜 끼여들어 남만 속상하게 만들어요 예?》

《...》

급히 달려오느라 벌겍게 달아올랐던 인선동무의
얼굴이 별안간 새하얗게 변했다. 그와 때를 같이하
여 (아~차!)내가 지나쳤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하지만 처녀의 자존심은 그런 순간적위우침
정도의 감정에 흔들릴 녹거리는 아닌가보았다.

《어서 물러서기나 해요. 남의 제상에 감나라배와
라하다간 좋은소리 못듣는단말이에요..》

진심이었다. 참견하지 않아도 될 남의 일에 발을
잡았다가 뒤소리를 듣게 되면 난들 어찌 속이 편하
겠는가. 그것은 내가 직접 들른 비난보다 더참기 어
려울것이다.

《차를 돌리오!》

그는 바위처럼 껌쩍않고 성이 나서 소리쳤다.

보아하니 남의 사정파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덕
부덕 자기 주장만 세우고있다. 급기야 나는 머리끝
까지 화가 났었다.

당장 그를 에돌아 와락와락 내몰고싶은 충동이
불붙듯 일었다. 일촉즉발의 터질듯한 긴장... 폭악
에 달린 도화선이 거의 타들어갈즈음 내스스로도
놀랄만큼 혀를 꼭 깨물었다.

나는 태연하려고 원심을 쓰며 차에서 내렸다.

뒤따라오던 하차공처녀들이 심상치 못한 조짐을
느꼈는지 저만큼 멀리 서서 수군거렸다. 보나마나
인선동무의 흉을 볼것이다. 나는 타협조로 상냥하
게 말했다.

《인선동무, 프락프르와 로력을 합리적으로 쓰자
는 동무의 의도를 나는 다 알아요.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맘먹은대로 되는가요... 장기군들의 말을 들
어보니까 차나 포도 우정 희생시킬 때가 있다더군
요. 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어디 한두가지가요..》

《...》

《아까 동무가 두번다시 와서는 안된다는걸 또 왔
다고 화가 나서 그러세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입이 써서 대꾸
하기 싫다는 뜻인지? 이때였다. 토실토실 살이 오
른 송아지 두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밭으로 달
려들어오다가 무슨 생각이 난 모양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는 서로 이마를 맞대고 꼬리를 뒹뒹 내저으
며 밀기내기를 벌렸다. 한번은 저쪽놈이 뒤걸음치
고 다음번엔 이쪽놈이 벌렁 뒤로 자빠질듯 뻘뻘
떨 밀려갔다. 하차공처녀들은 《레스링 참 멋지다.

교예극장에서는 곰들이 레스링을 하더니 우리고장
에선 송아지들이 하는구나!》, 《국제 특보감, 통신
위성에 알릴것!》, 《이겨라, 이겨라! 우리선수 이
겨라!》하며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듯 벅씩떠들었
다. 아닌게 아니라 처녀들이 정신을 팔만도 하게 송
아지들의 장난질은 참말 재롱스러웠다. 처녀들과
더불어 웃고있던 나는 어떻게 되어 인선동무에게
눈길이 갔다.

(?!)

인선동무는 웃기는커녕 눈살이 꼳꼳했다. 저으기
놀랐다. 그는 송아지들을 향해 냅다뛰어가며 《두!
두!》 목메이게 웨쳤다. 그바람에 한창 흥이 나서
놀음에만 열중하던 송아지들은 텐겁을 하여 꼬리가
뺏뺏하게 줄행랑을 놓았다. 처녀들은 낯을 찡그렸
다. 나도 기분이 언짢았다.

화창한 봄날, 줄아라 뛰노는 송아지... 한쪽의 그
림이 아니겠는가. 정다우면 《송아지동무》라고 한
동아리가 되어 물려다니는 송아지들의 사랑스런 모
습을 빼놓고야 무슨 농촌정서에 대해 생각할수 있
겠는가. 송아지가 없는 농촌풍경은 풍경일수 없고
생각만해도 쓸쓸해지는데...

(분조농사를 책임지더니 어느새 원두막지기가
돼버렸나봐. 원두막지기는 손자도 몰라본다지. 감
정이 저렇게 말라가지고서야...)

송아지들을 개울가까지 쫓아버리고 되돌아온 인
선동무는 깔깔거리던 5분조처녀들을 나무랐다.

《저런 젖떼기송아지들이야 제때 굴레를 씌워야
지 그냥 놔두다니! 돌아치는 송아지가 제집 뜰안으
로 들어가서 장단질 굴리던가 터밭을 밟으면 생야
단을 치면서도 뭐 〈우리편 이겨라〉? 밥먹는 입에
서 그런 소리가 쉽게 나오나말야!》

이마가 쪽박처럼 도드라진 처녀가 웅알거렸다.

《굴레씌우기야 소관리공 일이지 처녀들 일인가
뭐.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운다더니 우리만 공연
히 욕먹는다니깐..》

그는 어찌나 못마땅했는지 연지바른 입술이 물촉
새부리마냥 뽀죽해졌다. 곧 인선동무의 음성이 노
엽게 울렸다.

《동문 이 땅을 다루는 농장원이요, 아니면 어느
나라 관광객이요?》

《...》

불평을 부리던 처녀는 그만에 본전조차 못찾았던
지 자라목이 돼버렸다. 억울한마냥 줄금줄금 눈물
을 짜기까지 했다.

《송아지 굴레야 처녀가 못씩우지뭐. 소관리공이
나 분조장이 제때에 손을 쓰도록 벌써 침을 놓을게
지. 아니면 달콤하게 구슬리던가. 그래도 안들어먹
으면 거 있지 않아, 제기하란 말이요..》

역시 인선동무는 사람이 참 너그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감정이 상해서 원새끼를 꼬기 시작하

면 끝이 없는 쪽박이마 처녀같은 사람도 대번에 속을 풀어주는 인선동무였던단 이상하게도 나하고는 골까지 거뒀을 작정이었던지 변함없이 완강하게 나왔다.

《순탄동무, 앞을 막아 안됐는데 량해하오. 돌아가서 분조장동무더러 차를 이렇게 함부로 써버릇하면 안된다고 말해줘야겠소. 나도 이제 만나서 충고를 줄테니까.》

나는 아연했다. 글썽 내가 어떻게 차를 그냥 되돌려가지고 가서 실어온 그자리에 짐을 도로 부려놓는단말인가. 이런 일은 일찌기 농장력사에 없었다. 설사 인선동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보지 못한 그런 수치를 결코 당할수 없었다.

《아니, 동문 왜 자꾸 날 못살게 굴어요? 동무네 분조일도 아닌데!》

《남이 먹는 떡에서 고물 떨어지는것까지 걱정말라 그거겠지... 순탄동무, 동무의 눈엔 인선이란 사람이 2분조 분조장으로만 보이고 이 농장 농장원으로는 보이지 않는게로구만.》

감정의 그 어떤 색깔도 없이 그저 보통 쓰는 말투였다. 어느 남자가 녀자한테서 참견말라는 무시를 당했을 때 성을 내지 않겠는가.

하건만 인선동무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레사롭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부아를 돋궜다. 농사일이면 어느 누구의것이나 다 제가 응당 책임지는듯 자신을 추어올리면서 나같은 처녀의 존재쯤은 꿈만히 여기는듯한 그의 배심을 참을수 없었다.

(그럼 전 농장의 주인이고 난 품팔이란말이지. 참말 판 나라 관광객쯤으로 치부하는가?)

막 분했다. 량심의 건지에서 본다면 그가 옳다.

그러나 사업의 분담이 엄연한 이상 무엇보다 그의 요구에 성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자의 량심 하나로 모든 일이 다 풀린다면 도대체 단위라는 계선은 무엇에 필요하며 책임이라는 개념에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이러루하게 가시돈힌 말마디들이 격렬히 목을 치받쳤으나 있는 힘을 다해 꼭 참았다.

(저한테만 아량이 있다던가, 흥!)

이제 시비가 어떻게 갈라지든지 보다 먼저 수양면에서 그를 앞서고싶은 욕망이 반말감을 이겼다. 하여 나는 천연스레 량해를 구할수가 있었다.

《인선동무, 로력과 시간이 더 들줄은 알지만 5분조는 진거름을 뒤에 따로 실어낼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내 그 실정을 뻔히 아는데다가 분조장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여기 분조장동무도 농사를 잘 지으려고 아글타글 애를 쓰고있는데 밭을 맞춰줘야 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어느 정도 피날줄 알았던 인선동무의 낮빛이 오히려 더 굳어졌다. 그는 안타까운듯 지어진 한숨까지 쉬고나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분조장이 아니라 관리위원장이 시킨대도 안될거야 안되는것이지.》

끝끝내 막무가내였다.

이 동무가 나에게 무슨 옥감이 있어 이 일을 언질삼아 트집을 잡는것이나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가정이라도 하기에는 인선동무가 너무 사람이 무거운데...

어느덧 그의 진지한 목소리가 나의 옥생각을 깨여뜨렸다.

《한마디 하면 알고도 남을줄 알았더니 우기는걸 보니깐 안되겠구만. 밭을수록 땅이 자꾸 굳어지는데 이렇게 마구 드나들어서야 땅이 견뎌내겠소?》

(아!)

당장 깨도가 되었다. 지금 인선동무는 다름아닌 바로 프락포르바퀴에 땅이 다져지는 폐해를 두고 걱정하는것이 아닌가.

영양단지재료들을 구색에 맞춰 미리 잘 준비했다가 단번에 내지 못하고 두번째번 드나든다면 그만큼 바퀴자리가 많아진다. 때문에 바퀴가 굳혀놓은 면적이 늘어날뿐아니라 두번 다져진 땅은 팽이꼴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좀 파장한다면 《돌덩이》가 돼버린다.

이때 문득 《봄밭을 밟으면 귀쌈이 셋》이라던 늙은이들의 말이 귀전을 울렸는데 이것은 리유없는 현상이 아닐것이다.

땅이 굳어지면 곡식이 뿌리를 마음대로 뻗지 못해 영양섭취에 큰 지장을 받는다.

유치원 애들에게도 뻗힌 이 리치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그러나 농촌체제의 과업들이 완전실천단계에로 치달아오른 오늘날 농사의 모든 공정에 프락포르를 써야 하고 아닌게 아니라 실지로 그렇게 되다보니 땅이 굳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박혀있기는 하면서도 그때문에 프락포르가 자기활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았다. 날개가 없는 프락포르가 바퀴로 굴러다니게 마련된 이상 이것저것 시시콜콜이 신경을 쓰다가는 포전작업을 못한다.

《인선동무, 동무심정을 알만해요. 옳아요.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보는게 어떻가요. 이를테면 입이 쓰다고 약을 안먹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별안간 무서운 아픔을 참기라도 하는듯 그가 안간힘을 쓰며 차갑게 가로챘다.

《순탄동무! 별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땅을 놓고 흥정하다니?! 아무래도 동무한테 프락포르운전수의 자격을 물어야 할것 같소. 도대체...》

《뭐, 뭐라구요?!》

...그다음 벌어진 일은 기억에 똑똑히 남는것도 없지만 더러 남아있는것조차 글로 옮겨놓기 피롭다. 아무튼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는것만은 사실이었다. 땅과 흥정을 한다고? 운전수자격이

어떻다고?

종합적기계화의 핵심인 트랙토르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할 궁리를 할 대신 그것이 밭으로 다니는 피치못할 현상까지 시비하는 코막고 답답한 주제에 내가 어떻게고?

그는 확실히 변하였다. 이런 경우 우리 고장사람들이 즐겨쓰는 말을 빈다면 《바투보기》가 돼버렸다고 할는지, 이미 내가 알고있던 그 인선동무가 아니다. 나는 인정깊고 남자답게 속이 열린 그런 인선동무에게 매력을 느꼈었지 멀리 볼줄 모르는 《바투보기》를, 그것도 제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조차 가림없이 무지하게 대하는 그런 청년을 남달리 생각할수는 없었다.

다음날 저녁, 강냉이영양단지찍기에서 사로청원들이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초급단체모임이 있었다. 위원장동무는 성과부문을 쏘아가던 가운데서 인선동무가 지난밤에 자기 분조성원들과 작업반의 청년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5분조에 걸린 고리-영양단지재료장만을 부쩍 다그친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나를 들으라고 일부러 과장한것만 같은 말이 조금도 달갑게 들리지 않았다.

모임에서는 모든 동무들이 현행영농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의 극복대책과 좋은 경험을 살려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토론하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선동무와 나 이렇게 두사람만은 《꾸어온 보리자루처럼》(우리 뒤집아주머니가 수선을 땔 때 즐겨쓰는 말이다)꼭꼭 안했다. 나에게는 딱히 할말도 없는데다가 물론 기본이 나빠서 입을 붙였지만 언제나 할말이 많은 분조장으로서 칭찬까지 아름이 벌게 잔뜩 받은 인선동무는 어째서 잠자코 있는지… 끝내 아무 말도 안할듯 입에 빗장을 지른채 무슨 생각에 골몰해있던 인선동무는 모임 마지막에 이르러 위원장동무가 《이젠 인선동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라고 해서야 그는 일어섰다. 그의 무거운 거동과 낮빛이 심각한 까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를 쳐다보는 청년들의 눈길은 긴장되었다. 나는 알수 없는 불안때문에 긴장되었다. 조용하면서도 끓어오르는 충동을 억제하는듯 절절한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흔들기 시작하였다.

《동무들, 아무리 생각하여도 안전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방해하십시오…》

오늘 우리 젊은 새 세대들은 말할것 없고 적지 않은 농장원들속에서 말을 못하는 땅이라고 하여 그것을 망탕 다루는 현상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없어지지 않고있다. 나 자신도 례외가 될수 없기때문에 진심으로 자기 비판의 견지에서 의견을 제기한다. 지금 밭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고 빠젓이 다니는 사람이 얼마인가. 또한 땅이 굳어질가보아 걱정하는 마음이 있거만 하면 능히 한번 다녀서 일이 끝날 밭으로 두번째번 다니는 사람은 없는가. 더구

나 참을수 없는것은 비온후의 진밭에 함부로 드나들면서 땅을 이겨놓는 현상이다.

《…땅이 바다같이 넓은데 사람발이 밟으면 얼마나 밟고 트랙토르가 자릴 내면 얼마나 내겠는가. 그 좁은 새밭의 피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밭의 피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사람의 몸 어느 한곳에 조뱅이가시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조뱅이가시는 돋보기를 쓰고야 알아볼수 있을정도로 작지만 얼마나 안타깝게 따끔거리는가 말입니다.》

말을 더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려는듯 그는 입을 다물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문제를 일단 이렇게 세우면 심각하다. 땅을 몸에 비기는데야 누구 마음이 엄숙해지지 않겠는가.

아닌게 아니라 자신들을 심심히 돌이켜보는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방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말이라면 귀등으로나마 듣고싶지 않던 나도 속이 썩었다. 《난 안그렇다》고 당당히 반박해나설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분위기는 어느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의처럼 자못 무거웠다. 어느덧 인선동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말이 난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5분조사로청원 동무들…》

어제 밭에서 일어났던 마찰사건이 이 회의에서 취급되는것만 같아 잔뜩 신경을 도사리고있던 나는 그만 흠칫했다.

(끝내 들춰내고야마는구나. 그자리에서 내게 맞대놓고 그만큼 두들겨댔으면 무던하지 뵈이 또 모자라서 이런 회의에서까지… 이건 너무하다… 좋아 내겐 잘못이 없다, 날 건드리는 날엔 가만있지 않을테야.)

나는 마음을 단단히 웅쳐먹고 반격을 가할 말마디들을 부지런히 골랐다.

《…5분조사로청원동무들은 분조장, 트랙토르운전수동무들을 잘 돕지 못하고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품팔이식본세가 아직 남아있다. 분조장이 시키는 대로만 고분고분 할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립장에서 애를 썼더면 영양단지부식토와 진거름은 갈라지지 않았을것이고 트랙토르가 안뺏아도 될 땅을 또 밟게 되지도 않았을것이다. 때문에 밭으로 한번 들어가자 해도 작전도를 앞에 놓은 참모장처럼 심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 당에서 내놓은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의 깊은 뜻을 량심에 간직할 때만이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될것입니다. 이 구호를 받아안은 날 밤 나는 량심이 꺼려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농장원, 이것은 결코 땅의 주인이 다 되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무들, 아직도 땅을 한갓 로동대상으로만 알고있는 낡은 관념에서 결정적

으로 벗어납시다. 나 자신이 투쟁에 앞장서겠습니까!》

진지한 호소가 끝나기 바쁘게 장내는 뚫어번졌다.

모두 앞을 다투어 땅의 참된 주인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 마당에서 나는 어쨌으면 좋겠는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5분조포전에서서의 사건과 그 연장으로의 사로청모임에서 받은 충격은 이때까지 잔잔하던 감정과 인식령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아무튼 두 감정의 마찰이 일어날적마다 《그동무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니까 신경 쓸 까닭도 물론 없다》고 자신을 열심히 달래어보기도 하고 배심도 내밀어봤지만 속은 그대로 편치않았다. 이것은 의심할바 없이 서로의 불행이었다.

이날 작전했던대로 오전중에 린비료운반 두량을 제끼고 오후 정비를 하는 사이에도 이미 틀잡힌 감정의 지점은 여파인지 마음은 내내 울적하였다.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우리 뒤집아주머니 말마따나 《늘쌍 그식이 장식》으로 그저 그랬다.

불안의 나날들에 나는 다행히도 인선동무 그자신을 원망하기보다 그와의 사이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맹정히 따져보는 기회를 가끔가지게 되었다.

리유와 조건은 어찌되었던 그것이 바로 땅을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한갓 농장의 노동대상으로 대해온 관점에 있는줄 깨달았지만 이뿐으로는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준비가 아직도 부족했던것이다...

한달이 지나갔다.

나는 프락포르에 작조기를 차고 마을동쪽 등성으로 향하였다. 그곳의 두정보짜리밭에 이랑을 지어야 했던것이다. 가을갈이를 해두었던 땅이 겨울에 얼었다가 지금은 푹 풀린 뒤여서 흙밥은 마치 갇혀난 시루떡처럼 부풀었다. 지형이 한쪽으로 한 2천평쯤 엷어놓은 접시마냥 두드러지기는 하였으나 사면 경사각이 약 15도안팎이어서 프락포르작업에는 그것이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익숙된 늪대중으로 발중심을 꺾질러 나가면서 이랑을 쭈욱 켰다. 그다음부터는 이를 기준으로 속속 이랑을 지어나갔다. 급했다. 작업반의 다섯개분조가 강냉이영양단지 옮겨심기를 하루 혹은 이들의 사이를 두고 내가 이랑을 짓는 족족 바싹 뒤따라왔기때문이었다. 이곳처럼 큼직한밭에서 《마력》을 올리면 짧은 작업시간안에 큰 면적을 손쉽게 먹을수 있으므로 일단 끝만 내놓으면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다. 많은 면적을 빨리 제껴치워 영양단지 작업조들을 멀찌기 떨궈버린 다음 차정비를 할 작정으로 부지런히 몰아댔다. 해가 서산마루로 뉘엿뉘엿 넘어갈즈음 일이 끝났다. 차에서 내려 자를 대고 그은듯 콧물이 뻗은 이랑들을 흐뭇이 둘러보고있는데 인선동무가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웬 일인지 숨결이 좀 거칠고 낮빛이 어두웠다.

(?)

나는 은연중에 속이 조였다. 차마 혀가 안노는지 그가 말은 못하고 나를 원망스레 쳐다보며 갑자르기만 하자 나는 참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제야 결심이 선마냥 그가 내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갑자기 가슴이 활랑거린 나는 열결에 증을 냈다.

《어찌자는거예요?!》

《...》

다음순간 슬그머니 겁이 난 나는 그의 무례한 행동에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끌려갔다. 어느때 같으면 기꺼이 따라갔을는지도 모르련만.

발한켄 두드러진곳의 중심에 이르렀다. 멈춰선 인선동무는 딱한듯 한숨을 쉬더니 손끝으로 발이랑을 가리키며 한탄하였다.

《순탄동무, 하루종일 수고를 한 동무에게 언짢은 소리를 하기가 참 힘이 들지만 안할수가 없소... 어쨌면 이랑을 이 모양으로 뽑았소?》

(《이 모양》이라니? 어쨌단 말인가?)

눈총기를 모두어 다시 보고 또 봐도 이랑들마다 국수발처럼 고르롭고 백메터달리기 코스마냥 끝다. 무엇이 나무랄담? 문득 3월초 5분조밭에서 벌여졌던 일이 생각났다.

(오늘도 그때처럼 뜻밖의 허물을? ...아-니, 결코 그럴수없어! 지금은 그때 일파는 본질이 달라. 어디 또 흠집을 잡아보라지.)

자신만만히 배심을 내밀기는 하였으나 어인 까닭인지 초조한 불안을 누를수가 없었다.

침묵...

저 멀리 발머리에서 공연히 세워두는데 불만인듯 프락포르가 심술궂게 툄툴거렸다. 남산기슭에서 장끼 한놈이 《꺅, 꺅드득 꺅꺅, 꺅꺅...》 하고 연송 목메이게 울어대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두사람 사이의 심상치 않은 사연을 두고 걱정하는듯 자못 서글프게 들렸다. 이윽고 인선동무의 근심어린 목소리가 침묵을 흔들었다.

《이랑들을 이렇게 콧물이 뽑아서는 안될줄 동무가 몰랐다니, 설마 한들...》

(?!)

나는 그만 어이가 없어졌다. 분명 애매한 트집에 걸려든것만 같아 부아마져 슬그머니 돌아났다.

먼저번에는 십분 양보의 견지에서 노력했었지만 지금이야 뭐 무슨 까닭에 주눅이 들겠는가.

《땀이 기여간 자리처럼 구불구불한것보다야 나을테지요. 안그래요?》

끝은것이 흠이라니 이렇듯 비꼬아댈수밖에 더는 없었다.

《콧물하지도 구불구불하지도 않은 활동을 만들어야 할게 아니요. 활동을!》

그는 바닥을 향해 오른팔을 쭉 펴고 둥그렇게 반

원을 그려보이며 나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타하듯 진지하게 뇌었다.

(?!)

나의 대답에 깔린 질은 야유를 감촉 못할리 없는 그가 불끈 성을 내면 어쩌라싶어 속이 조이던 나는 그만 어리둥절하고야 말았다.

《에잇참, 미리 채근했어야 될건데 내 잘못했지. 한테 차마 이모양을 만들줄이야 알았나...》

그는 시름겨웁게 한탄을 하며 이랑우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참말 자신을 용서할수 없어하는 몸부림인듯싶었다. 어느때라면 내가 펄쩍 뛰면서 그를 당장 도로 일으켜세우고 손수건이 아니면 하다 못해 작업장갑이라도 깔아주었으련만 지금은 못본 척해둘수밖에 없었다.

인선동무는 맨손으로 이랑두개의 마루를 허물어 큰두리반만큼 편편한 마당을 닦더니 한켠으로 조금 치우쳐 손잔등 비슷한 두드러기를 만들었다.

나는 몹시 수상쩍어 그의 손을 지켜보았다.

인선동무는 성냥가치 한개를 꺼내들고 마당변두리에서부터 금을 그어들어오다가 두드러기에 이르러서는 그 정점을 축으로 반원을 그린다음 반대편 끝으로 직선을 내끌었다. 약 2센치미터정도의 사이를 두고 그런 금이 또 그어졌다. 세번, 네번...잠시 후에는 정점 맞은쪽으로 같은 선들이 고르롭게 자리잡았다. 그러고보니 물고기모양의 비행기날개 단면을 주고 그 우아레로 기류상태를 표시한 양력설 명도해와 비슷한 그림이 나타났다.

(옴지!)

나는 비로소 《활등》의 의미를 깨달았다.

인선동무의 그림은 내가 이랑을 쟈 이 밭의 모형 사관이었던것이다.

(인선동무는 내가 이랑을 활등처럼 등고선방향으로 뽑지 않았다고 불만이구나!)

그렇다. 평탄한 땅에서는 이랑을 레외없이 꽃꽂이하게 내지만 비탈밭이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등성이 밭 같은데서는 등고선방향으로 구부려낸다.

이것은 땅다루기 상식에 속한다. 그렇지 않고 이랑짓기 편리하도록 우쪽에서 아래로, 다시 말해서 높은쪽으로부터 낮은데로 곧추 지으면 장마철비물에 토양비료성분과 땅결층의 거름먹은 흙이 씻겨내려간다. 크나 적으나 이 피해현상은 경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식질과 모래기가 많을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지형특성에 따라 등고선방향으로 이랑을 모으면 큰물이 저도 이랑들 그자체가 제마끔 똑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토지류실이 억제된다.

결국 인선동무의 모형사관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뚜렷이 말해주고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리적으로 보아 옳고 따라서 의도가 좋기는 하지만 이 지대에 한하여서는 무시할 정도로 실용성이 적기때문에 의의가 없다.

여기는 비물을 잘 견디는 차질흙땅인데다가 경사도 면적도 썩에 넣을 여지가 못되므로 보통 장마는 끄떡없고 폭우가 쏟아진대야 조금 씻겨내릴것이다. 더우기 팽이로 농사를 짓는다면 모르거니와 기계농사시대인 오늘에 이런데까지 말끔 주의를 돌리다가는 기계들이 오금을 못펀다.

이것은 망탕 땅을 밟아 굳혀놓는 폐해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것이다.

나는 드디어 모형사관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쪼그리고 앉았다. 그러자 흐렸던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내가 사관을 보고서야 자기의 의도를 깨달은줄다행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를 그윽히 바라보는 눈길, 나로 하여금 남다른 감정을 품지 않을수 없게 만든 그 어린애같이 순박한 눈길을 온몸에 느꼈을 때 (나를 믿는구나!)하는 감동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어쩌나 고맙던지 눈굽마저 찢릿했다. 《인선동무, 용서하세요. 내 잘못했어요.》 하고 밀고싶었다. 그렇게 하여 위기에 처한 사랑을 구원하고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자제하여야 했다. 인선동무가 《바투보기》안경을 내던지지 않고 이토록 자질구레한 일에 몰두해버렸다면 결국 당대 가야 큰일을 못치르는 송사리로 남아있고만다. 룡이 되여야 할텐데 송사리라니!

《비탈진 밭에서는 등고선을 따라 이랑을 활등처럼 뽑아야 한다는건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옳아요.》

나는 이렇게 허두를 뎌 다음 그의 안색을 살폈다. 어째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고 묻는듯한 그의 눈길에 내 얼굴을 더듬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만쪼한 밭귀때기 비탈까지 썩에 넣다가는 프락토르가 당대 요렇게 꼼짝달싹 못하지 않을가요. 호, 호!》

나는 두 무릎과 팔꿈치를 가슴에 꼭 웅송그려보이며 우스개소리를 했다. 이런것쪼는 그저 웃어넘겨버릴 일이지 구태여 신경쓸나위가 없다는 뜻을 살짝 강조한셈이었다.

그는 나를 놀랍게 바라보다가 마치 잃은 물건을 찾기라도 하는듯 땅바닥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

이윽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채 무엇인가 해명되지 않은듯 의문을 나타냈다.

《설마 정말이 아니겠지?》

나의 입에서는 자신있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아이참! 내가 왜 동무한테 빈말을 하겠어요. 난 앞으로도 절대 속없는 말을 안할테어요.》

이것은 사실 나는 나의 주견대로 살아갈테니 그리 알라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다.

《빈말이 아니라구?!》

앞서보다 눈이 더 커져서 나를 지켜보는 인선동무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껍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기는 하였으나 제판에 나를 리해시키느라고 사판까지 만들어보였는데도 내가 받아몰지 않고 짐짓 판소리를 뽐아놓으니 급기야 성을 내는게라고 생각되었다. 남자가 되고서야 어찌 손아래 너자앞에서 순순히 뜻을 굽히겠는가. 예견했던 정황이고 따라서 너럭히 리해해줄만한 감정이였다.

하여 나는 고자세의 여유를 보이려고 원심을 쓰면서 일부러 너그럽게 《그래요.》 하고 대답했다.

별안간 인선동무가 불에 데기라도 한듯 벌떡 일어섰다. 아울러 터진 우뢰.

《그렇다?!》

나는 그만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고말았다.

어망결에 두손을 땅에 짚고서야 그를 따라 일어설수가 있었다. 망신이였다. 총각앞에서 처녀가 겁에 질려 주저앉다니, 뜨거운 물을 뒤집어쓴듯 온몸이 화끈 달았다. 가슴 지지는 모욕감이 약을 활짝 북받쳐올랐다. 견잡을수 없이 튀어나는 반발.

《내가 뭐 어쨌다고 큰소리에요?》

그는 새파래진 나를 잠깐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엄하게 따졌다.

《이랑을 이모양으로 뽑으면 장마통에 어떻게 되는줄 모른단 말ियो?》

《...》

《아오 모르오?》

《알아요. 그렇지만 요만한 경사까지야 어떻게 다셈에 넣겠어요. 난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은적도 없고 실지 그렇게 하는 운전수들을 본적도 없어요. 프락포르가 손달구지처럼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세살난 애들조차 잘 아는 사실이아닌가 말이에요. 안그래요?》

나는 지고싶지 않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받친 데다가 엄연한 사실인데 무슨까닭에 지겠는가.

격한 가운데서도 그가 다시는 할말을 찾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내쫓았다는 확신으로 속이 후련하였다. 아닐세라 말문이 막혔던지 인선동무는 슬그머니 얼굴을 돌려 먼 서쪽하늘의 불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노을에서 그 어떤 위안을 찾기라도 하려는듯 아득한 허공에 눈길을 준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있던 인선동무는 얼마후 마치 이 석양녘의 태평스런 교요를 건드릴가 저어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소. 프락포르가 손달구지는 아닌 이상 형형색색으로 까다롭게 생겨먹은 지형조건에서 도저히 임의롭지 못할줄 누가 모르겠소. 눈가진 사람이면 알고도 남지. 그러나 동무가 어떻게 하나 이랑을 돌려내보려고 애를 쓴 흔적을 단 한곳만이라도 찾을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섭섭치 않겠소. 단 한곳 흔

적만이라도 말ियो.》

표정은 물론 목소리도 어찌나 엄숙했던지 감히 항변할수 없는 당당한 그 무엇이 그에게서 뿜겼다.

(《애를 쓴 흔적》!)

저도 모르는 사이 속으로 외워보는 나의 가슴은 뜨끔했다. 견잡을새없이 변명이 흘러나왔다.

《노력해봤자 아무소용 없겠기에...독수리가 개미를 잡지 못하듯이...》

그가 가로챘다.

《프락포르가 독수리일수는 있어도 땅은 결코 개미에 비길수 없소. 프락포르에 구실을 붙이지 마요.

그건 범죄요. 오늘날 우리는 프락포르를 떠나 농사를 못짓소. 종합적기계화도 생각할수 없고. 요컨대 문제는 프락포르의 기술적특성에 있는게 아니라 다루는 사람의 머리에 있단 말ियो.》

절절한 책망은 맞받아나갈 기세로 잔뜩 도사려먹은 내 마음을 휘저어놓았다.

(내 머리에?!)

불현듯 던져진 물음앞에 대답을 찾을수 없게 된 나는 어쩔바를 몰랐다. 과연 내가 이 밭 첫머리에 들어설 때 비물에 씻겨내릴 흙에 대해 생각했던가. 생각을 했었다면 비록 완전치는 못할지언정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어찌 없었으랴. 흔적이 어찌 안남았으랴. 참다운 주인이라면 이렇수 없지. 결국 품팔이군이 아닌가. 사로청모임때 가슴을 울리던 목소리들이 귀에 쟁쟁 과고들었다...

드디어 나는 량심의 심판대에 올랐음을 통감했다.

어쩔바를 모르고 망연히 서있던 나는 인선동무가 따듯이 《이젠 가자구.》 하며 내 손목을 끌었을때(그가 내 손목을 잡기는 이때가 처음이였다.) 그손에 매달려 울고싶은 충동이 솟구쳐올랐다. 막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느라 안간힘을 쓰노라 그를 어떻게 따라갔는지 알수 없다.

인선동무는 나와 나란히 걸어가며 땅과 속삭이듯 조용히 뇌였는데 자기의 뚫이 고스란히 땅에 어리기라도 한마냥 허리굽혀 바닥을 내려다보며 하는 말은 마치나도 마디마디를 사색의 저울에 달아보고 알자고 무거운것만 끌라내놓듯 자못 의미심장하였다.

《땅이 아프다는 말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짓밟거나 비물이 뜰어가건말건 내버려둔다면 여기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들쳐붓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들이댄다 해도 밀빠진 독에 물붓기요. 순탄동무, 내 말이 가슴아프겠지? 동무를 기쁘게만 해주어도 성하지 않을 내가 도리어 아픈 소릴 하자니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소. 하지만 동무와 나는 영원히 이 땅의 주인으로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기에...》

《!...》

《순탄동무, 농사를 짓는 우리가 지력에 대한 리

해를 땅을 몸처럼 아끼는 사랑에 그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의 땅은 앙상한 뼈만 남게 되요. 위대한 농촌체제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하자면 그 중요한 고리가 바로 지력에 있는데 땅을 그저 흙으로만 여겨 지력을 없애버리면 무엇으로 나라의 쌀독을 채우겠소.》

나를 타이르기보다 내탓으로 모욕당한 땅앞에 사죄라도 하는듯 간절하게 울리는 음성은 저녁 고요와 더불어 가냘픈 지경으로 조용하였지만 내 가슴에 파고들었다. 어느덧 마음속 모진 아픔이 온몸을 굳혀버렸다.

(아,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라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간곡한 뜻이 저렇듯 인선동무를 그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나는?…)

아,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며 평생을 여기서 살아갈 내가 그 보금자리를 팔세했으니 어떻게 낫을 들고 그 땅우를 걸어다니단 말인가.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점점 멀어져가고있는 인선동무의 듅직한 뒤모습이 시야에 안겨들자 문득 지난 두달사이 그를 그전과 달리 보아온것은 다만 눈일뿐이며 심장은 여전히 사랑의 불씨를 품고있는 줄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러다보니 지금 멀어지고있는 인선동무가 나에게서 영영 떨어져나갈것만 같아 더럭 겁이 났다. 막 뒤쫓아가 꼭 붙들고싶은 열망이 불붙듯 일어났지만 지금은 돌로 빔어진마냥 드놀줄 몰랐다. 굳어진 몸에 반발이라도 하는듯 속이 타올랐다. 그럴수록 한가지 생각이 뚜렷하게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사람에게 있어서 땅에 대한 애착과 일생의 길동무에 대한 애정은 한뿌리에서 돋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인선동무는 농사짓는 땅을 내가 조건에 빙자하여 그저 여느 흙처럼 여길 때마다 그토록 기분이 나빠할뿐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안보낸것이 아니겠는가. 땅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그가 어떻게 사랑해줄수 있단 말인가.

절망이 엄습하는 순간 두손에 얼굴을 꼭 묻고 훌쩍 주저앉고말았다. 눈앞은 비록 캄캄하였으나 인선동무의 모습은 생생히 살아났다.

…이날밤 나는 곧 잠들지 못했다. 밤이 이슬하도록 열병환자처럼 자반뒤집기만 하다가 어느때쯤이나 깨서인지 소르르 눈이 감겼다.

등고선을 따라가려고 있는 힘껏 운전대를 잡아들렸으나 트랙포르는 성난 말처럼 쾅쾅쾅 마구 날뛰는데 말고삐를 틀어쥐려는 마부마냥 인선동무가 두손을 쳐들고 막아섰다. 와당탕! 이랑을 뛰어넘는 트랙포르에 인선동무가 가리워지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엄마!》

《애두 참, 몸을 꿈에 빠졌구나 쓰-쫓!》

누군가 허를 차면서 어깨를 흔들었다. 몸서리치는 악몽에서 깨어보니 어머니였다. 나는 너무나도 씨원하고 또한 고마와 《어머니!》 하고 목메이게 웨치며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야말았다.

서둘러 밥을 먹고 문밖을 나선 나의 눈길은 어인 까닭인지 동쪽등성으로 날아갔다. 거기에는 벌써 영양단지를 옮기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한벌 덮여있었다.

《이제라도 이랑을 고쳐야 해!》

번개치는 생각이였다. 뒤따라 (밤에 손쓸 맘을 왜 못먹었담!)하고 이마를 쥐여박고싶도록 안타까운 후회가 일어났다. 주먹을 부르쥐고 등성으로 치달았다. 먼저 사람들의 일손부터 멈춰놓고 그다음 트랙포르를 몰고갈 작정이였다. 연유를 넣고 발동을 걸고…하는 사이면 고쳐야 할 면적에 벌써 술한 강냉이모가 옮겨질것이기때문이었다.

발에 이른 나는 황황히 인선동무를 찾았다.

그만이 작업을 멈춰세울수 있다. 공교롭게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마침 모판에서 영양단지모를 한창 떠내고있던 뒤집아주머니와 눈길이 마주쳤다.

《분조장동문 어디 갔어요?》

《오라, 그 사람부터 봐야 일손이 잡힐 모양이지? 드러내놓고 찾는걸 보니까 이제 담이 펴 커졌겠다?》

《그런 룡담할새 없어요!》

《룡담? 순탄이 속에서 타는 불길에 나까지 후끈 후끈 달아오르는걸.》

《아주머닌 정말?》

《그렇게 안이 달거던 집으로 가라구. 밤새운 사람이니까 지금쯤 설거야.》

《밤을 새워요?!》

《이 발이랑들을 고쳐내느라 밤새껏 신고했거든.》

《?!》

놀란 나는 황급히 두리번거렸다. 그래서야 비로소 활동을 이룬 이랑들에 눈이 갔다.

(!!…)

이때의 충격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영커돌아가는 여러가지 심정가운데 인선동무가 곁에 있다면 용서를 빌고싶고 땅이 나를 원망하는것만 같아 그우에 서있기가 고통스러웠던 심정만큼은 오늘도 기억에 생생하다.

…인선동무는 집에 없었다. 차고앞 트랙포르 운전칸안에서 잠든 그를 발견했을적에 놀랍던 마음 그 역시 글로 옮기기 힘들다.

그 동무는 운전대를 잡고 그우에 머리를 얹은채 굳잠에 빠져있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내려설 사

이도 없이 저렇듯 잠이 들었겠는가.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밝은 미소가 어리여있지 않는가. 만시름을 놓은듯 궁지의 미소가, 아마도 씻겨내려갈번한 한줌의 흙일망정 보호한것이 꿈속에서도 여간만 다행스럽지 않은가 보았다.

이렇듯 그의 속마음을 가늠해보느라니 다시금 용서를 빌고싶은 충동이, 그의 마음에 나의 진심을 합치고싶은 열망이 누를수 없이 일어났다.

하여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 운전칸으로 올라가 그옆에 살그머니 앉았다. 그가 눈을 떴다.

《깨워서 미안해요.》

진정이었다.

《주인이 왔구만. 제때 깨워줘서 고맙소.》

너그러운 대답이었다. 남의 흐린 마음조차 맑게 해줄듯싶은 순박한 눈이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나

를 지켜보았다. 나를 꾸짖을 대신 오히려 반겨준다. 얼마나 고마운 인선동무인가. 이런 동무를 사랑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이미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었다. 내 손으로 내 발잔등을 찍었으니 가슴 미여지는 고통뿐 호소할데도 없었다.

애정에 목마른 눈물, 자책의 눈물이 솟으면서 목이 떨렸지만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속을 털어놓아야만 하였다.

《인선동무, 날 용서하세요. 난... 난... 정말...》

《무슨 꿈같은 소릴?》

《믿어주세요. 이제부터는 땅을 아끼는 동무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인줄요!》

《고맙소, 믿구말구!》

그는 내 손을 꼭 쥐었다. 불덩이같이 뜨거운, 심장까지 달구는 손이었다.

밤 잠

리종덕

나이 들면

밤잠이 적어진다 하더니

그래서가 아니구나

부모되어 아들딸을 키워보니

나이 들어

한가정을 거느려보니

제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마음이구나

대학을 졸업한 만아들은

제구실을 하겠는지 마음이 안 놓이고

집에서 응석받던 막내녀석은

돌격대 생활에서 말썽이나 없는지

제대군인 따라서 시집간 딸은

낮선고장에 정이나 붙였는지

다 키워 내놓은 자식들이건만

크고작은 걱정이 잦을 날 없거니

나라에서 돌봐주는 좋은 세월에

걱정이야 무슨 걱정 있으랴만

그래도 부모된 심정이여선가

걱정아닌 걱정으로 잠 못드는 밤

이런 밤엔

이런 밤엔

내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가슴 뭉클 젖어오나니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가려주며

천만자식 운명을 지켜주는 우리 당

언제 한번 발편 잠 든적 있으랴

어느 하루 편히 쉬어본적 있으랴

가정을 거느려보고

아들딸을 키워보니

어머니당의 심정

이 가슴에 사무쳐와

한가정의 근심에 잠 못들던 이 마음

당에 대한 생각이

밀물처럼 차올라

아! 잠 못들겠네 잠 못들겠네

신념과 인간

송명근

애타게 기다린만큼
후더웁던 만남의 감격
돌이켜봄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태려는것

오직 하나 신념을 지켜
우리 당과 조국의 아들로

안해의 남편으로
딸의 아버지로 남은 인간

뼈아픈 희생과 상실을 딛고 넘어
이렇듯 큰 빛을 안고 왔으니
귀향과 상봉
생활의 모든 자옥 아름다운 노래여라

눈물에 젖던 날

사람마다 꽃에 꽃을 들고
길이 메이게 달려나온것은
온 나라가 타는 입술 감빨머
텔레비죤앞에 마주앉은것은
그대가 조국의 아들로 돌아오기때문에

기다림에 좁아든
문은 열리어
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실에 들어서는 오전 11시
리인모!
그대를 맞는 조국은 일시에 눈물에 젖었더라

이렇게 오리라고야
누가 상상인들 하였더란말인가
장대한 키꼴에 가슴을 쪽 찢고
이 땅을 활보해야 할 그 걸음이
지팽이도 아닌 삼륜차에 실리여온
43년만의 귀향길

엎어질듯 달려가
무릎에 꼬꾸라지는 안해와 딸에게
한마디 정다운 말조차 못건늌는
폐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온 나라를 울리는거나

하기사

그 지옥의 류황불이 이글거리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지하실들
그 고초를 이겨내고 지나오지 않았다면
그 누가 한방울의 동정인들 보내줄것이나

다시 보자
너무도 기다리고 그리던 모습이어서
텔레비죤화면이 자꾸만 흐려지고
손조차 혼자 젓지 못하는
소생차의 차창에 매달리는 마음도 젖고...

너무도 아까운 젊음을
감옥에 다 두고
피골이 상접한 백발로 돌아왔지만
아, 신념은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하였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높이 내세워준
조국의 장한 아들로 되게 하였구나

아끼고 누리고싶은
인생의 모든것 다 바쳐
신념을 지킴은
이리도 숭고하고 눈물겨운것이라고...
그대는 온 나라의 가슴들을 뭉뚱 적셔놓았더라!

침묵속의 대화

손입-
40년 세월 고르고골랐던
하많은 말들은 이 가슴속에 땀돌고
그립던 손을 꼭 잡으니

떨리는 마음속말은
...오셨군요
무엇을 딛고 오셨나요

길도 없는 다리도 없는
피의 강, 죽음의 시퍼런 바다넘어?
새각시의 순정이 늘이고늘인
기다림의 징검돌을 딛고 오셨나요?

인모-
빛없는 감방속 나의 하늘이였고
봄없는 감방속 나의 진달래였던
안해여, 그 뜨거운 손에 손을 맡기고
말 듣지 않는 혀를 대신하는 마음속 말은
...믿음이었소

등에 업은 딸의 손 젖게 하면서
돌아오시라
기어이 오시라 하던 말
살을 태우는 아픔도 이길수 있게 하였고

몸을 비트는 고문도 넘게 하였소
믿음의 오작교가 내앞에 비껴있었소

시인-
만남이 꿈일가봐
아쉬운 꿈일가봐
손과 손의 쓰다듬으로 현실을 감수하는
눈물겨운 사랑의 시각에
시인도 잠시 끼일틈 얻었노라

안해가 안해로 남았기에
남편이 남편으로 남았기에
...만났구려
사랑의 승리로!
믿음의 승리로!

받으시라 딸의 큰절을

마주 끌어안고
붙이며 손이며를 부벼줄순 없어도
리인모동지여, 삼륜차에 앉은 그대로
받으시라
두손 모아 무릎 꿇는 딸의 큰절을

꽃같은 딸의 손에 인형도 안겨준 일 없고
세살때 두고 간 딸이 마흔살 넘도록
응석 한번 받아주지 못했어도
그대 지금
얼마나 땃땃한 아버지로 돌아온것이나

34년의 옥중고초
살불이 하나없는 양로원에 던져진 그 목숨
붙어있는 생명마저 기적인
그대의 찌그러든 단 하나 트렁크속에
딸에게 안겨줄 옷가지 하나인들 있으랴만

오, 백발을 높이 드시라

오열에 어깨를 떠는 딸의 감사는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준 큰 사랑앞에
머리숙임이다

만약
수치의 손도장 하나로 하여
자식앞에 어엿하지 못할진대는
《아버지!》 하는 딸의 부름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찢는 고통일것이며
그 누가
백발앞이라 깊이 머리를 숙일것이라

어서 받으시라 딸의 큰절을
그대는 이 나라의 아버지들이
자식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의지와 신념으로 보여준
아버지중의 아버지외다!

불사신의 인간상

쏟아진 인과는
돌아오는 몇백리 길목마다
발구르고 목이 쉬어 꽃숲으로 설레는데
그대는 금시 울음을 터칠듯이
-내가 받을 대접이 아닙니다

살태우고 뼈를 깎는 지옥살이 34년
이렇게 굴함없이

이렇게 장하게 넘어왔는데도
그대는 항변하듯이
-내가 받을 대접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뼈앗긴 청춘을
짓밟힌 43년의 인생을
이 하루에 다 돌려주고싶은 우리인데

세상 모든것 다 안겨도 모자라는 마음인데

전사가 수령님을 받들고
당원이 우리 당을 따름을
다만 응당한 의리로 여겼기에
그 무슨 대우가 당치않은듯
-내가 받을 대접이 아닙니다!

오오, 불사신이여
그대의 이 한마디에
불속에 타지 않고 퍼덕이며 내려쳐오른
불굴의 40여년이 다 있구나

의지와 신념의 화신인 그대의 인간상이 있구나
겸허와 사량이 아닌 이 진정
순결무구한 이 의리에
주자! 조국의 가장 높은 표창을
가장 빛나는 영예를!

아, 그래서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원의 그 가슴에 금별을 빛내여주시고
품이 모자라도록
모든 사랑 다 안겨주시고도
더 줄것이 없어 마음 쓰시는것 아니라

당원의 자리

왜 아니 눈물이 솟겠습니까
친애하는 그이 품에 안긴 전사는
43년만에 당원증을 받습니다
조직에 맡기고 직후로 갔다온듯
입당할 때의 그 번호, 그대로의 당원증입니다

호을로 오랜 세월 생사도 알길 없이
당원은 제자리 비워두고 떠났지만
유일번호속의 그 한자리

메꾸어지지도 않았습시다
뒤전으로 밀리지도 않았습시다

세월도 망각의 파도에 묻지 못했습니다
신념을 지켜
성스런 대오속의 제 위치를 지켰습시다
이 당원증을 보십시오!
이 번호를 보십시오!

나의 당비를 받아달라

-리인모동지 당비를 바치다-

당이여
나의 당비를 받아달라
한달분이 아니라
43년분의 당비를 전부 받아달라

몸은 비록 저 남녘
적구의 감방속에 있었어도
멈출수 없는 투쟁과 함께
나의 당생활은 하루도 중단된적 없었노라

스스로 받은 분공은
-당원의 지조를 지킬것!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고통을 씹으면서도
스스로 짓는 총화는
-흔들린적은 없었는가?

죽음같은 담벽너머 저 세상
산 사람을 숨쉬우면서 말리는 《안기부》 밀실에서
전사의 보고는 여기 닿지 못했어도

믿어달라 뜨거이 흘린 피로
나의 당생활은 한줄두줄 기록되었음을

내 당생활의 보증이 필요하랴만
구태여 내놓는다면
43년 적후에서
오리오리 희여진 이 백발
쫄각쫄각 부서지고 뒤틀린 이 뼈와
오직 하나 병들지 않은 당원의 량심...

입당의 그날부터 오늘까지
한칸도 건님이 없게 하여달라
당비 납입란의 빈 공간은
당원으로서 내 삶의 죽음!

당이여
받아달라 나의 당비를
한달분이 아니라
43년분의 당비전부를!

어서 들어서시라

문은 활짝 열렸다
하늘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자, 어서 들어서시라
그리움의 집으로,
불굴의 영웅이어

떠나갈 때엔
종군수첩 하나 들고 쉬이 나섰건만
돌아올 때엔
자옥마다 죽음을 딛고 넘어
험난한 마흔세해를 헤쳐왔거니

그대는 선뜻 문고리 잡을수 있어라
아들의 자리 고스란히 남겨놓고
늙으신 어머니 하루도 걸어본적 없는
그 마음이 어린 문고리
주인의 자리 비워놓고
긴긴세월 안해가 기다려준
그 사랑 따스한 문고리

집...
누구에게나 집은 있어도
누구에게나 팔벌려주는 품이 아니다

한뼘도 채 안되는 문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량심은 넘어설수 없는곳

감히 즈려밟고 가시라
소리없이 고였다 발밑에 떨어지는
수정같은 딸의 눈물방울을,
1만 5천도 넘는 그밤들의
잠못이룬 안해의 고통우로...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온갖 풍파에도 꺾이지 않았기에
한마음 꺾끗이 향도의 태양을 따른 그 자옥
어머니의 집으로 그대를 실어왔다
안해의 집으로 그대를 데려왔다

어서 들어서시라
그대 온 나라가 아는 영웅중의 영웅
그대 온 세계가 아는 신념의 화신!
집은-
부끄럼없는 인생만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있다!

소대장의 목소리

홍성두

1

행군에 지친 전사의 어깨에서
전우들이 총을 벗기려 할 때
엄하디 엄한 목소리
등뒤에서 울려퍼섭니다
-동무들, 비키시오

이런 때
너무도 귀에 익은 소대장의 목소리
전사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든
값죽은 동정은 비키라는 명령이었습시다

2

돌격으로 내닫는 훈련의 한순간
뜻밖에도 굴러온 한발의 수류탄이
전사의 발밑에서 터지려 할 때

엄하디 엄한 목소리
또다시 심장을 때렸습니다
-동무들, 비키시오

그 누가 뒤돌아볼사이도 없이
터지려는 그것을 한몸으로 덮으며
소대장이 마지막으로 웨친 목소리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앞에선
죽음도 비키라는 호령이었습시다

×

오오, 잊을수 없습시다, 잊지를 못합니다
전사들을 심장으로 사랑했기에
그길에서 단 한치도 비켜설줄 몰랐던
우리 당의 참된 지휘관의 목소리
참된 사랑의 메아리

우리의 것

김도환

백문경이 철산광산으로 찾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길이라고 할수 있었다.

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씨였다.

그는 렐차에서 내리자 역에서 십여리나 되는 광산을 향해 곧장 걸었다. 한시간후에 광산으로 가는 통근차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로서는 마음편히 그 시각까지 기다릴수 없었다.

그는 질척거리는 진창길을 철버덕거리며 걸음을 재우쳤다. 반들거리는 고급가죽구두에 어지러운 흙탕물이 게발려지고 도수높은 안경에 비물이 뿌려 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떠나올 때 걱정어린 어조로 말하던 채굴기계연구소 소장의 말이 귀전을 때리며 그의 걸음을 재촉했다.

《문경동무, 문제가 심상치 않게 제기되는구만. 대량생산문제는 당분간 보류해야 될것 같소. 큰 광산인 철산광산에서까지 못쓰겠다고 제기했으니... 아무래도 담당설계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다시한번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소.》

소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심각해진 얼굴에서 문제가 상스럽지 못하게 번져져가고있음을 직감했다.

몇달전에 백문경이 설계한 새로운 형의 대차식착암기를 십여대 시험생산하여 여러 광산들에 내리보냈었다. 그리고 백문경자신은 가까운 광산에 직접 나가 그 시험에 참가하였다.

백문경은 근 한달 가까운 시험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창조물의 성공을 완전히 믿어의심치 않게 되었다. 그는 성공의 기쁨과 환희를 안고 연구소에 돌아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험용대차식착암기를 가져간 여러 광산들에서 못쓰겠다는 의견들이 신소편지로 소장책상우에 편이어 날아왔다.

며칠전에는 별로 크게 이름도 없는 흥덕광산에서까지 사람이 찾아와서 대차식착암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했다.

그날 백문경은 대차식착암기의 총조립도를 책상우에 펼쳐놓고 과연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다시한번 기계의 구조작용원리와 부품품들의 조립에 이르기까지 심중히 검토해보고있던중이었다.

그 사람은 흥덕광산에서 왔다고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고는 앞책상우에 펼쳐진 총조립도에 다가서서 거기에 시선을 박는것이였다.

《흠, 대차식착암기의 총조립도로군.》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찾아온 용무는 잊은듯 그냥 도면만 들여다보았다. 백문경은 허리를 펴고 그 사람을 주시했다. 보통기에 수수하게 생겼는데 별로 인상적인데란 없는 사람이였다.

《설계원동무, 한가지 좀 물읍시다. 이 대차식착암기가 순수 설계원동무의 머리에서 착안된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 기술문헌에 기초해서 만든것입니까?》

백문경은 어이가 없어 눈만 심뻘이였다. 너무도 모욕적인 물음이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분명 피짜가 아니면 시비군인것 같았다. 그래서 랭정하게 짜르듯 말했다.

《어서 찾아온 용무나 말하시오.》

했으나 그 사람은 백문경의 기본상태에는 개의치 않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설계실안의 사람들은 그들의 상스럽지 못한 대화에 호기심을 느낀듯 힐끗힐끗 바라보았다.

《설계원동무는 이 대차식착암기를 어느 나라에서 쓰자고 설계했습니까?》

그 순간 졸전의 그의 물음에 어지간히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백문경은 삽시에 눈초리가 콧끝해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였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그래 동무는 내가 미국이나 스웨리예에서 쓰자고 설계한것 같소?! 여보시오. 그런 허튼소리를 치겠으면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나가서 제 할일이니 하란 말이요!》

백문경의 입술은 격분으로 하여 푸들푸들 떨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의자를 앞으로 당겨놓으며 백문경에게 바투 다가갔는것이였다.

《글쎄 내 말이 모욕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설계원동무는 이 기계의 여러 기름구멍의 직경을 선정할 때 각종 기름들의 점성결수를 고려했겠는데 대체 어느 나라의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백문경의 귀에는 벌써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않았다. 백문경은 오른팔을 막대기처럼 쭉 펴서 문쪽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웅쳤다.

《기름점성결수는 기름구멍의 직경이든 당신하고 더 할말이 없소. 어서 나가거나 하오! 당장!》

그 사람은 일이 별랑게 번져졌다는 표정을 지으

며 입만 껌껌 다시였다. 그러면서도 밖으로 나갈 생각은 전혀 없는듯 바위처럼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 있었다.

백문경은 총조립도를 와락와락 걸어 서류고에 넣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그 사람앞을 지나 밖으로 나오기말았다.

한두시간 다른 부서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니 곁에 앉은 설계연구사가 허구쁜 웃음을 지으며 《참 검질긴 사람이더군요. 방금전까지 그냥 앉아있다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시계를 보더니 마치 못해 나가더군요.》 했다.

《헛 참, 별 시비군을 다봤소.》 백문경은 입이 쓰거워 내뱉듯 중얼댔다.

피짜같은 그 흥덕광산사람때문에 매우 기분나쁜 일화가 빚어지긴 했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대차식착암기가 아무런 말쑥도 없었다라면 그런 일은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을것이다...

(시험과정에는 별일 없었는데 어떻게 된 까닭일까? 아무리 따져보아야 설계에는 잘못이 없는데... 이젠 분명 운영자들의 잘못이야.)

백문경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얼굴로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바닥으로 연신 쓸어내리며 걸음을 재우쳤다. 한시바빠 철산광산에 가닿고싶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큰 광산인 철산광산에 가보면 명백히 드러날것이었다.

×

철산광산 기사장은 몸이 뚱뚱하고 나이에 비해 일찍 머리가 벗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백문경이 자기소개를 하자 《아하, 그렇습니까?》 하며 어지간히 반기는 태도를 보이였다. 기사장은 백문경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젖은 옷을 벗어 말리우라고 격정도 했고 구석쪽에 놓인 원탁우에서 화려한 꽃문양이 그려진 보온병의 뚜껑을 눌러 김이 문문 피어나는 뜨거운 물을 한고뿌 들고와서 권하기도 했으며 그가 사는고장의 농사형편과 기후에 대하여서도 이것저것 물었다.

《여긴 그쪽보다 절기가 훨씬 앞서지요. 이곳 겨울은 또 얼마나 지독히 추운지 압니까?》

말썰이 많은 대차식착암기로 하여 적어도 딱딱한 공식적항의나 차거운 뽕대를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백문경은 그의 뜻밖의 친절 한 태도에 좀 얼떨떨해지였다. 백문경은 간단히 답례를 하고 대차식착암기의 형편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자 기사장은 허구프게 웃었다.

《허, 전혀 못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수월히 나왔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고 묻자 《글쎄말입니다. 한 열흘정도는 그럭저럭 돌아가는듯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예 돌아

가지 않으니...》 하고 두손을 꺾 벌려보였다. 대차식착암기의 말이 나오면서 그는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마치 상점에 들어간 손님이 아무런 흥미도 끌지 못하는 물건걸을 지날 때의 표정과 비슷했다. 백문경이 물으면 그는 간단히 《아니요.》, 《그렇소.》 하는식으로 대답했다. 대차식착암기에 대하여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비난의 색조가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백문경은 속으로 의분을 금할수 없었다.

(저런 태도를 취하니 아무리 훌륭한 대차식착암기인들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백문경은 이마살을 잔뜩 찌프리고 안경을 벗어 닦아 쓰고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현장에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래일 가봅시다. 열차를 타고 오느라 피곤도 하고 옷도 젖었는데...》

《아니 지금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허허, 가봐야 그런데...》

기사장은 마치 못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서 작업복을 벗겨 우에 걸치였다. 그리고 노란 비닐안전모를 쓰고 백문경에게 하나 내밀더니 안전등을 어깨에 걸었다. 그들은 굴진갱을 향해 스적스적 걸었다.

《설계원동무는 아마 우리가 대차식착암기에 노력을 적게 들어서 돌아가지 않는가고 좋지 않게 생각할수도 있겠는데 참 말도 마시오. 우리가 무슨 역사인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광산 착암수들이 노력한것은 돌째치고서라도 흥덕광산 지배인까지 와서 보름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착암수들과 같이 그걸 돌려보겠다고 별의별 고생을 다했습니다.》

《아니 흥덕광산 지배인까지 말입니까?》

백문경이 놀라며 되물었다. 며칠전에 설계연구소에 찾아왔던 그 피짜와 같은 흥덕광산사람이 생각났다. 그 일때문에 흥덕광산이란 말은 그의 머리속에 불쾌한 감정을 자아내는 뜻으로 새겨져있었던것이다.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 전혀 모릅니다.》

《허- 흥덕광산 지배인을 모르다니... 앞선 기일을 받아들이는데서 여러번 실력을 보여준 사람인데... 나와 대학동창인데 채굴기계전문가지요.

그렇게 한다하는 사람도 큰 광산인 여기를 믿고 찾아왔다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채 돌아갔습니다. 발까지 다 얼구면서... 생각하면 기막힌 일들뿐이지요.》

그들은 광차레루가 깔린 어둑컴컴한 갱도에 들어섰다. 안전등 불빛이 타래진 케불선과 배관들이 늘어진 울퉁불퉁한 갱도벽을 어루더듬으며 지나갔다.

머리우에서 석수가 백문경의 목덜미에 툄렁툄렁 떨어져 얼음조각처럼 차디찬 감을 주었다.

막장에는 네명의 젊은 착암수들이 있었다.

《이 동무들이 흥덕광산 지배인동무와 함께 대차식착암기를 살리노라고 애를 쓰던 동무들입니다.》 하고 기사장이 알려주었다.

젊은 착암수들은 백문경을 반갑게 맞이했다.

《아, 흥덕광산에서 오신분입니까? 지배인동지가 잘 계십니까?》

《지배인동지의 언발이 좀 어떻습니까?》

백문경은 곁으로 모여들며 떠들썩하게 물음을 던지는 그들을 마주볼수 없어서 구원을 청하듯 기사장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 참 동무들, 아니요 아니! 이분은 흥덕광산에서 온것이 아니라 채굴기계연구소에서 온 대차식착암기를 설계한분이요. 실태를 료해하자고왔소.》

기사장이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뿔뿔히 찢어진 가마에 찬물을 끼얹은듯 대변에 즈뽕해지며 백문경의 곁에서 슬그머니 물러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백문경은 말을 들어볼것 없이 그들과 같이 대차식착암기를 돌려보기로 했다.

막장구석쪽에 버림받은듯 서있는 여러대의 대차식착암기를 갖다놓고 동작시켜보기 시작했다. 하도 그 대차식착암기와 씨름하여서인지 착암수들은 능숙하게 다루었다. 압축공기배관에 호수를 맞추고 기름구멍마다 다시 기름을 치고 드디어 삐죽이 나온 시동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착암기정대를 앞으로 들어올리기 위한 보조적인 기계토막들과 팔들이 움찔움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처럼 원활하게 동작하지 못하였다. 마치 중풍을 만난 환자의 팔다리처럼 부르르 떨다가 자기 위치로 가지 못한채 딱 굳어지는것이였다. 기본작업기관에서는 감기에 걸린것처럼 연방 재채기를 터치더니 인차 잠잠해지고말았다. 다시 시동손잡이를 잡아당겨보았으나 매한가지였다.

백문경은 자신이 직접 팔을 걷고나서 해보았다.

다른 대차식착암기를 끌어다가 시험해보았지만 역시 같았다. 백문경의 이마에는 저도 모르는사이에 콩알같은 땀방울이 맺혔고 등은 축축히 땀에 젖어났다. 백문경은 나머지것들도 다 시험해보았다. 역시 다름바 없었다.

했지만 자기의 창조물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릴수 없는 백문경은 기사장에게 사정하여 착암수들과 함께 며칠간 시험착암을 더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는 며칠동안 별의별 역사질을 다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마침내 백문경은 맥을 놓고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백문경의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찢어지는듯했다. 자기의 창조물이 이처럼

처참한 모양으로 넘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그토록 많은 품을 들여서 만들어낸 대차식착암기가 아닌가.

백문경이 광업기술학교를 마치고 광산굴진작업반에 배치되었을 때 처음으로 손에 잡은 기계는 착암기였다. 하지만 스무살전의 그 어린 나이로서는 착암기를 다루기가 너무도 힘에 부치였다. 어느날 그는 다리 세개가 붙은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 그우에 착암기를 올려놓고 착암작업을 해보았다. 일하기가 한결 쉬웠고 작업능률이 훨씬 높아졌다. 창안적인 재능을 엿보인 이 자그마한 일이 아마도 그가 광산대학 채굴기계과에 추천받게 된 동기로 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대학기간에 자기를 대학으로 추천해준 친근한 사람들이 일하고있는 광산막장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보다 현대적이고 능률이 높은 착암기를 만들어주리라는 생각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채굴기계연구소에 배치된 다음부터 굴진공들을 힘든 작업에서 해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였다.

낮과 밤으로 이어진 탐구의 나날, 실패와 난관앞에 모대긴 일은 그 얼마였던가?

마침내 그는 우리 로동계급의 체질에 맞는 간편하고 리용가치가 있는 착암기를 시험적으로 성공하였다.

참으로 대차식착암기는 백문경의 고심어린 노력과 탐구 그리고 그의 온 넋이 바쳐진 야심작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의 기쁨이였으며 희망이였고 생활의 전부이기도 했다. 대차식착암기의 운명이자 기술자로서의 그자신의 운명이기도 했다.

그렇게 수년동안 애써 만든 창조물이 이런 운명에 처하다니. 백문경은 딥고 선 땅이 와그르르 무너지는것 같았다.

착암수들은 도입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가슴아프게 이야기했다.

《혹시 조립이 잘못됐나해서 얼마나 뜯었다 맞춘줄 압니까, 하지만 허사였지요.》

《흥덕광산 지배인동지는 부속품의 정밀도가 보장되지 않아 그런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더군요. 그래서 우린 또 이를탐이나 새워가며 하나하나 연마지로 닦고 애를 써왔습시다만...》

착암수들의 말을 보충하듯 광산기사장이 입에 주먹을 대고 헛기침을 하더니 끼어들었다.

《보시오, 설계원동무. 이 기계가 결코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살아나지 못한게 아닙니다. 이자 흥덕광산 지배인소리가 또 나왔는데 사실 그 사람도 이 기계를 살리자고 별의별 역사를 다 했습니다. 부속품의 재질이 나빠서 그렇지 않은가 하여 부속품을 새로 깎아 맞추는 놀음까지 했지요. 참 지금도 그날

밤 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기사장은 눈보라가 사납던 어느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날 흥덕광산 지배인 홍광부는 밤 10시경에 기사장실에 나타났다.

《아니?! 이 지독한 날씨에 여름모를 쓰고 나다니다니? 정신있나?》

기사장은 얼굴이 거머퍼렇게 죽어가지고 들어서는 홍광부의 모습을 놀라움에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일인가?》

《전화를 한통 걸어달라고 들렸네. 기사장이 전화를 하면 빨리 깎아주겠지.》

기사장은 홍광부의 일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졌다. 이제껏 적지 않은 노력도 들였고 갖은 고생도 다 해가며 손질했지만 대차식착암기가 살아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왜 저렇게 극성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기사장은 답답한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너무 걱정말라구. 내 이제 다 깎아서 래일중으로 올려보내도록 하겠네.… 그건 그렇고 여기 와서 몸이나 녹이랴구.》

그러나 홍광부는 현장에서 착암수들이 부속품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송수화기를 들어 그한테 내밀었다.

《자 이런…» 기사장은 할수 없어 전화를 걸고 나서 말을 이었다.

《참 성미도 학교때와 조금도 변함없군. 무슨 일이나 그렇게 급하게 내밀어서야 어떻게 지배인사업을 하나? 좀 여기와 다리쉽이나 하라구. 자넨 참 검질긴 사람이네. 이젠 그만해보았으면 알겠는데 그냥 고생을 사서 하거든.》

《고생이라니, 우리의 일인데.》

홍광부는 기사장을 향해 눈섭을 치켜들었다.

《우리의 일이라는건 나도 아네. 그러나 내가 보건대는 대차식착암기가 걸보기에는 비슷하네. 하지만 그제 제대로 돌아가자면 오랜 과학기술적토대와 역사가 있어야 돼.》

《흠, 자네는 국가적으로 모든걸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광산에서 좋은 설비들만 써버릇하더니 여기가 좀 달라졌구만.》

홍광부는 손가락을 갈구리처럼 구부러가지고 제 이마를 두드리었다.

《머리가 달라져 그런게 아니라 난 사실주의자구 현실주의자야. 안될걸 된다고 괜히 붙들고있어서야 생산밖에 지장받을게 있나. 우에다 사실대로 보고하여 실지 마력을 널 발전된 기계를 사들여오는게 낫지.》

《자넨 정말… 이 세상에 단번에 완성된 기계가

어디 있다구 그따위소리를 하나? 기술자가 돼가지구… 현장일꾼들이 다 자네같은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수 있겠나?》

《됐네, 됐어. 강연은 그만하라구. 대차식착암기를 설계한 사람이 자네 친척인지 모르긴 하겠네만.…»

홍광부는 어이없는 눈길로 기사장을 한동안 훑어지게 보았다. 그의 얼굴은 상대방에 대한 실망의 그늘로 점점 짙어갔다. 그는 호주머니를 더듬어 담배를 찾아내어 묵묵히 피우고나서 기사장자신은 완전히 잊어버리다싶이한 옛일을 끄집어냈다.

《여보게. 우리가 대학졸업실습을 하던 때의 일이 생각나나? 그때 우리는 이 광산에 와서 실습하면서 졸업론문을 준비했지. 그때 자네가 설계한 지주식착암기가 어떻게 성공되어 논문이 좋게 평가받았댔나? 한 나이있는 현장기사가 술한 반대를 물리치면서 끝까지 내밀고 도와주어 그렇게 되지 않았나. 난 지금도 그 기사가 하던 말을 잊지않네. 지주식착암기가 우리 식으로 된게 마음에 들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주고싶다구… 난 그래서 자네가 있는 여기에서만은 대차식착암기를 꼭 성공시키리라구 믿고 찾아왔던거네. 그런데 자네는…»

그리고는 기사장이 붙잡을새도 없이 훌쩍 밖으로 나갔는데 그는 그길로 공무원직장에 가서 세시간동안이나 기다려 부속품을 깎아가지고 한밤중에 채굴장으로 다시 올라갔다.

바위도 얼어터진다는 철산광산의 그 혹독한 추위를 양피단화를 신고 걸어올라갔으니 결국 발에 동상을 입을수밖에 없었다.

뒤이어 따라온 기사장이 홍광부의 발을 꺾꺾 눌러보더니 노여움에 차서 부르짖었다.

《여보게, 어찌면 이럴수가 있나? 그래 내가 부속품을 깎는 조직사업을 하지 않을줄 알고 이런일을 저지르나? 참 사람이, 친구를 믿지 못해도 분수가 있지.》

홍광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됐네, 됐어. 인차 낫겠지. 내 언발 걱정은 그만하고 저 대차식착암기를 살릴 방도나 생각해보게.》

기사장은 그자리에 더 앉아있을수가 없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말았다.

홍덕광산 지배인은 이렇게 갖은 애를 다 썼으나 끝내 성공시키지 못하고 기사장과의 관계도 어색하게 만든 속에서 발만 얼귀가지고 절뚝거리며 돌아갔다.…”

《얼마전까지 홍덕광산에서 대차식착암기를 불

들고 그냥 역사질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근간엔 소식이 통 없는것을 보면 아마 그도 이제는 맥을 놓은것 같습니다. 허참 그 대차식착암기때문에 우리 우정까지 상할번했지요. 허허.》

기사장은 말을 맺으며 쓰거운듯 입을 다시였다.

그의 말을 다 들은 백문경은 그만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 자기의 창조물을 살리려고 것처럼 애를 쓴 이 광산착암수들과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흥덕광산 지배인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정과 함께 그 어떤 죄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이제는 명백해졌다. 설계에 근본 잘못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인을 똑바로 알수 없는것이였다. 마치 불치의 환자를 앞에 놓은 의사의 심정처럼 근본원인도, 치료대책도 똑바로 세울수 없는것이였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대차식착암기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도 가질수 없게 되였다.

백문경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이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것 같은 환각을 느끼였다.

《어찌겠습니까. 기술이라는데 욕망만으로 다 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은 역시 오랜 력사와 토대가 있어야 하니 할수 없는 일이지요.》

백문경은 뜻밖의 비보에 접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기사장의 뒤를 따라 굴진경을 나왔다.

기사장은 백문경을 현장식당의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주방책임자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자 인차 닭알부침이며 이고장 특산인 싸리버섯채며 갖가지 푸짐한 반찬이 오른 상이 들어왔다. 기사장은 백문경에게 인간으로서 자기가 베풀수 있는것은 이것밖에 더 없다는듯 친절하 태도로 《이거 안됐습니다. 차리게 없어서.》 하고 말했다.

그러나 백문경은 몇순가락 뜨는척하다가 말했다.

헤여질 때 기사장은 마치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처럼 백문경을 바라왔다.

×

철산광산에서 돌아온 백문경은 그길로 설계연구소 소장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다. 문제가 명백해진것만큼 국가앞에 끼친 적지않은 재정적손실과 몇년동안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결국 아무것도 해놓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속이 떨렸지만 솔직히 다 말했다. 소장은 다른 말은 없고 대차식착암기가 국가적대량생산에 넘어가는것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문경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에 동의했다. 소장은 대차식착암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는 후일 다시 토론하자고 하면서 너무 근심말고 몸이 말이 아닌데 집에 들어가 며칠간 좀 쉬라고 권고하였다. 백문경은 몸을 겨우 가누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철산광산에 갈 때 찬비를 맞은데다 막장에서 흠뻑 땀을 흘렸고 돌아올 때까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할수가 없었다) 그는 며칠사이에 판 사람같이 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를 쳐다보던 안해는 《아니,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하구 기절한 소리를 지르면서 휘친거리는 그한테 울먹이며 다가왔다.

그날부터 백문경은 무서운 허탈상태에 빠져버렸다.

어느날 밤인가는 어딘지 알수 없는 황량한 버럭산우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백문경은 량옆에 아들과 딸을 껴안고 자기가 만든 대차식착암기의 신비한 작업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철이와 옥이는 아버지의 량무릎에 턱을 고이고서 눈을 반짝이며 재미나게 듣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츠럽고도 요란스러운 쇠불이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철산광산에 갔을 때 보았던 착암수 네명이 대차식착암기를 목고해 메고 와서 금방 버럭산에 내던지는 참이었다.

《웬일이요?!》

백문경은 너무도 놀라와서 급한 소리를 치며 달려갔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대차식착암기는 끝내...》 하고 말을 잇지 못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것이였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나?!》 백문경은 내버려진 대차식착암기에 몸을 덮으며 억이 막혀 부르짖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아버지, 웬일이세요?》하며 눈물이 그렇게 바라보았다. 백문경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원통스럽게 부르짖기만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목이 갈리어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백문경은 안타까움에 자기의 목을 잡아뜯었다. 그 순간 그는 꿈에서 깨여났다. 온몸이 축축히 젖어있었다.

결에 누워자던 안해가 불안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어찌된 일이에요? 자꾸 헛소리를 치는군요.》

《응?!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백문경은 몸을 반쯤 일으켜서 어슴푸레한 달빛속에 주련이 누워자는 식구들의 모습을 더듬었다.

철이와 옥이는 평화롭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있었다.

문득 백문경의 눈앞으로 작년 이맘때인가 대차식착암기의 설계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쁨을 안고온 가족과 함께 옥천강가에 나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옥천강은 즐거운 노래를 안고 해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강변에 늘어선 버드나무들은 기슭에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고있었다. 아이들도 안해가 밤새 준비해가지고 온 음식들을 먹고나서 아버지를 축하하여 노래를 불렀다. 저마끔 독창을 한다음 손을 잡고 2중창도 하였다.

버드나무숲속을 날아오르는 고운 새인양 은방울 굴리듯하는 청아한 자식들의 목소리가 강변우로 나래를 펴며 퍼져올랐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즐거움에 한껏 도취되어 백문경도 마지막에는 자기의 석집한 곁은 저음을 자식들의 목소리에 합치었다.

(아, 그때에 생활은 얼마나 즐거움에 넘쳐있었던가.)

그랬던것이 1년이 지난 오늘은 그 기쁨이 파도에 부딪친 모래섬처럼 산산이 부서져 가족들에게까지도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백문경은 후-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뚫은 식은땀을 씻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오후였다.

백문경은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 고민속에 잠겨 자리에 누워있는데 누구인가 그를 찾아왔다.

그 손님은 이 집이 설계원 백동무네 집이 맞는가 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보통기에 수수하게 생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백문경은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나앉아 그 손님을 맞이했다. 손님은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마치 자기 집에서처럼 스스럼없이 행동하였다.

《홍덕광산에서 왔습니다.》

백문경은 홍덕광산이라는 소리에 눈을 크게 뜨며 몸가짐을 다시하였다. 대차식착암기를 살펴보고자고 철산광산에까지 가서 그토록 애를 써준 지배인이 있는 광산, 그는 마치 그 지배인을 만나기라도 하듯 무릎을 꿇고 상반신을 반쯤 일으켜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손님의 얼굴을 여겨보다가 그만 낯을 돌려버리고말았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언제인가 설계실에 와서 백문경에게 불쾌한 인상만 남기고 갔던 사람이었다. 홍덕광산 어느 기술부서에서 일을 보는 사람인지.

그는 전에 만났을 때보다 수척해지고 얼굴에는 병색이 돌았다.

백문경의 신경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집까지 찾아왔는가. 무슨 일로? 왜서? 전번에는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물음을 던

졌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괴이한 물음을 안고 찾아온것인가?

그 사람은 방안을 휘- 둘러보더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열어놓은 미닫이문사이를 통해 방안벽에 세워놓은 책장을 눈여겨보았다.

《책이 많습니다.》

부러움에 찬 그 사람의 말이었다.

백문경은 전번에 부딪혔던 일도 있고 또 몸도 불편했지만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 처음부터 팽대할수 없어 시뚱해 앉아있었다.

《어디 편치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백문경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 그저 좀.》

백문경은 말하기 싫어서 적당히 얼버무리었다. 그리고 어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자리를 떠쳤으면 하는 기색을 보이였다.

《전번엔 안됐습니다. 사실 대차식착암기가 우리 실정에 잘 맞지 않는것 같아서 한 소리였는데 지나쳤는가 봅니다. 양해하십시오.》

그 사람은 허심하게 자기를 터놓으며 말했다. 그 사람한테서 별로 좋은 말을 기대하지 않았던 백문경은 뜻밖에도 헌헌한 태도로 양해를 구하며 나서는 그앞에 자신이 지나치게 쌀쌀한 표정을 짓고있는것 같이 느껴졌다.

《뭘... 이해할수 있습니다. 대차식착암기가 돌아가지 못하니 그랬겠지요... 하긴 다 제 탓인셈이지요.》

《어찌 설계원탓만이겠습니까. 다 우리 일인데...》

백문경은 그 사람의 말이 자신을 위안해주는것처럼 느껴져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더 말을 마시다. 끝장이 난것이나 다름없이 됐으니...》 하고 잘라버렸다.

《아니? 그럼 그만둔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눈섭을 치켜올리며 똑바로 백문경을 쳐다보았다.

《우리 광산에서는 당장 성공할수 있다고 보는데...》

《성공이요? 허허.》 백문경은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창밖의 먼곳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의 뇌리에는 홍덕광산 지배인의 생각이 떠올랐다. 철산광산에 가서 발까지 열구면서 갖은 고생을 했다더니 지금까지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내밀고있었던 말인가.

《광산에 내려가면 지배인동무와 그곳 노동자들에게 고맙다는 저의 인사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쓰지도 못할걸 만들어서 괜한 고생을 시켜 미안하

게 됐다더라고 말해주시요... 후-》

백문경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묵묵히 백문경을 바라보더니 낮으나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 설계원동무... 우린 설계원동무가 이럴줄 몰랐습니다. 우린 그래도 광산막장에 처음 새로운 대차식착암기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압니까? 현대적인 우리것이 나타났다고 막 환성을 울리며 끌어안고 돌아갔지요. 그래서 비록 애를 먹고있지만 기어코 성공시키자고 오늘까지 갖은 애를 다 쓰고있는데... 설계원동무...》

백문경은 새삼스럽게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저 광산기술부에서 일하는 한 보통사람으로 범상하게, 아니 피짜 시비군으로 여겼던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다. 특별한데 없이 수수하게 보이던 그의 얼굴에서 뽀얀피와 같은 따스한 열기가 흘러나오는것 같았다.

《글쎄 그렇게 말하니 고맙긴 합니다만...》

백문경은 자신없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무릎걸음으로 백문경에게 다가왔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쥐더니 마치 구면친구라도 되는듯이 흔들었다.

《글쎄 우리를 믿으시오. 방안에 이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우리 광산현장에 내려오시오. 이제 며칠 후에 그 대차식착암기를 성공시키겠으니 기어이 내려오십시오.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내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백문경은 너무도 절절히 말하는 사람에게 차마 그만두라는 말을 더 하기가 미안하여 《예.》 하고 적당히 대답을 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꼭 내려오시오.》 하고 당부하였다.

백문경은 앉은채 그 사람이 사라진 문을 멍하니 보다가 《허참》 하고 김빠진 소리를 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큰 기계공장 못지 않은 공무기지를 가지고있는 철산광산에서도 해결하지 못한것을 흥덕광산같이 자그마한데서 무슨 용빼는 재간이 있어 성공시킬수 있단말인가?

그런데 그로부터 몇시간후였다. 설계연구소에서 소장이 백문경을 찾는다는데것이였다.

백문경은 누웠던 자리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연구소에서 드디어 결정을 지은 모양이군.)

그가 옷을 찾아 입자 안해며 아이들이 그를 근심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았다.

백문경이 저고리 단추를 다 채웠을 때 딸 옥이가 다른 구멍에 채워진 단추를 바로잡아주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설계연구소 소장의 방이 있

는 2층계단을 밟아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섰는지 몰랐다.

기다리고있든듯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로 나오며 그를 맞아주었다. 그는 의자도 권하고 아픈것은 좀 어떤가고 걱정스레 묻기까지 했다.

백문경은 소장이 여느때없이 친절하게 구는것이 아마 대차식착암기문제를 완전히 중단하자는 말을 때기가 힘들어서 그러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손에 땀을 쥐고 초조히 기다렸다. 그런데 소장은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면서 뜻밖의 말을 했다.

《문경 동무, 대차식착암기가 빛을 볼것 같구만.》

《?...》

문경은 소장의 말에 눈을 슴뻛이였다.

《허허.》

소장은 소리내여 웃었다.

《귀인을 몰라보고 푸대접한게 아니요? 그 흥덕광산 지배인동무는 대차식착암기가 꼭 살아날수있다고 합니다.》

《예?!》

백문경은 저도 모르게 놀란 소리를 터치며 지레대에 들리운듯 벌떡 일어섰다.

《그가 흥덕광산 지배인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걸 몰랐습니까?》

《아-》

백문경은 갑자기 다리를 후려맞은듯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었다. 그랬다가 다시 충격적으로 일어섰다.

《그 지배인동무가 어디 있습니까?》

《치료받으러 도병원으로 가던 길에 일부러 여기에 들렀습니다. 설계원동무를 만나보겠다고... 자기네 광산에서 대차식착암기 시운전을 인차 또 하는데 설계원동무를 꼭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섯시 반차에 떠나겠다고 하던데 아마 역에 나갔을겁니다.》

백문경은 시계를 보았다. 차가 떠날 시간까지 이제 십오분이 남았다. 백문경은 정신없이 역으로 내달렸다. 불편한 몸이었으나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숨이 턱에 닿고 목에서는 겨불내가 났으나 그는 역까지 그냥 달려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 그를 보았다. 그렇게 달려갔으나 백문경이 역구내에 들어섰을 때는 열차원들의 호각소리가 려이어 귀따갑게 울리고 발차를 알리는 봉- 하는 기적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백문경은 향방없이 이쪽저쪽의 열차창문을 들여다보며 내달렸다. 그러나 벌써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열차속에서 지배인의 모습을 찾아낸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열차를 따라 마지막까지 달리다가 끝내는 망연자실하여 서버렸다. 열차의 마지막 꼬리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으나 백문경은 이윽도록 그렇게 서있었다.

(아, 참, 그렇게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이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을수 있단말인가.)

백문경은 소장방에서처럼 다시금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잡았다.

×

백문경은 더는 지체할수 없었다. 그는 한달음에 홍덕광산으로 찾아갔다. 대차식착암기의 성공을 믿어서라기보다 홍덕광산 지배인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고 갔다. 안해가 편치 않은 그의 몸을 걱정하여 만류하는것을 단호히 뿌리쳤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광산기술부기사가장이었다. 그는 젊음이 넘쳐나는 사십대의 사람이었다. 첫눈에 벌써 시원시원해보이는 그는 《채굴기계설계연구소에서 떠났다는 전화를 받고 기다리던참입니다.》 하며 마치 구면인듯 스스럼없이 백문경의 손을 꼭 잡으며 힘있게 흔들었다. 무엇인가 이 광산에서는 활기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눈을 번쩍이며 활발히 움직이는 부기사장의 행동이며 어디론가 급히 반달음을 놓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사방에 나뭇은 숙보판에 찍혀진 감탄부호들이며가... 그 어떤 침체를 모르는 기백이 흐르는듯했다.

기술부기사는 방금전의 그 시원시원한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게 얼굴에 침중한 기색을 지으며 백문경에게 말했다.

《우리 지배인동무가 찾아갔지요? 설계원동무를 대차식착암기의 마지막시험착암에 꼭 참가시키겠다고 하시던데... 지배인동무는 대차식착암기가 살아날수 있는 마지막 대책까지 다 세워놓고 떠났지요. 그러다보니 병이 더욱 악화된것 같습니다. 대차식착암기때문에 치료까지 미루다보니 아무래도... 참 좋은분인데... 몸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어디 편찮기에?!》

《후-》 기사장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백문경의 동의도 기다리지 않고 《갱으로 들어가봅시다.》 하며 앞장서 갱으로 향하였다.

백문경은 자기때문에 지배인의 병이 더욱 악화된것 같은 죄책감으로 하여 가슴이 죄여들었다.

그는 지배인에 대한 착잡해지는 마음을 누르지 못하면서 부기사장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갱도에 들어서자 차고 습한 공기가 확 얼굴에 끼쳐들었다. 갱안을 따라 들어갈수록 거대한 벌떼의 울부짖음소리같은 웅웅 하는 압축기의 소리가 둔중하게 울리었다.

막장이 가까워지자 무엇인가 빠른 속도로 잡아두

드리는데 같은 둔탁한 타격소리가 더욱 요란스럽게 울려왔다.

그들의 눈앞에 암반천정에 걸어놓은 너댓개의 안전등과 그 불빛속에서 얼른거리는 사람들의 형체가 보이였다. 두명의 착암수들이 앞벽에 설치된 두대의 대차식착암기로 한창 구멍을 뚫고있는중이였다.

백문경에게는 어느때없이 그 착암기소리가 요란스럽고 세차게 들려왔다. 마치 그 소리는 중기관총 소리마냥 다기차게 울리었다. 그런데 백문경을 얼떨떨하게 한것은 착암기를 운전하는 두명의 착암수들 주위에 서있던 너더댓명의 로동자들이 별안간 서로 부둥켜안고 빙빙 돌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깨를 으쓱으쓱 들먹이며 분명 무슨 춤에 가까운 동작을 하는것이였다.

(왜들 저렇게 좋아하는가? 혹시 대차식착암기가 제대로 돌아가는것이 아닌가?!)

착암수들쪽으로 먼저 달려간 기술부기사가 한 착암수와 머리를 맞대고 뭐라뭐라 손짓하며 말을 주고받더니 백문경을 향해 빨리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였다. 백문경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기술부기사는 착암기소리때문에 백문경의 귀에 대고 웨치듯 말했다.

《완전히 살아난것 같습니다!》

백문경은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채 깨닫지 못하여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가 가리키는 착암기를 바라보기도 했다.

대차식착암기는 세차게 돌아가며 암반을 뚫고있었다. 백문경은 비로소 기사장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때문에 젊은 착암수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갔는지를 알았다.

백문경은 급히 대차식착암기에 다가가서 암반을 향해 무섭게 뚫고들어가는 거세찬 동음에 귀를 강구기도 하고 기계의 작업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적지 않게 흘렀으나 거세찬 동음은 멈춤없이 울리였으며 기계의 동작상태도 여전히 정상이였다. 건강한 사람의 팔과 다리처럼 모든 기계의 마디들과 팔들이 원활하고 자유스럽게 움직였고 작업기관의 음향도 역시 고르롭고 세차다.

(아,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던 그 음향과 그 작업 모습인가!)

백문경은 저도 모르게 대차식착암기에 다가서서 여기저기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 어떤 격정으로 하여 그만 와락 기계를 끌어안으며 그우에 가슴을 덮었다.

(아, 다 죽었다던 네가 어떻게 되여 이 자그마한 광산막장에서 살아났단 말이나?!)

죽었던 아들을 만난듯 그는 달려들어 착암기를 쓸어만지고 또 만지였다.

한순간 그의 눈앞에는 대차식착암기를 위해 바친 온갖 고심어린 노력과 그리고 불안스러웠고 절망에 찼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는 착암수들이 곁에서 바라보는것도 개의치 않고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기술부기사장은 그러한 백문경을 보자 슬그머니 돌아섰고 착암수들의 눈에도 물기가 번뜩이었다.

얼마후 백문경은 착암기에서 물러났다. 그는 주변에 물러선 착암수들을 보며 《고맙소!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흔들었다.

마지막으로 기술부기사장에게 다가서며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그는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인사는 우리 지배인동지한테 하십시오. 이 기계를 살리려고 밤을 지새워가며 과학기술 문헌들을 얼마나 뒤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설계가가 외국기술문헌을 많이 참고한것 같다고하면서... 이 대차식착암기의 근본결합의 원인을 발견한 건 지배인동무입니다. 설계원동무는 다른 나라의 기름과 우리 나라의 기름점성결수를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점성결수가 서로 다른데 설계원동무는 기계의 기름구멍 직경을 우리 나라의 기름을 쓰는것으로 설계하지 못했더군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던것입니다.》

《아!》

백문경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다. 그는 갑자기 현기증을 만난 사람처럼 눈앞이 어질거려서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광산지배인이 설계실에 찾아와서 대차식착암기를 순수 자기 머리로 창안한것인가고 묻던 말이 강하게 뇌리를 때렸다.

동시에 어느 나라에서 쓰기 위해 설계했는가고 묻던 말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다.

(아, 지배인동무는 대차식착암기가 돌아가지 않는 원인을 찾기 위해 그렇게 물어본것이 아니었던가. 그때 내가 진작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는 별치 않는 그 기름구멍때문에 그토록 고생하고 나중에는 절망의 구렁텅이속에서 헤매였던 자신이 한없이 저주롭게 생각되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치감과 혐오감으로 하여 머리를 막 짓쫓고싶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듯 천천히 머리를 쳐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우리 식으로 살아나갈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이 뇌리를 세차게 울리었던것이다.

한없는 송구감과 죄스러움에 심장이 옥죄여들었다. 대차식착암기가 우리것이 되지 못한 근본원인

은 자신의 단순한 실수나 계산상 착오때문이 아니었다!

이 광산지배인과 같은 일군들과 우리 로동계급의 힘을 심장으로 믿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의거하지 않은데 있었다. 그들을 믿고 설계단계로부터 그들속에서 살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것인가. 아, 지배인이 처음 찾아와서 지적해줄 때에 정신을 차렸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끌며 진통을 겪지 않았을것을... 그랬으니 내가 우리의 기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설계한것이 아닌가.

백문경은 대차식착암기를 만들면서 자신의 근본립장과 관점이 바로 서있지 못했던 사상적근원을 놓고 심각히 자기를 돌이켜보았다.

그는 머리를 지수긋하니 숙인채 한동안 까딱도 않고 앉아있었다.

×

홍덕광산에 갔다온 백문경은 그길로 곧 도병원을 찾아갔다.

홍덕광산 지배인은 병원뒤울안의 정자나무밑에 놓인 의자에 웬 사람과 나란히 앉아있었다. 철산광산 기사장이었다. 도에 회의를 왔던 길에 지배인을 찾은 그였다.

지배인은 인기척소리에 머리를 돌리다가 바로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백문경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마주 다가서며 부딪치는 눈길들, 그 눈길들에서 번쩍이는 광채들, 들먹이는 가슴들, 푸들거리는 입술들...

백문경은 엎어질듯 앞으로 내달려가서 지배인의 두손을 부여잡고는 오열을 터치었다.

《이 죄많은 사람을 욕하십시오. 이 눈먼 사람때문에 지배인동무가...》

백문경은 병색이 짙은 지배인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동상을 당한 발이며 건강에 대한 말을 차마 물을수가 없었다.

이때 지배인옆에 서있던 철산광산 기사장이 슬며시 백문경의 손을 잡았다.

《용서하십시오. 나같은 사람때문에 지배인도 이렇게 됐구 대차식착암기와 설계원동무...》

하며 머리를 떨구었다.

얼마후 백문경과 철산광산 기사장은 병원을 떠났다. 지배인은 백문경이 것처럼 만류했던만 병원앞길까지 따라나왔다.

그는 손을 흔들면서 벌어져가는 백문경일행을 바라왔다.

백문경이 얼마를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지배인은 여전히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조각상처럼 손을 들고 서있었다.

고향과 사랑

리영삼

덕우에서

방목지 덕우에
봄이 한창이구나
밀둥 굵은 배나무사이
고삐없는 소떼 풀을 뜯는구나

건듯 부는 바람
향기에 취하겠구나
이마에 땀 더우니
어깨우의 중태기 벗어놓고
낮익은 마을을 바라본다

벽촌의 개인 하늘
화장한 얼굴같이 뽀얗구나
오붓하게 모여앉은 기와집
흰 담장너머 창문마다
봄빛이 웃는구나

마늘잎 파란 마당가에
련결차 긴 프락프르 물고

농립모 눌러쓴 리당비서
읍으로 비료운반 가는구나

부지깡이도 뛰는 계절
내 노래에도 봄은 찾아왔구나
나날이 향기를 안고 오는 농촌테제의 빛발이
나를 껴안고 속삭이는 들판에서
배부른 소들의 영각소리 나를 반기는구나

길가에 누런 보리이삭 설레는 소리마저
가슴에 더해주는 진한 향취여
마음 다해 껴안고싶어지는
참된 사랑의 정 새롭구나

단 한번만이라도
이 땅을 딛고 서서 이런 뜻 못느낀다면
설혹 한두가지 일에 착실할수 있어도
피속에 스민것 없이야
무엇을 더 바칠수 있으랴

무엇을 더 바라랴

정든 내 고향아
내 너를 두고
언제나 그 언제나
새 노래만을 부르고싶구나
심장의 피로 지은 노래

너는 벼잎소리같이
중다리소리같이
견딜수 없게 마음 흔드는구나

보습을 기다리는 늘 한꼴
야산에 진달래 한창이구나
너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생명의 빛줄기가 있구나

나는 눈여겨본다
테두리에 분홍색 레스를 단 구름
흰 옷자락 감추지 못한채
내 눈길 피하듯 재빨리 달려가고
메마르게 보이는 등성이마다
분수비 달게 내리누나

할아버지만큼 나이든 버드나무
우물가에 칠칠이 푸른 머리 땀늘이고
또다시 누군가의 고백을 기다리누나
숨같은 꽃을 바람에 날리누나

부드러운 품에 나를 껴안아주는
이 모든 아름다움은 얼마나 좋아
어린 시절부터 다정히 느껴온것이,
하기에 내 노래는
공상없는 그림이라네

붓으로가 아니라
넋으로 채색한,
내 어머니 얼굴처럼 인심좋은,

내 어느때든 진정을 터놓지 못한다면
피는 멀겁기때문
쌀뜨물같이 멀겁기때문
허나 나는 달리는 뿔수 없는
이 땅의 살불이가 아닌가

이 땅에 정이 들수록
나는 사랑스럽다
둥지를 틀려고

강가에서 감탕과 짚오래기를 쫓는 제비가
씨암닭의 품에 파고드는 병아리들이

나는 안해의 어깨우에 손을 얹는다

고향아 내 너를 두고
간절히 바란것 많건만
내 한생에 실현하기 어렵구나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너의 전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너는 많은 말 나에게 하고
초봄 부는 바람타고
하늘높이 나는 기러기의
울음소리 정답고 귀중하구나

너의 흠냄새 구수해
역으로 가는 길에
가로수 싱싱하고
그 길 따라 떠나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 더 많아 좋구나

내 친구들과 적게 말하고
적게 행동하건만
너의 앵두열매 따먹으며
새들의 지저귐에 귀기울이면
말마디 길고 수다스럽구나

내 이 땅에서 가꾼 낱알을 먹고
이 땅에 흐르는 물을 마셨기에
뼈속에 이 땅의 흙이 굳어있고
피속에 이 땅의 녀이 살아
내 너를 버리면 시들고말리라
눈동자 꺼지고 심장마저 식으리라
내 죽는것 무섭지 않지만
내 너를 잃는건 정말 무섭구나

내 이 땅의 모든것 받아들이고
이 땅의 모든것을 사랑함은
이때문이어라
부끄럼없이 생의 마감까지
가슴에 너를 안고 노래부를
사랑에 빠져버린 고향의 이 들길

해 저물어
모두들 집으로 돌아오누나
명랑한 논물소리 뒤에 남기고
나는 안해의 어깨우에 손을 얹는다
나를 찾아 조용히 나온
살뜰한 그 어깨우에

겨울의 막내아

눈바람아 이 장난꾸러기야
너도 이젠 제발 셈이 들렘
벌써 우수경칩이 지났으니
들뛰는 시내물이 널 부른다

이제 두밤만 자고나면
나도 스물일곱해를 사는구나
4월초하루는 내 생일날
섭섭고개 넘어 영미를 청하련다

고운 딸 두고 코가 높아진 덕칠령감
기분 잡치지 않게 몰래 불러낼테다
멀쩡한녀석이 처녀꿈무니 따라다닌다
된욕을 퍼부어도

그것이 글썽 파란천에
국화꽃 수놓아 날 주겠지
첫씨불임 한날 저녁

남몰래 내 손에 쥐여주겠지

그래서 난 행복하단다
오늘 저녁에도 엷은을 입고 찾아오면
숨저고리 벗어 썩워줄테다
내 사랑 얼마나 화끈한지 보여줄테다

어허 눈바람아 겨울의 막내아
맹세코 말한다만 앞을 가리지 말아
제 손금같이 환한 이 고향길에서
내 프락또르 몰고몰아도
빨리만 달려가고싶구나

나날이 커가는 기계화의 위력으로
우리 생활 얼마나 억세고 생동한가
덕칠령감 어찌 고저찌고해도
내 가슴은 날마다 노래로 가득찼다

언덕길

내 어린 시절
돌을 차 굴리었던 언덕길
좁은 언덕길
깜장강아지
실끝에 흔들리는 봉어를 훑쳐보며
뒤따르던 길

대 학공부 마친 우리 선생님
쌍태머리 우리 선생님
좁은 치마 입고 찾아온 길
그날 나는 맨발에
짧은 바지 입었더라

더벅머리 만져주며
환히 웃던 그 얼굴 못잊어라
손잡고 함께 걸은 언덕길
지금도 기억에 서막하던 일
그가 내 선생일줄이야

어느날
대학입학통지서 받은 분희

춤추며 달려간 언덕길
돌아오길 기다리던 언덕길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큰길 열리고 철길 뻗어
내 어린 시절과 함께
가슴속에 남은 좁은 언덕길

빠스에 앉아 손을 씻는
희망 큰 저 아이들에게
조국은 포장길을 닦아주었구나
돌부리와 함께 사라진 언덕길
잘 가거라 잘 가거라

내가 옮겨준 첫걸음
나이와 함께 멀어진 첫걸음
가슴은 오늘도 너와 함께 뽀뽀한다
짧은 바지 입고 뽀뽀한다
내 양복 입고 넥타이 매였어도
맨발로 뽀뽀하는 고향의 언덕길

나는 청춘으로 산다

조형환

사람들은
나에게 묻더라

이마에 주름 하나 없고
머리에 흰오리 하나 없는데
벌써 환갑나이 사실인가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도리질을 하고
꽃나이 처녀들도
거짓말이라고 깔깔대며...

직장엘 나가도
동네사람들을 만나도
늙지를 앓는다고
누구나 스스럼없이 묻는 이 말

아, 무심히 들을수 없구나
그 옛날 같으면
조상대대로 지지리 못살아온
우리 가문에
환갑을 넘긴이 있었던가

꿈만 같아라
내 한생 살아오며
시련의 고비도 수없이 넘고
인생을 고지식하게 산 사람
내 나이를 속여선 무엇하랴

환갑나이건만
지금도
락동강전투때처럼
아득히 높은 철탑우에서
수리개처럼 날으는 연공

당을 받드는 충성심엔
변함이 없어
오늘도
우리 당이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으로 일하며 살고있는 사람

우리 당
우리 수령님
베푸신 정치가 좋아서
젊음을 안고
활력에 넘쳐
내 이제야 마음속 진정을 터치나
니

우리 수령님 베푸시는
그 사랑속에
이 땅에선
고목에도 꽃이 피고
늙은이도 젊어져
나는 청춘으로 산다고

《모든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그대로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까.》

김정일

실화문학

부래산의 복무자

방정강

렬차는 고원역을 지나 부래산역으로 서서히 들어섰다. 나는 서둘러 렬차에서 내렸다. 우리 당에서 아끼는 광부들의 생활을 윤곽하게 쫓아줘주어 일전에 로동신문과 텔레비존에 크게 소개된 부래산광산의 초급당비서 김계중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취재길에 오른 나의 가슴은 사뭇 흥분으로 높뛰었다. 한낮의 햇빛은 따갑게 내려비치고있었다. 역을 나서니 부래산의 푸른 산봉우리며 희속희속한 석회석채굴장들이 한눈에 바라보이였다. 둔중한 발파소리가 광산의 세간 숨결처럼 들려왔다.

어떤 일꾼일까? 《우리 당비서》, 《어머니당일군》으로 광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김계중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광산초급당위원회는 부래산 맞은편의 낮으막한 산기슭에 있었지만 역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당비서를 찾아가니 그는 아침차로 도당전원회의에 가고 없었다. 지배인도 자리에 없었다. 나이 선고개를 넘어보이는 한 일꾼이 반겨맞아주었다. 그는 기술과장 안철우였다. 당비서를 만나지 못해 초조해하는 나의 얼굴기색을 보고 그는 말하였다.

《아마 우리 당비서동지를 만나서는 이야기를 들을수 없을겁니다. 기자들이 올 때마다 매번 다 아래 일꾼들을 내세워주었지요. 이번엔 우리가 당비서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하여 나는 당비서를 만나서는 도저히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다.

새로 온 당비서

그것은 10년전 어느 초가을날 아침이였다.

안철우(그때는 기술과 지도원이였다)는 지난밤 안해의 지청구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새로 온 당비서 김계중의 방에 들어섰다.

《비서동지! 전 물이 좋은 고향으로 가야 할가봅니다. 나도 물이 맞지 않아 고생을 좀 하지만 더우기는 자식들때문에... 어제 인민군대 신체검사에서 둘째녀석이 불합격됐습니다.》

안철우는 자기 말을 납득시키려는듯 손에 들고온 아들의 병력서를 당비서의 책상우에 밀어놓았다. 귀가엔 그냥 안해의 푸념이 들려왔다.

(새로 온 당비서동지를 찾아가보시라요. 룡양광

산 광부였대요. 광산사람들의 하정을 잘 알게 아니나요. 여기서 못살아요.)

당비서는 심중한 낯색을 지으며 병력서를 보고 나서 책상우에 놓는것이였다. 만성소화불량증이였다. 부래산병원 내과의사 허창일의 수표가 그의 코앞선 얼굴처럼 두드러져있었다. 석회암반지대인 광산에서 음료수문제가 골치거리라고들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줄은 몰랐다.

당비서는 우선우선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물때문에 가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는 광산에서...》

안철우는 한숨을 후- 하고 길게 내쉬었다. 당비서는 탁상일력에 《물》, 《H₂O》 하고 화학기호까지 쓰고있었다. 그는 말없이 창가로 걸어갔다 돌아서며 철우를 쳐다보는것이였다.

《그것 참 안됐습니다. 애가 물타으로 병을 만나... 우리 일꾼들의 책임이 큼니다. 알겠습니까.》

안철우는 당비서의 너그러운 말에 마음이 끌리였다. 그는 병력서를 손에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당비서의 방을 나섰다.

그 며칠후 저녁이였다. 내과의사 허창일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집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가방에서 술한 약들을 꺼내놓는것이였다. 안철우는 영문을 몰라 눈만 꿈벅거리였다.

《아니 의사선생이 어떻게?》

《내 당비서동지한테서 애길 들었습니다. 비서동진 어제 우리 병원에 와서 이 집 둘째의 치료대책도 우리와 의논했습니다.》

《네? 당비서동지가요?》

《그렇습니다. 당비서동지는 우리 광산 광부들이며 가족들의 병력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 물을 끌어와야겠다고 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안철우의 얼굴은 모닥불을 들 쓴것처럼 뜨거워졌다. 안해도 약품들을 손에 들고 몸둘바를 몰라했다. 허창일은 안철우의 얼굴을 안타깝게 쳐다보는것이였다.

《기술일꾼인 동무가 광산을 떠나려고 하다니... 우리 힘을 합쳐 당비서동지를 따라나섭시다.》

허창일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광산에 수도화지휘부가 조직되였다. 안철우는 앉

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는 당비서를 찾아갔다. 김계중은 그를 따듯이 맞아주었고 수도화지회 부 성원으로 받아주었다.

《허허… 이거 안철우동무까지 나서겠다니 마음 놓입니다. 산세를 잘 아는 동무가 한번 앞서보시오.》

당비서는 그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는것이였다.

새로운 물원천을 찾아 그들은 곧 길을 떠났다.

안철우는 허창일과 함께 당비서 김계중의 뒤를 따라 연사흘째 부래산아근의 골짜기를 참빗처럼 훑었다. 염촌동 골안에서 샘을 찾았으나 물량이 적어 다시 떠났다. 부래산줄기를 내려 락천리방향으로 걸었다. 한 오리 남짓이 걸어 평퍼짐한곳에 이르니 외판집 한채가 있었다. 토기와를 인 4간량통의 덩실한 집에는 80이 되어가는 로인내외가 살고있었다. 살구나무아래에서 땀을 들이며 박우물의 물 한 쪽바가지씩 마시었는데 물맛이 유별나게 감미롭고 시원했다. 안철우는 할머니에게 세사람이 길을 떠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다.

《원… 광부들을 위해설랑 당비서어르신네가 샘물을 찾아다니다니, 제 부모, 제 동생의 눈을 띄워 주려 보약샘을 찾아 떠났다는 옛말은 들었지만서두 광부들에게 약샘물을 주려 찾아다니는 애긴 처음 듣네, 처음 들어. 저기 보약샘물이 있네. 도라지랑 단너삼이랑 약초뿌리들이 흘러내린 샘물이말이네.》

할머니는 못내 감심하며 보약샘물을 가리켜주었다. 약샘은 박우물샘줄기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 있었다. 세사람은 환성을 올렸다. 그것은 자연샘이였다. 허창일이 물분석을 하니 순도가 대단히 좋았다. 안철우는 그 다음날 김계중을 따라 도수문탐사대를 찾아가 물탐사를 의뢰했다. 탐사대원들이 부래산을 넘어 락천샘에 와서 30미터의 깊이로 3개의 물구멍을 뚫었다. 샘물이 팔팔 분수처럼 솟아나왔다. 물맛은 소문난 함흥시의 수도물맛과 같았다. 난관은 20여리밖에서 물을 끌어오는 대공사였다.

8.5키로메터!

부래산이 절레절레 머리를 흔드는듯하였다.

당비서의 눈빛에 영채가 돌아왔다.

《철우동무, 좋은 수가 있소. 갡으로 관을 뽑읍시다. 저 산입구엔 폐갱자리도 있지 않소. 수직갱을 뚫으면 우리 광산 갡도와 관통되여…》

눈들이 마주치며 번쩍이였다. 안철우는 허창일과 함께 또다시 환성을 올렸다.

《비서동진 어찌면 그런 기발한 착상을… 될수 있습니다.》

당비서는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물을 한사코 끌어가려는 사람에겐 자연도 그 비밀을 대주는 법이요!》

그의 말이 미더웠다. 수도공사는 곧 시작되였다. 온 광산종업원이 떨쳐나 관을 늘일 구멍이를 뚫다.

지배인 김해관이 석관이며 비닐관들을 얻어들인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그 이듬해 2월부터 공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언땅을 곡괭이로 파내고 관들을 맞추어 늘이였다. 600미터의 수직굴을 뚫고 광산갡도와 관통시켰다. 3단양수장도 놓았다.

그해 7월의 어느날이였다. 새 수도물은 락천리샘터에서 부래산을 넘어와 집집마다 팔팔 소리를 내며 흘러들었다.

새로 온 당비서 김계중은 끝끝내 새 보약샘물을 광부들에게 안겨주었다. 명절처럼 온 부래산광산이 들끓던 그날 내과의사 허창일의 눈에서는 맑은 이슬이 흘러내렸다. 그는 몇번이고 안경을 벗었다가끼었다 하며 수도물을 보고있었다.

물로 인한 질환에 종지부를 찍은것이였다.

안철우는 물 한사발 꿀꺽꿀꺽 들이키고나서 당비서에게 용서를 빌었다.

《비서동지, 제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는 말을 입밖에 꺼내겠습니까. 내 아들딸들도 자자손손 부래산에 뿌리를 내리며 살게 하겠습니까.》

당비서는 사람 좋은 얼굴에 너그러운 웃음을 지었다.

《허허… 이제라도 정 가려면 가시오. 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절절 웃었다.

광부들은 이구동성으로 당비서의 수고에 대해 말하였다.

당비서는 그러는 광부들을 정어린 눈길로 둘러보며 말하였다.

《그 인사는 내가 받아야 할 인사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우리 광부들을 사랑하며 아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모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 온 당비서의 말은 끝없이 사랑스러웠다.

뒤에 선 모습

진분홍 저녁노을이 부래산 하늘가에 물들고있었다. 기술과장 안철우는 고기를 많이 내여 광부들의 사랑을 받는 《부래산의 〈정춘실〉》인 로동보호물자공급소 소장 김순월에게 나를 소개하였다. 어미돼지가 옥실거리는 돼지목장에서 나는 위생복을 입고 사양공들과 함께 밀차를 밀며 구유마다 김이 문문 나는 저녁물을 주는 김순월을 만났다.

텔레비죤에서도 몇번 보고 《로동신문》에도 사진이 나 그는 낯이 익었다.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다 우리 당비서동지가 도와주었지요. 우리 당비서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너인은 진정으로 부탁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과연 김계중은 어떤 사람인가? 점점 그에게 마음 끌렸다. 우리는 사료분쇄기소리가 고

르롭게 울려오는 목장사무실에 나란히 앉았다. 김순월은 크지 않은 키에 몸매가 다부진 녀성이었다. 선연섯살나이에 비해 그의 목소리는 쟁쟁했다.

《아마도 내 일신상의 문제부터 얘기해야 할가 봅니다.》

녀인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다. 로보공급물자를 받으러 자동차를 타고 신포로 떠나야 하는 김순월의 마음은 무거웠다. 광산 자재지도원인 남편 주종규의 신상에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망설이는 그를 보고 남편은 엄하게 질책했다.

《어서 떠나오. 빨리 가서 받아다 광부들에게 공급해야 하지 않겠소. 내 걱정은 마오. 내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소. 어서...》

《...》

녀인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신포에서 이들을 묵었지만 영양제물고기와 기름을 채 받지 못하였다. 수산사업소 부두에서 배를 기다리며 서있던 순월은 낮 두어시경에 이르러 등뒤에서 자기를 다급히 부르는 귀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김순월소장동무!》

《네?!》

뒤돌아보니 김계중비서가 장승처럼 서있었다.

《순월동무, 얼마나 수고하오?》

《아니 비서동지가 어떻게?》

순월은 깜짝 놀랐다. 늘 웃음이 어리던 그의 얼굴이 굳어져있었다. 녀인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듯하였다.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마쳐왔다.

《순월동무, 여기 일은 내게 맡기고 어서 남편을 타고 집에...》

당비서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비서동지, 우리 철남 아버지께 제가 물고기랑 간유랑 싣고가야...》

녀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이젠 우리 조급당위원들의 한결같은 권고요. 동무를 데려올 사람은 나밖에 없을것 같아 내가 왔소. 그래 내 말을 안들겠소?!》

《비서동지, 전 그 말만은...》

음성을 높여도 소용이 없었다. 하여 그날저녁 물자를 보채며 반가가지고 그들은 함께 떠났다.

계중은 굳이 앉지 않으려는 순월을 등을 마구 밀어 운전칸에 앉히었다. 그는 적체함에 가마니를 깔고 앉았다. 오던 도중 차고장으로 계중이 20리를 걸어가 차부속을 얻어가지고 왔다. 그러다보니 그 다음날 저녁무렵에야 그들은 부래산에 당도하였다.

그의 남편 주종규는 오랜 기간 앓아온 불치의 병으로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다.

《받아왔다니... 마음 놓이요. 부탁은 상업일군일수록 리기가 없어야 하오. 신발 한켠레라도 공

것은 집에 얼씬 들여놓지 마오... 광부들을 위해 일 많이...》

그의 남편은 갔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순간에 까지 김순월에게 상업일군의 자세를 깨우쳐주었다.

김순월은 당비서의 인정미에 매혹되었다. 당비서를 따라서라면 깊은 밤 수백리길도 따라서고싶었다.

어느날 그는 당비서를 찾아갔다.

《비서동지,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광부들에게 비행사와 같은 대우를 해줄데 대해서 하신 말씀을 나는 아직...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김순월은 의자를 끄당겨놓으며 앉았다. 당비서의 책상우엔 광물학이며 축산학, 작물학서적들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순월동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누어봅시다. 나도 요즈음은 온통 그 궁리를 하며 책들도 보고있소.》

김순월은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광포오리목장에서 오리를 받아다가 광부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나라에 손을 내밀지 말고 우리 손으로 돼지를 길러 광부들에게 영양제를 줍시다. 비서동지, 그 당적분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김순월은 자기의 굳은 결의를 담담히 피력하였다. 당비서는 웃을 때면 두눈썹이 좁혀지며 맞붙군하는데 그럴 때면 그의 티없는 속마음이 들여다보이었다.

《순월동무, 좋은 제기요. 그럼 동무와 내가 그 당적분공을 함께 받읍시다!》

《네? 비서동지가 어떻게 돼지를...》

《나도 부래산광산의 한 당원이 아닙니까. 순월동무가 앞장서고 내가 뒤에서 밀어주면 안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비서동지!》

김순월의 얼굴에서 불끈육이 푸들푸들 뛰었다.

《자, 그럼 우리 래일 구체적인 안을 놓고 토의합시다. 통이 크게 한번 설계해보십시오.》

김계중은 김순월을 문밖 멀리까지 배래워주었다.

순월의 마음은 마냥 높뛰었다. 그는 다음날 저녁 당비서를 찾아갔다. 그는 온밤 풀린 생각을 모아 종이우에 아직은 《설계도》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의 연필화같은것을 당비서의 책상우에 퍼놓았다. 돼지종축장이며 원료기지의 발들이 오불꼬불한 산 등고선을 따라 그려져있었다. 계중은 이윽도록 그 《설계도》를 들여다보다가 붉은색 원주필로 자기가 타산한 수자들을 큼직이 덧써놓았다. 녀인의 눈이 화등잔이 되었다. 돼지종축장은 2배로, 년산고기생산량은 3배로, 원료기지발은 30정보로 목표가 엄청나게 세워진 것이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비서의 천연스러운 물음에 김순월은 입을 형하니 벌리었다.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그가 가필한 수자들에서는 벌써 꿀꿀거리는 어미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두세이삭씩을 엮고 푸른 잎을 바람결에 흔드는 강냉이밭의 전경이 눈에 보이는듯했다.

그 며칠후 김계중은 초급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발파소리가 드릉드릉 창문을 흔들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후방공급기지를 꾸리고 광부들에게 고기, 물고기, 알을 넉넉히 공급할데 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내걸었다. 토론들이 일어났다. 사료문제에 가서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김계중은 자기 책상위에 가독나무잎을 한단 올려놓는것이였다. 순월은 깜짝 놀랐다. 산에 가서 당비서가 가독나무잎을 따온것이였다. 그는 가독나무잎을 퍼들었다.

《이 가독나무잎에는 무우잎, 배추잎 못지 않게 단백질과 칼슘, 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봄철에 애어린 잎들이 야들야들하게 필적에 뜯어들어 말리워 고속분쇄하면 사료로는 으뜸입니다. 돼지도 새끼를 내어 집집에 나누어 주어 기릅시다. 종축장도 우리 일꾼들이 새벽과 저녁에 달라붙어 지읍시다. 구유통도 밀차우에 놓고 레루도 깔고... 자 모두 김순월소장동무를 따라 나섭시다.》

그의 어조에는 힘이 넘쳐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로천발파소리가 《광, 파르릉》하고 창문을 드세게 울렸다. 계중은 일꾼들을 둘러보았다.

《보시오. 동무들, 우리가 요즘 굴진공들에게 영양제를 최우선적으로 듬뿍듬뿍 공급하니 저렇게 발파소리가 여무지지 않소. 아마 저런 발파엔 한 50톤 잘되는 석회석이 떨어졌을거요.》

사람들은 웃었다. 당비서가 발파소리를 듣고 신통하게 알아맞히였기때문이다.

김순월의 제의는 곧 《당결정》으로 채택되였다. 75마력짜리 고기잡이배 한척과 30톤짜리 운반선, 5척의 목선도 못기로 했다. 바다수산기지도 부래산에서 멀지 않은곳에 정했다...

녀인의 얼굴은 노을빛에 발그레해지였다. 그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간고했던 나날들을 돌이켜보는것이였다.

《장승같은 체구, 억척스러운 힘, 우리 당비서를 따를 사람이 글썽 이 부래산골안에 어디 있겠어요. 늦게 자고 새벽엔 별을 지구 먼저 나섰지요. 목장을 짓구 배를 못구 돼지우리를 짓는 광산마을과 바다가, 원로기지, 산등판에서 그의 땀에 젖은 얼굴은 늘 비였지요. 정이월의 세찬 눈바람이 산협을 휩쓸었어요. 고원 덕지대의 바람은 우우- 울부짖으며 기승을 부렸지요. 쟁 쟁... 나무밑등을 찍는 소리, 나무뿌리를 파고 바줄을

매여당기다가 허양 나뭇굴기도 하고... 우등불이 타올랐지요. 연기에 얼굴들이 그을려 당비서도 지배인도 누가 누군지 선뜻 알아 못볼 지경으로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제2의 백두고원》이라고

불리우는 원로기지밭들이 당비서가 뒤에서 밀어 주어 생겨났어요. 원로기지 밭농사도 잘되고 돼지들도 잘 자라 살이 피둥피둥 졌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돼지가 잘되는 우리 소장》, 부래산의 《정춘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난 당비서동지를 보기 면구스러웠어요.

크고작은 일을 모두 주관한건 비서동지인데도 나를 자꾸만 내세워주었거든요. 글썽 물자를 싣고오다 령길에서 자동차를 3번이나 굴렸는데 난 손톱은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광부들이 《허참, 부래산 산신령이 도왔나보군. 일이 잘되는 녀성이니 얹어저도 고기더미우에 얹어지고 넘어저도 딱함지우에 넘어진답데. 천명이라니까.》하고 말하곤했었는데 그때면 우리 비서동지는 말했지요.

《신이야 무슨 신이 있겠습니까만 아마도 부래산광부들의 마음을 한몸에 지녔기에 고난도 척척 이겨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장동무를 도와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내어 우리 살림을 우리 손으로 꾸립시다!》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겠어요. 난 그 말을 듣고 끝내 울었어요. 나를 숨은 영웅들의 방송야회에도 내세워주고 요즘은 텔레비존화면예까지 세워주었어요. 우리 비서동진 광부들과 사진을 찍어도 키가 크다는 핑계를 대고 뒤에 서서 찍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광부들의 옷은 얼굴을 보시고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텔레비존화면에도 일 잘하는 광부들을 내세워주어요. 그는 늘 이렇게 우리들의 뒤에 서서 일꾼들을 떠밀어주었습니다.

설계실의 재능있는 한 설계가가 자기의 풀길없는 문제로 고민하고있을 때 부원 차병호동무와 함께 천여리길을 걸으며 끝내 그 번민을 풀어주고 그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으로 키워준 사람도 우리 비서동지였어요. 3명의 착암수 송동석이 뜻밖의 일로 사경에 이르렀을 때도 제일먼저 뛰어가 그를 업고 병원에 가서 그의 침대결을 떠나지 않으며 피까지 넣어주어 끝끝내 소생시킨 사람도 그 누구였겠습니까? 그는 우리 당비서였지요.》

땅거미가 깃을 펴고있었다. 김순월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에게 다시금 부탁하였다.

《언제나 뒤에 서서 우리 광부들을 위해 묵묵히 한몸 바치는 우리 당비서에 대한 글을 꼭 써주십시오.》

나는 기꺼이 동의하였다.

뒤에 선 모습!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것인가. 그로하여 사람들은 그를 《우리 당비서》로 부르며 사나운 눈보라길, 진펄길도 척척 그를 따라 헤

쳐나가는 것이었다.

지배인의 이야기

우리는 1961년에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어 룡양광산에서 착암기를 잡았던 광부들이었습니다. 당에서는 우리를 당일군, 행정경제일군으로 키워 열한해전에 여기 부래산광산 책임일군들로 보내주었습니다. 간부임명장을 한낱한시에 받아안고 당중앙위원회 정문을 나서며 우리는 으스스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룡양의 광부답게 한번 본때있게 일합시다!》

우리들의 맹세는 불같았습니다. 짝패가 좋았거든요. 헌데 말이 쉽지 마음먹은대로 일이 됩니까.

나는 당비서동무를 따라가기 힘에 부쳤습니다. 하마트면 난 소설에 나오는 《부정인물》에 가까운 사람이 될번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비서동무가 나를 이끌어주었습니다. 사실 말해서 우리비서동무가 새 수도물을 끌어오려 할 때도, 고기문제를 풀어보자고 나설 때도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쇠관 하나, 비닐관 하나, 전동기 한대 없이 그 먼 20여리밖에서 해발 411미터되는 부래산을 넘어 어떻게 물을 끌어오며 어미돼지 한마리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자체로 생산하려고 접어드는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나의 눈에는 언제나 수자가 먼저 맴돌았습니다. 난 호주머니에서 전자계산기를 꺼내어 두드렸지요. 하지만 우리 비서동무에게는 전자계산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일군들과 광부들을 먼저 믿었습니다. 광부들의 심장에 불을 달며 그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당비서가 옳았는가? 옳았지요.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집을 건설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룡양의 광부시절을 잊지 말며 살고 고돌이 안전모를 쓰고 갱에 들어가 착암기를 잡곤 합니다. 어느날 한바탕 기관단총을 만란창 풀듯이 푸룩 푸룩 발과구멍을 뚫고 갱을 나서는데 김계중비서가 생뚱같은 애길 꺼내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지배인동무, 석회석을 타고앉아 살면서 집을 못짓겠습니까. 세멘트도 구워내고 우리 광산마을에 광부거리를 일떠세웁시다!》

나는 대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녀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비서동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거리요? 광부거리란 말이요?》

나는 푸른 안전모채양을 치켜올리며 두눈을 휘둥그레 뚫었습니다.

《그렇소. 광부의 이름을 지닌 거리요!》

당비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거리었습니다. 나는 반롱조로 말했습니다.

《허허... 광부거리라, 귀맛은 당기지만 지나치게 랑만적인걸요.》

《할바에야 목표를 랑만적으로 세우자는거요.》

당비서가 하는 말이 늘 옳고 또 하면 안되는 일 없다는걸 번번히 알면서도 난 또다시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석회석생산은 어떻게 보장하며 도시에서처럼 거리를 세우자고 하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타산을 앞세웠습니다. 세멘트며 목재, 더더욱은 로력문제가 눈앞에서 별찌처럼 아물거렸습니다. 당비서동무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는 벌써 내 마음속을 손금보듯했습니다.

《석회석생산때문에 그러겠지요. 난 조금도 걱정할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거리를 건설한다고 당결정을 채택하면 석회석생산도 아마 쟁충 오르고 거리도 쑥쑥 솟아오를겁니다.》

《무-어-요?》

《지배인동무는 생산과 살림집건설을 반비례관계로 보지만 난 정비례관계로 봅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기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난 마지 못해 얼터름히 대답했습니다.

《해봅시다.》

제대군인청년들로 광부거리건설대가 무어졌습니까.

거리의 초입에 거리건설전망도를 크게 그려 내걸었습니다. 하루는 건설장에 나가보니 청년들이 빙 둘러 물켜서있었습니다. 제일 뒤청년들은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발꿈치를 들고서말입니다. 무얼 하나다가가보니 글썽 당비서동무가 이야기관을 벌려놓은게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취죽은듯 잠잠해지기도 하다가 웃음사태가 쏟아져나오기도하고... 그래서 난 볼록한장을 깔고앉아 담배 한대 풀썩풀썩 피우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솔깃이 귀를 기울인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도 한 옛적이었습니다. 양덕고을에 고약한 원이 살고있었습니다. 어느해 여름날이었던지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루밤을 자고난 원은 산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놈은 물에 떠내려간 산을 당장 찾으라고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산지사방으로 산을 찾아 떠났는데 한달만에 수백리 떨어진 고을에서 산을 찾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원은 〈폭우에 우리 산이 떠갔은즉 잃어버린 산값을 받아야 하느니라.〉 하고 울려대었습니다. 원은 하인족속들을 거느리고 산이 떠가있는 고을에 갔습니다. 바지저고리에 비단조끼를 입은 배가 함치처럼 큰 능구렁이 원은 산이 떠간 고을원을 불렀습니다. 양덕고을원은 능청스럽게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이 산이 자네들 고을에 흘러온게 사실인가?〉

키가 작고 체소한 고을원은 〈사실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양덕고을원은 〈그 산이 우리 고을 산이니 산값을 받아야 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체소한 몸집의 원이 〈아니 산값이라니 그

게 어디 될말이요?) 하고 당치 않아하자 양덕고을원은 <그게 어떤 산이기로서니 값을 안내겠는가. 당장 값을 내지 않으면 나라에 송사를 해 네놈의 목을...> 하고 울러메었습니다.

<흘러온 산>을 두고 옥신각신하던 끝에 양덕고을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흘러온 산> 고을에서는 그 산값을 물어내느라고 인민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해에 체소한 몸집의 원이 죽고 새 고을원이 오르자 피동이라는 소년이 찾아가 자기 피를 말했습니다. 새 고을원은 으하하 통쾌하게 웃더니 피동이를 데리고 양덕고을원을 찾아갔습니다. 피동이가 말했습니다.

<흘러온 산때문에 우리 고을에서는 술한 발을 부치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발값을 도로 받아야 하는줄로 아오이다.>

양덕고을원은 피동이를 알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꼭두에 피도 마르지 않은놈! 무어 어쩌고 저쩌! 아직 산값 절반도 받지 못했는데 뭐 발값? 발값을 다 제하구두 어림없어!>

<그럼 산을 도루 가져가소이다. 우리가 산을 바줄로 묶어놓지는 않았으니 어서 끌어가소이다.>

<뭐... 뭐...>

양덕고을원은 한풀 기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산값은 물지 않았지만 산은 끌어가지도 못하고 그 고을에 <흘러온 산>, <떠온 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솟아있습니다.)

당비서는 옛말도 구수하게 잘도 했습니다.

당비서의 결에서 한 청년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이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모두의 눈길이 당비서에게로 쏠렸습니다. 당비서는 그런 물음이 나오기를 기다린 모양이었습니다.

<동무들, 그 피눈물나는 옛전설을 품고있는 산이 저 부래산입니다. <뜰부>자에 <올래>자, <뒤편>자 해서 부래산입니다.>

<네?!>

청년들은 놀라움에 겨워 부래산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부래산전설에는 산덕을 못보고 산을 원망하던 옛사람들의 심정이 깃들어있을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생대말기에 바다로 되었던 일부 지역들이 룡기하여 솟아올랐는데 부래산도 그때 불쑥 땅으로 솟아오른 산인것입니다. 그러면 부래산이 언제부터 보화를 주는 산으로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여기 자그마한 석회석공장을 석회석광산으로 꾸려주시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석회석을 대주는 큰 광산으로 되게 하여주신 그때부터입니다. 1973년 3월 부래산에 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래산을 이룩도록 바라보시며 품위높은 석회석을 현대적인 기계수단들로 채굴할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친히 우리 광산에 대형굴착기며 자주호를 비롯한 수많은 채굴운광설비들을 보내주시었습

니다. 오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부래산의 새 전설이 꽃피어나고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건설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 당비서는 공부들의 심장을 틀어잡을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멘트로가 일떠서고 석회석이 구워졌습니다. 강도높은 세멘트가 쏟아져나왔습니다. 볼록구가 팡팡 찍혀져나오고 세멘트, 자갈, 모래혼합기가 와르릉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살림집은 비온뒤의 대순처럼 솟아올랐습니다.

5층집, 4층집, 3층집...

석회석생산은 엄청나게 높아갔습니다. 후에 김계중은 생산과 살림집건설속도와의 관계법칙을 <인간위주의 법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살림집들에 광산에서 자체로 만드는 장판지도 바르고 진달래, 솔잎무늬벽지도 바르니 도시의 살림집 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광부거리의 면모는 갖추지 못했어도 이제 몇해후에 와보면 필경 우리 당비서동무의 랑만적인 구상은 실현될것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집 좋고 고기와 물고기, 알, 남새걱정 모르게 되었으니 광부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팔소매를 걷고 나서는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살림살이를 제집살림처럼 꾸려주니 광부들은 우리 일군들을 따랐고 하여 광산은 화목한 대가정으로 되었습니다.

언젠가 생필직장에 들리니 당비서동무가 밥상을 만들고있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자책감에 모대기였습니다. 행정책임일군이 당비서의 집에 새 밥상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다니 될말입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송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생필직장장을 찾고 첫마디부터 닦아세웠습니다.

<여보, 그게 어디 댔소. 당장 큼직하게 새 밥상을 만들어 당비서동무네 집에 가져가시오.>

<아니 지배인동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아닙니다. 당비서동진 밥상 한두개가 아니라...>

<그럼 뭐요?>

<밥상이 작고 불품없는 세대들에... 듬뿍듬뿍 차려놓으라고 비서동지가 대패를...>

<아니 그게 사실이요?>

<예, 비서동진 밥상개조를 한답니다.>

<직장장동무, 그 말을 왜 이제야 하오. 응?>

나는 송수화기를 놓고 그바람으로 생필직장에 갔습니다. 나도 그래서 한때 광산적으로 소문이 찼하던 그 <밥상개조>에 참가하였습니다. 밥상우에 고운 꽃도 그려놓고 라크칠을 잘하여 가정들에 주었습니다. 참 그때 우리는 광부들의 안해들한테서 미처 인사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 결혼하는 청춘남녀들에게 이불장, 양복장, 찬장도 만들어주었습니다.

광부들의 환갑상, 생일상, 결혼식상도 김순월동무와 함께 짜고들어 차려주었습니다. 한뼉을 광산에서 석회석을 캐며 살아온 박기화광부는 환갑상앞에서 《세월은 참 좋은 세월이요. 이 좋은 세월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저의 인사를 올려주십시오!》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해 4월명절은 우리 광산의 최대명절로 흥성거렸습니다. 우리는 종업원들에게 고급양복지와 돼지고기, 물고기, 닭알을 비롯한 가지가지 식료품을 듬뿍듬뿍 안겨주었습니다.

석회석 돌밭우에 우리 당비서동무는 꽃을 피웠지요. 지극한 정성으로말입니다. 역에서 내려 부래산부터 쳐다보았겠지만 얼음산같은 희석희석한 모습을 안고있는 석회석산에도 꽃은 피어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 질은 향기가 날리게 되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해 이른봄 어느날이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웬 40대의 중년이 들어섰습니다.

《지배인동지, 저를 아시겠는지...》

나는 도수안경을 벗어두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응, 알겠소. 그런데 무슨 일로?》

《지배인동지, 제 잘못했습니다. 광산에 다시 בא주십시오!》

나는 억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래 동문 량심이 있소? 광산을 떠날 때 내뒤편무늬를 아침저녁으로 따라다니며 때를 쓰더니 인젠 다시 오겠나? 동무가 부래산을 떠나간새에 자보시오. 얼마나 달라졌소. 덩지 큰 새집들이 일어서고 20여리밖에서 새 수도물이 흘러오고, 부업지들에서는 강냉이, 콩, 감자가 씨를 묻기바쁘게 잘되고 다달이 주는 고기, 물고기... 이게 하늘에서 공짜로 절로 굴러떨어진거요? 아니 온 광산이 떨쳐나서 땀으로 이루어놓은 재부란말이요. 그런데 동문 남들이 이뤄놓은 이 재부의 꽃을 따라왔소?!》

나는 흥분되었습니다.

《지배인동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시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을 보니 동정이 가더군요.

《래일 다시 오시오. 당비서동무와 동무의 문제는 토론해야겠소.》

그날저녁 나는 당비서동무에게 이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비서동무는 심중한 어조로 묻는것이었습니다.

《지배인동무, 그런 사람들이 몇사람 됩니까?》

《로동행정과에 알아보니 전달에 두어사람, 이달에 네사람이나 됩니다.》

당비서의 얼굴이 금시 확 밝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복에 겨워 웃는 당비서동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걸로 오더니 《지배인동무,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하고 내 두손을 잡는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싣듯 알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까!

《허허... 얼마나 좋은 일이요. 따뜻한 봄을 찾아 날아갔던 계절조들이 다시 찾아오는군. 우리가 눈보라길, 진펄길을 헤치며 이루어놓은 그 모든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를 따라나서게 그들을 받읍시다. 〈계절조〉들을 받잔 말입니다. 얼마나 좋소, 예술영화 〈도라지꽃〉의 광산편이요. 우리 부래산광산에도 도라지꽃이 피었소!》

나는 시처럼 울리는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그때 비로소 우리 당일군들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비서동무는 석회석우에 꽃을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꽃향기가 천리에 만리에 풍겨났습니다. 꽃을 찾아 벌나비가 날아들듯이 살기 좋은곳으로 된 부래산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드니 얼마나 가슴 흐뭇한 일입니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기사로, 의사로, 교원으로 되어 부래산으로 오고저 합니다. 요즈음은 정무원의 부장이며 국처장들, 광산, 탄광,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이 찾아와 돌아보고 수첩들에 그 무엇인가를 자꾸 써가지고 가군합니다.

제살림을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제손으로 꽃피운 그 마음들에 감동되어서말입니다...

지배인 김해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나는 이 이야기를 김해관동무와 함께 광산을 한바퀴 돌아보면서 들었다. 가슴 흐뭇하였다.

부래산광산 초급당비서 김계중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인간모습이 눈앞에 조각상처럼 안겨왔다. 그는 참으로 미더운 우리 시대의 당일군이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원수들이 그 아무리 발광하여도 자기의 가장 훌륭한 제도를 지켜 사람들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충효일심으로 묶어세우고 우리의 생활이며 생명인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떨치는 우리 조선로동당의 한 초급당비서!

저기 어떤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우고 류량걸식하고 한조각의 빵을 사기 위한 쟁탈전을 벌리는 무서운 참극이 벌어져도 주체의 조선은 이런 당일군들이 초소마다 단위마다에 믿음직하게 서있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더더욱 빛내이는것이다. 생활은 투쟁으로 빛난다. 인간은 그 투쟁속에서 아름다와진다.

✕

해빛밝은 이른아침, 갓가지 꽃들이 곱게 피는 광산당위원회의 뜨락에서 나는 초급당비서 김계중동무를 만났다.

하관이 긴 얼굴, 흰칠한 이마, 부드러운 눈빛...

그의 얼굴에 인정미가 흐르고있었다. 첫눈에 속 깊이 품은 마음도 다 활 털어놓고 말하고싶은 사람이었다. 나는 취재목적을 이루었기에 사실 그를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부래산에 와서 광부들을 위해 바친 그 10여년 인생행로가 귀중하고 사랑스러워 그를 만났다.

《우리가 한일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희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것처럼 높이 평가하여주시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평가와 믿음을 받게 된것은 우리 지배인동무며 김순월동무를 비롯한 우리 일군들의 수고가 많았기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앞으로 할일이 많습니다.》

하여 나는 당비서로부터 그의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하려는 량만적인 구상을 들을수

있었다. 참으로 생의 희열과 긍지, 래일에 대한 낙관에 차넘쳐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희망, 그의 꿈은 실현될것이다.

《작가동무, 그때에 오십시오. 그때에 저에 대한 취재를 하여주십시오!》

나는 소박하면서도 진정이 넘치는 그의 말을 쾌히 받아들였다.

부래산의 복무자!

그는 광부들의 충실한 심부름군이며 생활의 길잡이였다. 그는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아시는 당일군으로 광부들의 생활을 더 높은 행복의 상상봉으로 끌어올리며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화원에 더 아름답고 풍만한 생활의 서사시를 아로새길것이다.

전사의 영예훈장

박춘길

나의 전우

제대한 병사들아

달자 넓은 가슴팍에

전사의 영예훈장을

명절이 아닌들 어떠라

오늘은 새 초소

석탄전선 차지한

한해전 그날

세운 군공보다

떨칠 위훈을 믿어

우리 당이

공화국정령으로 수여한 훈장

금시 가슴도 목직이 어려오느냐

달아주던 군단장동지의 큼직한 그 손이

축하하며 정겨이 바라보던

애절한 친구들의 그 눈길이

어데 가나 잊지 말라고

어데서나 빛내이라고

아름다운 음향으로 절령이며

거울처럼 비쳐주는

아, 전사의 영예훈장이여

너에게 새겨진 그 이름

전사 그 영예로

부대 정문을 떠났어도

마음은 언제나 군기 펴력이는 그 대오속에

있어라

병사복대신

령장 단 탄부제복에

철갑모인양 안전모 쓰고

착암기는 총으로 틀어잡고

소대장동지!

중대장동지!

군대식으로 직무를 높이 불러주며

떨어지는 채탄지령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안고

몸에 밴 무조건성의 정신

끝까지 돌파구를 열어가는 길...

모자채양에 손을 딱 붙이고

군대식으로 조국앞에 보고를 하나니

유보도를 걷기엔

습관된 병사식 걸음 더욱 어울리지 않아

병사시절 배낭 풀지 않은채

오늘도 머리말에 놓고 우리 사노나

아, 혁명의 길에 병사의 삶

값높이 이어주는 전사의 영예훈장

너와 함께

너를 빛내며

우리의 복무는 계속되여라

전사의 걸음은 계속되여라

봄은 여기서 시작된다

리수덕

사람들은 흔히 봄계절을 두고 생각할 때 시내가에 실버들 푸르고 지평선위에 아지랑이 피는 그런 정경을 그려보기가 일쑤다.

하지만 영광의 땅 청산리에 깃드는 봄은 아직 눈서리 덮인 절기에 이곳 농장원들의 불타는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것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체제와 우리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에서 앞장서나가는 청산벌 농장원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취재하러 우리들이 강서땅에 들어선 날은 꽤 맵짠 날씨였다.

그러나 청산리의 소재지인 암화부락어구에 다달오자 우리는 금시 봄의 훈기에 휩싸이는듯한 기분이었다.

눈덮인 들판과 마을을 꽃으로 수놓듯 《사회주의 농촌체제발표 30돐이 되는 올해를 만풍년으로 빛내이자!》라는 힘찬 글발을 새긴 울긋불긋한 대형속보판들과 구호판들이 큰 길가와 포전머리 여기저기에 세워져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흰김이 문문 피어나는 두엄을 련결차에 가득 싣고 줄지어 달리는 《천리마》호 트랙포르들과 렬차에서 금방 부러놓은 화학비료를 받아 싣고 곧추 작업반으로 달려가는 자동차들의 행렬이 한눈에 안겨온다.

취득벌과 기양틀 앞벌,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들려오는건 트랙포르, 자동차의 동음소리요, 안겨오는것은 기계화수단들이다.

우리의 가슴속엔 불현듯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벌에 풍년이 들어야 온 나라에 풍년이 든다고 하시며 청산리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본보기단위로 꾸려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 베풀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이 현실로 꽃피고있다는 생각이 뜨겁게 피여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현지도하시면서 모범을 창조하신 단위입니다. 청산협동농장에서 대풍을 이룩하여야 전국적으로 대풍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등성이길위에 서서 청산땅의 들끓는 정경을 흥분된 마음으로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어디에선가 명랑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청산벌에 봄이 오면 5월이 오면
이 가슴에 안겨오는 정다운 모습
잊지 못할 그날에 여기 오시여

포기포기 모를 내신 사랑의 모습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포기포기 모를 내신 사랑의 모습

가사의 내용으로 보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71년 5월 영광의 그날 여기 청산땅에 오시여 베푸신 은정을 자기들의 소박한 노래에 담은것 같았다.

노래선물에 귀를 강구며 발걸음을 옮긴 우리 일행은 어느덧 이곳 기계화작업반앞에 이르렀다.

기계화작업반은 석두재 한기습의 후미진 등성이를 뒤에 두고 안침진곳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었다. 차고와 농기계창고, 공무수리분조의 덩치가 꽤 큰 건물이 《ㄷ》자를 이루며 솟아있고 그가운데는 축구경기라도 할만큼 넓은 운동장이 펼쳐져있었다. 거기엔 농장의 젊은이들이 《천리마》호와 《풍년》호 트랙포르, 퇴비상차기 등을 중심으로 웅기중기 모여서서 떠들썩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운동장의 땅바닥 여기저기에 회가루를 뿌려 그려놓은 각이한 도형이 뚜렷한것으로 보아 아마도 젊은이들은 방금전까지 운전실습을 하다가 잠시 휴식하는것 같았다.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마당가에서 우리와 만난 후리후리한 키꼴의 기계화작업반장 리희완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청산리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트랙포르운전수들과 자동차운전사들, 모내는 기계운전수들을 자체로 양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원들이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운전할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는 기계화작업반장의 안내를 받으며 차고들과 농기계창고들을 일일이 돌아보았다.

창고마다에는 잘 정비된 모뜨는 기계와 모내는 기계, 논두렁 짓는 기계와 김매는 기계, 비료치는 기계와 이동식종합탈곡기, 벼수확기, 강냉이수확기 등 영농공정에 따르는 가지가지의 농기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그가운데는 《천리마》호 트랙포르 1호와 모내는기계 1호, 《청산리》호 벼수확기도 있었다.

우리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려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자랑찬 투쟁의 맨 앞장에 청산리를 내세워주시고 성능좋은 새 농기계가 나올 때마다 청산리에 제일 선참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이 우리의 가슴을 하얗게 후덥게 했다.

《전후에 열여섯집이 3개의 보습과 12개의 호미, 6자루의 삽과 단 한마리의 부림소를 가지고 첫 조

합을 무었던 우리 청산협동농장이 오늘은 100여대의 트랙터와 16대의 자동차를 비롯해서 1,000여대의 연결농기계를 번뜻하게 갖췄지요. 정말 천지개벽같은 전변이지요.》

기계화작업반장 리희완동무는 공지와 자랑에 넘쳐 이렇게 말하고나서 우리 일행을 수리분조의 작업장으로 이끌었다. 말이 수리분조이지 여러대의 공작기계들과 용접, 제관설비까지 그쫘하게 갖춘 작업장은 흡사 어느 공장의 공무직장을 방불케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 농기계 제작에 여념이 없는 기술혁신조의 김성호, 리영철 동무도 만났다.

이 동무들의 탐구적인 노력과 열정에 의해 광복 비료살포기, 모관종합씨뿌리는 기계, 알벼상차기 등 여러종의 농기계들이 농장자체의 힘으로 창안제작되어 농산작업에서 은을 내고있다고 기계화작업반장은 자랑을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이미 청산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기술혁신조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는 20대의 젊은 리영철동무에게 각별히 관심이 갔다.

앞으로 기술혁신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는지고 우리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청산땅에 베푸시는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고귀한 은정과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안기만 하고 그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청산벌의 농업근로자된 도리이고 의리겠습니까. 우리 기술혁신조에서는 지혜와 열정을 모으고 합쳐 영농작업의 이빠진 공정들을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을 마감고비에서

버쩍 다그치겠습니다. 그래서 논밭갈이에서 탈곡에 이르기까지 거의 50가지에 달하는 모든 영농공정의 기계화를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열기를 띤 리영철동무의 말에 다짐을 주듯 곁에 있던 기계화작업반장이 한마디 보태었다.

《두고보십시오. 이제 머지 않아 여기 청산땅에서 농촌정리의 종합적기계화완성의 우렁찬 봄우뢰소리가 높이 울려 온 세상을 진감할것입니다.》

확신에 넘친 이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이것이 어찌 몇몇 기계화초병들의 신념에 찬 결의라고만 하랴.

우리는 청산리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리에 풍년이 들어야 온 나라에 풍년이 든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간곡하신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회주의농촌체제가 밝혀준 제반 과업을 맨 앞장에서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불멸의 사적이 빛나는 영광의 땅에서 농촌체제완성의 자랑찬 환호가 높이 높이 울려오리라는 믿음을 안고 동구밖을 나섰다.

그렇다. 봄은 여기서 시작되리라.

위대한 정신, 위대한 방법이 꽃피난 력사의 땅, 어버이수령님의 100여차례에 걸치는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 어리여있는 영광의 땅- 여기 청산리에서 공산주의의 새 봄은 꽃피나리라. 온 나라 농장벌에 줄줄이 봄빛을 뿌리며...

새날의 약속

로성렬

발파소리 은은한 태향산마루에
아직도 달꼬리 걸려있는데
벌써 거리에 넘치누나
출근길 다그치는 탄부들의 물결

서로 떠들썩 찾고 부르며
어깨 맞부비며 신바람났는데
문득 골목에서 신혼부부의 속삭임
소리

-기다려요
-넘려말라구

하늘가에서 울리는듯
열려진 창가에서
유치원생이 손을 씻는다

-아버지 우리모두 기다려요
-오냐 넘려말아!

걸음이 떠진다
생각이 깊어진다
사람마다 이 아침 나누는 말

그 무엇을 약속하는것인가

기다린다고
무엇을?!
넘려말라고
무엇을?!

그렇다! 새날의 인사
온 나라가 탄을 기다린다고
석탄은 넘려말라고
조국과 나누는 약속이 아닌가!

탄전에 사는 사람들
하나같이 탄을 두고
간절한 당부로, 불같은 맹세로
새날을 맞으며 뛰는 땅

정녕 그렇구나
한생을 막장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평범한 아침인사말에도
조국과 불같은 약속을 나눌줄 아는
구나

역사는 말한다

-갑오농민전쟁 100돐에 즈음하여-

문동식

어데선가
흘러간 세월의 안개발을 헤치고
올려오는 메아리 메아리
내 유심히 귀 기울여 들어보노라
그러면 그것은 봉건의 압제를 불
사르며
내 나라 강토를 파도처럼 휩쓸던
갑오농민군의 격노한 함성소리

땀에 젖은 도롱이를 벗어던진 머
리에

흰 무명수건을 질끈 동이고
서리발 날창을 비껴든 사람들
수수 그루터기에 발베이면서도
관청과 지주 토호들의 아성으로
성난 사자같이 달려가던 모습들

한생 흙처럼 묵묵히
농토를 가꾸어 옥백미를 섬기여도
탐관오리들에게 뜯기우던 목숨들

이
드디어
《보국안민》의 새 세상 세우려
결사의 창기를 높이 추켜들었거
니

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
갑오년의 메아리
그 피명든 가슴과 가슴들이
인권과 자유 존엄을 찾자고
피타게 터치던 갈망의 메아리

그 소리에
내 문득 창가에 다가서니
한눈에 안겨오는 사회주의락원
평양의 화려한 거리거리
끝없이 흐르는 행복의 물결...

아, 100년
갑오년 그 수난의 세월로부터 한
세기

길지 않은 세월
이 땅우엔 얼마나 놀라운 전변이
이룩되었는가

조선은

얼마나 높은 사회주의 봉우리에
거연히 솟아 빛을 뿌리는가

호남의 아득한 전야와 고을에
번져가던 농민군의 항전의 불을
끄러
부패무능한 사대매국노들
이웃나라의 오만한 무리들을
이 땅우에 구름처럼 끌어들었건
만

인민의 불타는 념원과 꿈을 안고
역사는 어데로 흘러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눈앞엔 황홀한 사회주의 일만절경
인민의 복된 락원 가슴에 안아
보며

내 솟구치는 뜨거운 걱정속에
역사의 갈피갈피 번져보나니

유구한 이 나라 반만년 역사
빛과 권리와 존엄을 찾으려
창과 칼을 버려두고 펼쳐나선인민
장구한 세월 그 얼마나
피어린 싸움을 벌려왔던가

기마대의 번뜩이는 칼날에
삼대처럼 쓰러지면서도
조선아 - 조선아 -
형장우에 한방울 이슬이
되면서도
목놓아 애통하게 부르던 그 이름
조선아 - 조선아 -

아 구천에 사무친 절통한 원한
이 나라 역사의 피타는 갈망우에
드디어 드디어 구원의 화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셨나니

그분의 주체의 해빛에
피 흐르는 상처와 치욕을 가시고
재생의 기쁨과 환희를 안고
봉건과 식민지의 깊은 나락에서
사회주의 상상봉에 솟아오른
나의 조국

해빛 찬란하여라
산천은 무성하여라
동굴같이 캄캄하던 기나긴 세월
잡초같이 묻히던 인민의 천만소
원
봄날같이 만발하게 피어난 땅우
에
충성과 효성의 꽃바다 설레거니

주체의 념으로
수령과 인민이 함께 숨쉬고
주인의 권리와 존엄으로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지향으로
함께 전진하며 운명을 같이하는
오, 조선
일심단결된 나의 조국이여

이 조국의 푸른 창공에
오늘은 향도의 태양
김정일 동지께서 솟아오르시여
인민의 앞길에, 무궁한 세월
찬란한 해빛을 뿌려주시나니

역사의 수치와 멸시와 굴욕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자주와 존엄의 머리를 높이
들고

주체의 광활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주의조국을 한껏 안아보며

오, 나는 듣는다
갑오년이 웨치는 말을
나는 듣는다
역사가 웨치는 말을

-보라 세계여
조선을 쳐다보라
수수천년 이 나라 인민의 갈망
수수만년 인류의 목타는 기원
피절은 역사의 교훈우에
솟아오른 자주
조선의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불패이다!

두 《친구》

장동일

1

저녁해가 부암산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갈무렵 영안벌의 지주 최만석이가 소작인 정기호를 자기집으로 청했다.

《최지주어른이 나를 집으로 청한다? 무슨 일때문에 오라구 하는지 모르겠소?》

정기호가 반짝이는 두눈으로 최지주네 머슴 박종만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글쎄 나두 모르겠소다. 그저 저녁밥을 먹지 말구 오라구 함디다.》

《저녁밥을 먹지 말구 오라구 한다?...》 하고 중얼거리며 머리를 기웃거리던 정기호는 이윽고 결심을 내렸는지 대답했다.

《좌우간 알겠소. 지주어른한테 내 곧 가겠단다구 전해주우.》

《예.》

최지주네 머슴이 돌아갔다.

정기호는 안해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저녁을 먹으라고 이른 다음 최만석의 집을 향해 떠났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짚으면서도 최만석이가 왜 갑자기 집으로 청했을가 하고 여러모로 생각을 굴려보았으나 그 까닭을 도무지 알아낼수가 없었다.

정기호는 부암산골짜기 어구에서 소꼽시절을 보낼 때부터 최만석이를 잘 알고있었다. 지금도 정기호는 자기것이라면 남에게 털끝하나 주지 않던 최만석의 아이때 성미를 기억하고있었다.

한참 걸어내려가노라니 저만치 고래등같은 최만석의 기와집지붕이 보인다. 이 집은 최만석의 부친 최규택이가 만주주둔 일본령사관의 세력을 등에 업고 마약장사를 해서 일확천금을 한 거액의 돈으로 영안벌을 살 때 지은 열두칸짜리 정방형식 청동기와집이다. 다섯그루의 로송이 깊숙이 뿌리박은 금잔디언덕우에 자리잡은 이 집 대문가에 서면 영안벌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정기호가 최만석의 집에 닿았을 때 대문앞에서는 아까 심부름을 왔던 박종만이가 서성거리며 기다리고있었다.

《내려오시느라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인어른께서 기다리고계십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종만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문을 열었다.

(하, 이것봐라? 경찰서장을 마중하듯하는군.)

정기호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마당에 들어섰다. 이때 마침 대청마루에서 마당가에 내려선 최만석이 대문쪽으로 걸어나오고있었다.

《지주어른, 그간 안녕하십니까. 소작인 정기호가 지주어른의 분부를 받고 방금 도착하는길입니다.》

그러자 최만석이 급히 다가와 정기호의 두팔을 부여잡으며 반겨맞았다.

《아, 이제 얼마만인가! ... 이러지 말게. 이마를 마주대고 살아오는 처지에 새삼스럽게 인사는 또 무슨 인산가, 어서 들어가세.》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정기호는 자기가 혹시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 하여 두눈을 껌벅이며 최만석이와 머슴을 번갈아 돌아보았다.

《아니, 왜 그렇게 놀라워하나? 여기에 놀라울게 하나도 없네. 자, 어서 안채로 들어가세나.》

최만석은 허리없는 몸집을 엉겨주춤하니 굽히고 두리몽실한 얼굴에 애써 미소를 지어보이면서 하얗고 통통한 손으로 군의 유지들이나 경찰서장이 술추렴을 하군하는 안채를 가리켰다.

《? ...》

정기호는 자기가 틀림없이 도깨비에 홀리우지 않았으면 꿈을 꾸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작인들을 마당은 고사하고 대문밖에서 쫓다싶이 돌려보내던 최만석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신을 할수 있단말인가. 그는 자기의 허벅다리를 꼬집어보았다. 아팠다. 그러니 꿈도 아니요, 도깨비에 홀린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최만석이가 무엇때문에 갑자기 소작인한테 이런 환대를 베풀수 있단말인가...

안채에 들어선 정기호는 더욱 놀랐다. 감장옷칠을 한데다 진주조개껍질로 자개를 박은 두리반우에 지금까지 구경조차 못해본 여러가지 산해진미가 칠보단장을 하듯 울긋불긋한 색깔을 띄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있었다.

《자, 어서 앉게.》 하고 최만석이 비단방석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정기호의 잔에다 먼저 술을 부으면서 계속했다. 《요즈음은 세월이 뒤숭숭하니 옛 동향친구가 그리워지는구만. 자, 오래간만에 한잔 드세나.》

(세월이 뒤숭숭해서 옛 동향친구가 그리워진다?...)

정기호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 술잔만 들여다보았다.

《아니, 기호, 무슨 생각을 하나? 어서 들게.》

《예, 들겠습니다.》

《원 사람두 <습니다> 는 무슨놈의 <습니다> 인

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뒤집히질텐데. 허허… 자, 어서 드세.》

최만석은 일부러 우선우선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먼저 잔을 냈다.

정기호도 잔을 냈다. 순간 그는 최만석의 말이 결코 실성한자의 넋두리가 아니라는것을 직감했다.

아니다를가 최만석이 먼저 말꼭지를 뺐다.

《요새 두만강쪽에서 항일유격대가 넘나든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건 사실이네.》

정기호는 그러지 않아도 얼마전에 류다섬과 웅기의 술봉아근에 항일유격대가 나타나 경찰놈들을 처단한 다음 총을 걷어가지고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라 자신있게 대답했다.

《사실이란 말이지…》

최만석은 이제야 처음으로 돌아가는 정세를 안듯이 두눈을 껌벅이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러나 그는 벌써 며칠전에 일본제국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친구의 편지를 통해 세 파쑈동맹국들중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이 망하고 일본만이 남았는데 이제 머지 않아 일본도 독일처럼 불원간 횡기를 들지 않으면 안될것이니 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암시를 받았었다. 그래서 최만석은 오늘 이 영안벌에서는 그중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정기호를 청해들인것이다. 《시세에 민감하고 그에 편승해 살아갈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이름난 마약장사 최규택이 일찌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최만석에게 심어준 《인생철학》이었다.

최만석은 부친이 자기의 가슴에다 심어준 이 《인생철학》을 드디어 실천에 옮길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사실 부친이 마약장사를 해서 거부가 될수 있었던것도 승승장구하는 당시 일본제국의 군부세력에 붙어서 살아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바야흐로 형세가 달라져가고있으니 이제 곧 일본을 꺼꾸러뜨릴 그 적대세력에 편승하여 살아갈수 있지 않은가. 횡기에 가붙든 빨간기에 가붙든 잘 살면 그만이지 그 누가 상관하랴.

《…하긴 저 쪽발이놈들이 찍하면 야마도다마시요, 사무라이정신이요 하구 떠들어대지만 종이범이 되니까 흥!… 자, 또 들자구.》

최만석은 잔을 내자마자 오리모가지를 비틀어 떼내어 먹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이발이 든든한지 오리목줄대의 삭뻘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잠간사이에 다 씹어삼키는것이였다.

정기호도 천천히 잔을 내면서 생각해보았다. 일본놈들이 강요하는 창씨개명을 선참으로 받아들이자기를 늘 야마도모만세끼라고 불렀으며 불교를 믿어도 조선의 절간이 아니라 일본놈들이 지어놓은 진자에 올라가 아마데라스오미가미(천조대사)를

믿던 최만석이가 일본을 이처럼 험뜯다니…

여기에는 분명 그 어떤 《연극》이 내포되어있다.

최만석은 그 좋은 이발로 어찌나 빨리 씹었는지 제앞의 음식들을 벌써 밑굽이 드러나게 다 먹어치우고 불룩한 배를 술술 어루만지면서 개탄조가 어린 목소리로 하소연을 했다.

《여보게 정기호! 이제는 세상이 뒤집히리라는데 불을 보듯이 뻔하네. 그때엔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한몫 할테지. 자네두 보았겠지? 돈 많고 권세있는자들이 벌써부터 술술 꿈무늬를 빼는걸.》

《그럼 땅과 재산이 많은 자네도 지금부터 술술 준비를 해가지구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야 할게 아닌가.》

《흥,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짓이야!》 하고 최만석은 저도 모르게 목청을 돋구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을 진정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 기호! 자네까지 그렇게 말하니 난 정말 섭섭하네. 내가 태를 묻은 고향산천이 지금 자네가 살고있는 부암골어구지라는걸 자네두 알지않나. 거기서 우리함께 짜개바지를 입구 유년시절을 보내지 않았단말인가?… 그처럼 정든 고향산천과 친지가 있는 이 땅을 버리구 내가 가진 어디루 가며 고향 땅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겠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정기호는 최만석이가 하도 절절하게 말하여 구만 가슴이 다 뭉클해나기까지 했다.

정기호의 표정을 재빨리 훑쳐본 최만석이 말을 계속했다.

《정기호, 그리운 옛친구 이사람아! 이전에도 소작인들은 방금 자네가 말하듯이 내가 수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구있는줄 아는데 그건 임자네들의 억측일세. 물론 우리 부친이 마약장사를 해서 번돈으로 땅을 좀 산건 사실이지만 자네도 직접 다루어본것처럼 이 영안벌이라는거야 워낙 척박한 서덜밭이 아닌가. 게다가 벌 한복판으로 길회선철도가 지나갔지. 또 얼마전에는 일본놈들이 읍에다가 화학공장까지 세우느라고 술한 땅이 공장부지로 먹혀들어갔다네. 사실 말이 지주였지, 난 소작인들을 언제 한번 가혹하게 부려먹은 일이 없네. 그건 하느님이 다 아네! 난 자네들앞에서 죄지은 일이 없네. 정기호, 말좀 해보게. 안그런가?… 그까짓것 이렇게 된바치고는 이제라도 그 잘난 땅을 내놓을 용의가 있네. 아니 당장이라도 내놓겠네.》

《땅을 내놓겠다? 아니 그럼 자넨 지주가 아니지 않는가?》

《바로 그걸세! 난 래일부터 지주를 그만둘 작정이네!》 하고 최만석은 무릎을 치며 갑자기 음식상 앞으로 바투 다가앉았다.

《지주를 그만둔다? 허허허… 그럼 뭐가 되나?》

《자네처럼 소작인이 되지.》

《자네가 소작인이 왜?》
《그-럼! 말하자면 최만석이가 정기호로 되는셈이지!》
《원- 이런 희한한 일이라구야! 그래 자네 생각엔 지주 최만석이가 소작농 정기호로 될수 있을것 같은가?》
《될수 있구말구!》
《어떻게?》
《자네처럼 토스레웃을 입구 한 일년쯤 일하느라면 되겠지.》
《허허허... 그래 된다치세. 그러면 어떻다는건가?》
《그러면 세상이 뒤집혀저도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지주라고 칭산하거나 천대하지 않을거네.》
《음- 그거참 선견지명일세. 자네 오래동안 작인들을 다루며 나이가 들더니 확실히 두뇌가 명석해졌군그래.》
《아, 아, 비행기를 태우지 말라구, 그래두 짜개바지시절에 머리가 껍껍 도는건 자네였지. 그대신 난 좀 약삭바르고 제것을 남한테 빼앗기우지 않았지.》
《자기 성미를 잘 알구있군그래.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땅을 내놓겠나?》
《아 내놓으면 내놓는것이지. 이제 두고보라구.》
《그-령-다... 그래 토지문서두 다 내놓겠단말이지?》
순간 최만석은 가슴이 섬적했으나 재빨리 다음과 같이 말을 돌렸다.
《아, 아, 거 너무 꼬치꼬치 캐는구만. 마치도 경찰이 도적을 심문하는것 같이. 호호호... 이사람아, 그러지 말구 날 좀 도와주게나. 사실은 오늘저녁 자네를 이렇게 청한것두 자네의 도움을 받기위해서였네.》
《...》
정기호는 잠시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흔들 하였는데 무엇을 궁정하는것인지, 아니면 부정하는것인지, 혹은 취해서 그러는지 알수가 없었다.
이윽고 눈을 뜬 정기호가 최만석을 똑바로 마주 건너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래 무엇을 도와달라나? 어서 말해보게.》
정작 이 순간이 도래하자 최만석은 사뭇 긴장해진 표정을 짓고 술을 한잔 마시고나서야 말을 시작했다.
《정기호, 자네야 이 영안벌에 사는 작인들, 아니 농군들중에서도 제일 대바르고 근면한 실농군이 아닌가, 자네의 손길이 미친 땅은 비옥해지고 농사가 잘되거든. 사람들은 혼사를 해도 자네의 조언을 받으려 하고 잔치를 해도 자네더러 축사를 해달라구 하지. 작년가을에 장리쌀빔을 삭감해달라구 부암촌

마을 사람들이 들구일어났을 때에도 그걸 자네가 뒤에서 선동했다는것도 내 다 알구있었네. 그러나 나는 자네를 빼내여 구원해주었지. 왜냐하면 동향 친구이기때문이지!...》
그것도 사실이였다. 작년가을에 영안벌에는 랭해의 피해로 농작물의 파반수가 미숙이 갔다. 그런데도 최만석은 타작비률을 조금도 낮추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장리쌀빔까지 당장 물어내라고 소작인들을 들볶아댔다. 이에 격분한 부암골마을 소작인들이 제일 먼저 들구일어났는데 이 투쟁을 정기호가 주동이 되어 조직했었다. 즉시 영안읍경찰이 출두하여 주도자들을 체포해갔다. 바로 이런 때 최만석이 일본제국대학의 친구로부터 이제 곧 세상이 뒤집혀지리라는 편지를 받았다. 하여 최만석은 그길로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정기호는 앞으로 쓸모가 있으니 석방해달라고 부탁했던것이다.
(...최만석이 그때 《은덕》을 상기시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이자가 그때 벌써 나를 리용해먹을 잡도리를 하지 않았을가?...)
정기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최만석이 대범한 표정을 지으며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자네 그때 일을 두고 또 생각하나? 원 사람두 그만두게.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우리 서로 잊어버리자구.》
그리고나서 이번에는 술은 안마시고 아까 먹다가 상우에 놓은 오리다리를 들고 거기에 붙어있는 살점들을 (사실은 다 먹은 뼈다귀였다.)한점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훑아먹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일을 하자면 농쟁기와 의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우리 집 머슴이, 아니 그 종만이가 쓰던것이면 되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농쟁기들을 다루는 농군의 이계 (그는 두번째 손가락으로 자기머리를 쿡쿡 찌러보였다.) 중요하대구 보네. 이걸 뭐라구 해야 할지?... 그 말하자면...》
《정신이라구 해야지. 그제 온전해야 실농군의 품성이 나오지.》 정기호가 텅주었다.
《아, 그렇지! 농군의 품성! 역시 자네는 똑똑한 친구야! 난 바로 그 농군의 품성을 가지구싶네.》
《그제 무슨 물건이라구 가지구 말구하겠나.》
《그럼 그 품성이라는걸 나한테 배워주게나. 응, 제발 부탁이네!》
정기호는 선뜻 대답은 하지 않고 술잔대신에 밥사발뚜껑을 벗겨놓고 거기에 손수 술을 철철 넘치게 부어서 쪽 들여마시고는 이른바 《농군의 품성》을 최만석에게 배워주기 시작했다.
《우선 그 호박단추와 장도칼집이 매달린 비단바지저고리를 벗고 토스레웃을 입어야 하네. 그렇게 할수 있나?》
《그거야 초보적인게 아닌가.》
《하, 이것봐라? 그래 자네 인력거를 버리고 짚신

을 친구 걸어다닐 각오가 되어있나?)

《아, 농사를 지으려면 밤낮 논밭에 나가 살아야지 언제 한가하게 인력거를 타구다닐 겨를이 있을라구? 난 벌써 쫓신두 다 마련해놓았네.》

《음- 그참 각오가 대단하군! 그런 각오면 새벽에 일어나 소를 먹이구 밤늦게까지 새끼두 꼬을수 있겠구만?》

《새벽에 일어나 소를 먹인다? 몇시쯤 일어나야하나?》

《그저 먼동이 틀무렵에 일어나면 되네.》

《먼동이 틀무렵에?!... 아니, 그렇게 일찌기 소를 꼭 먹여야만 하나?》

《그래야 하네. 소가 있어야 발을 갈고 씨를 뿌릴수 있구 낱알을 실어들일수 있지. 또 논밭에 두엄도 실어나르구 물건도 날라야 하네. 그런즉 소는 농군의 길동무라고도 말할수 있네. 그래서 실농군들은 새벽마다 소를 이끌고 나가 깨끗한 풀을 먹이는것은 물론이요 발갈이 철이 오면 사람은 못먹어도 찰떡을 쳐서 먹이고 개까지 잡아먹인다네.》

《음- 듣구보니 그건 일리가 있는 소릴세. 헌데 그제 조련치 않은 일이구만... 좌우간 힘이 들더라두 새벽소를 먹여야지. 그런데 밤에 꼭 새끼를 꼬아야 하나?》

《농사일에서는 새끼가 많을수록 좋네. 겨울철에는 하루종일 새끼를 꼬구 가마니를 짜야 한다네. 그렇게 하자면 잠을 적게 자야 하네.》

《젠장, 그제 좀 골치거리구만, 자네도 보다싶이 나는원래 몸이 좋아와서 잠이 많다네. 이걸 어쩌면 좋은가?》

《그제참 딱하구만, 잠이 많다구 잠만 자다가 일은 언제 하겠나?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할수 없이 도루 지주가 되어야지.》

《원 참 사람두, 자네 말에는 가시가 돋혔는지 이따금 사람의 가슴을 섬찍하게 한단말이야. 내 잠을 못자더라두 어떻게 하나 새벽에 일어나 소를 먹이구 밤늦게까지 새끼를 꼬겠네. 맹세하네.》

《그럼 됐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네.》

《이제부터라니?》

《진짜배기 농군은 농군이 되기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네.》

《아-니, 그건 또 문슨 소리냐? 사람이 된 다음에 농군도 되구 지주도 되는것이야 세살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리친데 새삼스럽게 농군이 되기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걸 왜 쪼아박아 말하나? 마치도 내가 농군이 되자면 아직 사람이 채 못된것처럼 말하는구만.》

《말귀를 제때에 알아듣는걸 보니 잘하면 농군이 될수 있을것 같네. 허허...》

《에-끼, 사람 룡담두...》

《룡담이 아니라 진담일세. 농군이 흘리는 뜨거운

땀은 그가 지닌 깨끗한 량심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네. 누가 지켜보든이아 없어도 발을 갈고 씨를 뿌리며 오뉴월무더위와 띄약벌아래에서 허리꺾사이 없이 김을 매주는 농군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곡식을 더 잘 키우겠는가하는 깨끗한 량심뿐이네. 그런데 그처럼 깨끗한 량심으로 지은 낱알을 지주나으리들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빼앗아 내니 그제 글썽 량심이 있는자들인가?》

《그야 물론 량심이 없는자들이지. 악한이고 마귀들이야. 자네 말을 듣구보니 내가 제때에 지주를 그만두었어!... 정말 내가 명청하고있었더라면 어쩔번했나. 젠장 내 이럴줄 알았다면 그 농부의 량심이라는걸 미리 사들걸 잘못했어... 참 여보게 정기호, 자네 생각엔 농부 한사람의 량심을 얼마나 할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자네가 가지고있는 영안벌을 다 팔아두 안될것 같네.》

《뭘-라구?! 아니 무슨놈의 농부량심 하나가 그리두 비싼가?》

《그것보게. 자네처럼 농부의 량심을 그렇게 돈으로 생각하니까 안된단말일세. 그 어떤 억만장자두 근로하는 사람들의 량심을 돈으로 살수 없네. 자네 그걸 명심하게.》

《아-니, 난 살수 있네! 나야 자네와 같은 실농군한테서 농부의 량심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고있지 않나. 그렇기때문에 나는 농부의 량심을 살수 있네! 그리구 반드시 자네와 같은 농군이 될수 있네! 암 되구말구. 난 자신이 있네. 몸도 튼튼하구 각오도 비상하네. 이제 두고보라구.》

《허허허... 어디 두고보세.》

2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갔다.

최만석은 소를 끌고 부암산어구에 들어서고있었다. 등에는 지계를 졌는데 거기에는 한아름이나되는 밥보따리가 얹혀져있었다.

《아니, 자네 지금이 어느때라구 밥보따리를 지구 여기루 올라오나?》

일을 마치고 들어와 부암천통나무다리를 손질하던 정기호가 의아한 눈길로 최만석을 치며보며 묻는다.

《아, 자네가. 여전히 부지런하군... 난 지금 소를 먹이러 가네.》

최만석이 태연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니, 소야 새벽에 먹이였겠는데 저녁에 또 소를 먹이나?》

《어, 오늘아침에는 그만 늦잠을 자서 먹이지못했네. 그날 할 일이야 그날에 해야지. 이렇게된바에 부암산꿀짜기에 들어가서 래일 먹일 새초나 한바리 쳐싱고 나올 작정이네.》

듣고보니 그럼직하기도 했다.

《좌우간 그럼 가보게나. 그런데 그 부암산골짜기에 맹수가 많으니 인차 되돌아서도록 하게.》

《넌려말라구.》

최만석은 다시 길을 떠났다. 골짜기로 좀더 들어가니 정말 새초가 많았다.

최만석에게 끌려가던 황소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새초를 게걸스럽게 뜯어먹기 시작했다. 하루종일 굶은 소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 모양을 물끄러미 굶어보던 최만석이 말했다.

《자식, 네가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자. 그러면 거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새초밭이 있다. 자, 어서 올라가자.》

그러나 황소는 그 억세고 짧은 다리를 든든히 버티고 서서 좀처럼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왜 싫느냐? 그러지 말구 어서 가자.》

최만석이 고삐를 당겼으나 황소는 오히려 뒤걸음질을 쳤다.

《이것봐라?... 음- 그러니 너두 정기호편이로구나. 이자식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어디 한번맞아봐라.》 하고 최만석은 소고삐를 두겹으로 움켜잡고 소잔등이 아니라 면상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그는 있는 기운을 다해 소고삐를 휘둘러댔다.

그러자 처음에는 수긋하고 묵묵히 몇대를 얻어맞던 황소가 코김을 씹 불더니 갑자기 대가리를 오른쪽으로 휙 돌렸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왼쪽뿔로 최만석의 가슴을 슬쩍 받아넘기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저 조금 밀어놓았다. 이때 최만석은 소대가리앞에 너무나도 바투서있었기때문에 피할사이도 없이 저쪽 새초숲속에 허공 나가넘어졌다. 다행히도 새초숲이 하도 무성하여서 어디 옥박질리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게가 저만침 벗겨져나가고 지게우에 실었던 밥보자가 휘뿌러지며 떨어졌는데 보자기안에서는 밥그릇이 아니라 무슨 새까만 옷칠을 한 함이 굴러나왔다. 순간 최만석은 나는듯이 그쪽으로 뻗으면서 그 함을 잡았는데 아마 이름난 그 어느 문지기도 일찌기 최만석과 같은 고급동작을 하지 못했을것이다. 그는 위기일발의 순간으로부터 자기문을 지켜낸 문지기가 그러하듯이 그 함을 축구공처럼 품에 꼭 안고 한동안 엎드려있다가 이윽고 머리를 쳐들어 황소를 쏘아보면서 악에 받쳐 뇌까렸다.

《아- 가난을 사자니 말못하는 짐승한테서까지 박대를 받는구나... 이놈들 어디 두구보자!》

그리고는 황소도, 지게도, 돌아보지 않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이윽고 최만석은 쌍계사절간의 빨간 기둥이 저만치 올려다보이는 잔디밭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봉분을 산처럼 하고 대돌과 비석도 대리석으로 그뿐하게 받쳐세운 묘지가 있었다. 그 묘지의 비석에는

활달한 한문필체로 《고 최규택지(之)묘. 묘주 최만석》이라고 쓰여져있었는데 글자들의 획마다에는 돈먹은 석공의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최만석은 여직껏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함을 대돌우에 정중히 놓았다. 그리고 무너지듯 대돌앞에 꿇어앉으며 비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만석이 왔습니다! 아버지도 땅속에서 다 아시고계셨겠지만 이제 조만간에 세상이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겁많은 지주들과 부자들이 이곳저곳으로 달아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비굴하게 쫓겨가지않겠습니다. 그 언제나 가슴속엔 안고살아온 아버지이시여! 바로 여기 아버지의 고향이자 저의 고향인 이 부암산골짜기에 존경하여마지 않는 아버지께서 그 든든한 박달나무관속에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제가 가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를 떠난다면 그것은 아버지앞에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불효막심한 자식으로서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의 박달나무관을 끝까지 지킬것입니다. 그런것만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유산이자 우리집의 가보인 토지문서를 지켜주십시오. 맑스주의자들도 낱알을 먹고 사느니만큼 땅을 무시하지 못할것이고 따라서 토지문서는 그 어느 제도에서나 귀중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바입니다. 토지문서는 땅이며 땅은 곧 아버지-최규택이며 그의 아들 최만석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존경하는아버지! 이 토지문서를 아버지께서 보관하고계시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만석은 말을 마치자마자 대돌우에 놓았던 함을 비석앞에 내려놓은 다음 허리춤에서 장도칼을 꺼내어 거기에 구멍이를 파기 시작했다. 장도칼로 찍어낸 흠을 두손으로 파내고, 또 찍어내고 우뚝내고... 그 일을 어찌나 세차게, 그리고 재빨리 해제끼였는지 잠간사이에 대돌이 놓였던 자리에는 깊숙한 구멍이가 생겨났다. 최만석은 그 구멍이에 함을 넣고 그우에 보드라운 흠을 톱 톱 다지며 덮은 다음 다시 대돌을 제대로 눕혀놓았다. 그렇게 해놓으니 참으로 그럴듯해보였다. 그 누구도 이대돌밑에 토지문서가 묻혀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3

최만석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오늘 아침도 대짜배기 거울앞에 마주섰다. 그가 《농부수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석달이 지나 이제는 김매기철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들고 고달픈 날날에도 언제나 한번 이 거울앞에 다가는 일을 번진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얼굴부터 찬찬히 마주보기 시작했다. 흰 밀가루 반죽덩이처럼 싹터열던 얼굴은 그동안

해벌에 타고 바람에 끌려 거무튀튀해졌고 코끝은 류달리 새빨갭게 되었으며 기름기가 돌던 머리칼도 누렇게 변색이 되었다.

다음차레로 그는 옷주체를 훑어보았다. 박종만이 여벌로 건사해두었던 토스레옷은 아마실로 짠 것이어서 아직 꿰진 곳이 없었다. 그는 이 토스레옷을 절대로 빨지 못하게 하였기때문에 얼룩덜룩한 옷에서는 쿼퀴한 냄새가 났다.

하여 얼굴과 옷은 마치도 일부러 분장을 한듯이 잘 어울렸다.

(아, 이만하면 가난으로 환신의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었구나!... 후날에 력사가들은 시세에 편승하여 살아갈 줄 아는 독특한 인생의 산 모범을 창조해 낸 이 최만석에 대해 쓸 것이다...)

이때 등뒤에서 안해 계월의 볼부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글썽 무엇때문에 그런 정신병자노릇을 하시 하면서 그러우? 제발 그노릇 그만하구 우리두 빨리 미국이나 일본으로 갑시다. 워낙 내가 견디어 내지 못하겠수다. 지주마님이 갑자기 농부너편네노릇을 하자니...》

계월이가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어내는 모양이 거울속에 보였다.

최만석은 거울을 등지고 돌아서서 안해의 어깨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다.

《여보, 마음을 굳게 먹소. 우리 힘이 들더라도 참아냅시다. 자, 오늘은 장날인데 빨리 읍장마당으로 가우. 전번 장날처럼 밀지지 말구 한푼이라도 리득을 보아야 하우. 우리 집 옷가지들은 비록 좀 낡기는 했지만 다 값이 나가는 비단천이요. 값을 부를 때에는 언제나 본값보다 세배를 높이 불러야 하우. 그랬다가 제가 손해를 보는것처럼 하면서 한푼, 두푼 낮추어야 한다우.》

《정말 당신은 어쩌면 머리가 그리두 총명하우! 당신말대로 한다면 우리 집 낡은 가장집물을 다 팔면 약차한 돈을 굶어모을수 있겠어요.》

계월은 밝은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이런 때면 최만석의 두뇌도 더 총명해진다.

《그렇구말구. 우리 저 인력거두 한 십년 써먹었지만 새것이나 다름없소. 그것두 내다가 본래값을 받아내야 하우. 그래서 빨리 뭉치돈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난 머슴이나 부엌데기를 부려먹을 줄 알았지 장사를 해본 일이 없으니 이제 야단이에요.》

《원 당신두 그건 하나두 신비한게 없소. 장마당에 가서두 제앞에 온자들을 그저 머슴이나 부엌데기거나 생각하구 얼굴이 좀 따끈하더래두 속여넘겨야 한다니까. 장사라는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묘하게 속여넘기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우.》

계월은 약간 노르끼레한 눈동자로 자기 남편을 말끄러미 올려다보다가 손뼉을 마주쳤다.

《아-그러니 낮이 좀 간지럽드래두 량심을 팔아 돈을 사야겠구만요!》

《옳-소! 바루 그거야! 나는 땅을 팔아 가난한 농부의 량심을 사고 당신은 량심을 팔아 사라구!》

《그러자요!!...》

가슴이 뭉클해진 계월이가 갑자기 남편의 손을 끄당겨 자기 젖가슴우에다 꼭 가져다대고 손등을 가볍게 쓸어만졌는데 그우에 커다란 눈물방울 두개가 툭툭 떨어져내렸다.

《아- 그렇게 희고 부드럽던 당신의 손이 이지경이 되다니,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구 글썽 손에 호미자루를 쥐게 되었나말이에요. 어두운곳에서는 이가 기여다니구 옷에서는 똥내가 나구... 이 원썩을 어떻게 갚는담!》

《아, 여보 똥소. 그만 진정하오. 눈물을 거두라니까.》 하고 최만석이가 왼쪽 손바닥으로 안해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목갈린 소리로 달래었다.

계월이가 그제야 남편의 오른쪽 손을 자기의 가슴우에서 놓아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알겠어요. 눈물을 거두겠어요. 강심을 먹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야지!》 최만석이 머리를 크게 끄덕였다.

계월이가 최만석에게 한아름이나 되는 점심밥보자기를 안겨주었다. 그것을 위해 계월은 오늘새벽에도 분주히 돌아갔었다.

《어이쿠, 이게 뭘 이렇게 무겁소?》

《늘 그만했지요 뭐. 오늘은 기장조찰밥 서너그릇하구 닭을 한마리 샀어요. 누구 주지 말구 혼자서 다 잡수세요.》

《그럼, 나야 이발이 좋으니까 남기는게 별루 없지. 어쨌든 먹어야 힘을 쓰게 돼먹었으니까.》

최만석은 그제야 거울알을 떠나 대청마루우에 나섰다. 그는 점심보따리를 대청마루우에 놓은 다음 뒤집을 지고 배를 한껏 내밀면서 머슴을 찾았다.

《게 누가 없느냐-?》

《...》

《게 누가 없느냐-?》

그래도 응답이 없다. 그러자 갑자기 울기가 오른 최만석의 이마와 목줄머에서 피줄이 불거져나와 툭툭툭툭 튀었다. 그는 방금 먹은 아침밥알이 튀어져나올 정도로 고래고래 소래기를 질렀다.

《야 종만아, 종-만-아-!》

그러자 최만석의 머슴 박종만이가 외양간쪽에서 어슬렁어슬렁 나와 마뜩지 않은 눈길로 이쪽을 치며보았다.

《아니, 최서방, 어디 불이라두 났소?》

《뭘, 뭘-라구?!》

《아, 자네 지금이 몇시라구 이제야 일하러 나가

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나?》

종만이 여전히 비양조로 말했다.

《아니 뭐, 최서방?? 자네?? 이 이놈!》하고 최만석이 왼쪽발로 대청마루를 힘껏 구르면서 펄펄 뛰었다. 《이 배은망덕한놈!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준 지주어른앞에서 감히 자네라구?! 그러구 뭐 또 최서방이라구? 이 고현놈같으니라구.》

이렇게 되자 종만이가 이쪽 대청마루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최만석을 처음보는 사람처럼 유심히 훑어보았다. 그는 머리를 두어번 기웃거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가만- 그러면 오늘부터 농부 최만석이 다시 지주 최만석으로 되었소?》

《다시 지주로 되다니? 그건...》

《아니, 한달전에 나를 불러다놓구 뭐라구 했소? <이제부터 이 집에 지주 최만석은 없고 농부 최만석이 있다. 그러구 머슴 박종만이 아니라 농부 박종만이다. 그러니 우리 두사람은 지주와 머슴이 아니라 다같은 농부이다. 그렇기때문에 이제부터 지주 어른이라든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라든가, 혹은 애들아 게 누가 없느냐와 같은 말을 쓰지 말고 여보게, 자네, 혹은 가게나, 오게나와 같은 말을 쓰자. 그래야 동리사람들이 저 최만석어른은 땅을 팔아가난을 사더니 확실히 사람이 달라졌다. 참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세상이 뒤바뀌어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다. 하고 소문을 내돌릴것이니 종만이 자네두 밖에 나가 그런 소문을 자꾸자꾸 퍼뜨려라》하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소,》

《아이구, 힘이 들구나!》 하고 최만석이 갑자기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개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종만이 이사람, 방금 자네가 한 말은 죄다 사실이네.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자네를 보고 그렇게 말했네. 그런데 어째서 그런지 생각은 뻔한데 그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만... 정말 가난한 농부로 환신한다는게 힘이 들구만...》

이번에는 종만이가 대청마루우에 올라와 최만석이와 나란히 앉은 다음 그의 등을 가볍게 다독여주며 말했다.

《이사람 만석이, 너무 상심말라구. 옛날 속담에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 또 <제버릇 개못준다> 라구 했다네. 글썄 20여년을 비단옷에 개화장을 질구 이 대청마루우에 서서 불호령만 하면서 남을 부려먹던 자네가 머슴의 토스레옷을 빌려입구 농부의 갑대기를 쓰고 일을 하자니 그제 어디 쉬운 일인가, 지금두 자네 가슴속에서는 불몽치같은게 끓고있을테지... 내 자네 심정을 다 아네. 하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 이를 악물구 해나가세. 그러느라면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알게 되구, 또 자네 인생체험의 견문두 넓어지구... 그렇게 하느라면 온

영안벌사람들이 자네를 높이높이 우러러볼게 아닌가.》

《정말 누구니 누구니해두 우리 종만이가, 아니 자네가 그래두 내 심정을 알아주는구만. 정말 고맙네!... 정말 세상이 달라져가니 자네 말씀씨 또한 기가 막히게 달라졌군그래.》

《웬걸... 난 요즈음 밤마다 정기호, 그사람네 집에 가서 글두 배우구 이야기도 듣군한다네. 이제 한말두 정기호-그사람이 요즈음 최만석이가 몹시 힘이 들어할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위로해주라구 해서 그대루 말했을뿐이네.》

《...음- 내 그럴줄 알았네. 그러니 정기호, 그자식이, 아니 그 친구가 뒤에서 종만이 자네를 조종하구있단말이지... 좌우간 그럼 난 일하러가겠네.》

최만석은 한집이나 되는 점심보따리가 실린 지계를 지고 마당을 나섰다.

4

때는 초여름철이라 4월초파일 그맘때 씨를 뿌린 조 종자들이 이제는 땅우에 파랗게 한뼘이나 솟아 올라 제법 미풍에 잎사귀들을 한들거리고있었다. 조밭 애벌깎을 매기에는 맞춘한 계절이다. 밭에서는 정기호가 노르끼레한 열두세배 잡병이에다 밀짚모자를 비스듬히 눌러쓰고 앉아서 김을 매고있었다. 삼백평은 실이 될 조밭 한복판의 이랑을 타고앉은 걸 보면 아마 새벽부터 나와서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이 첫눈에도 알렸다.

《정기호- 수고하네-》

최만석이 밭머리에 지계를 벗어놓으며 소리쳤다.

그러자 정기호가 호미를 든채 일어나 이쪽을 내려다보며 반색을 했다. 《아- 이제야 나오나. 올라 오느라구 수고가 많았네.》

그는 최만석이 지계를 벗어놓은 밭머리까지 나와 앉으며 담배쌈지를 꺼냈다.

《에라, 얹어진김에 쉬여간다구 한대 피우구 할가... 자, 자네두 한대 말게나.》 하고 정기호가 독초를 신문지조각에다 담아서 최만석에게 넘겨주었다

《하- 이렇게까지야 뭘...》

최만석은 정기호의 원심을 외면할수도 없어 마지못해 독초와 종이조각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마약이 조금씩 들어간 《미도리》를 혼자서 피우곤하는 최만석이가 잎담배를 말줄 알리가 만무했다. 종이가 찢어지고 담배부스럭지가 땅바닥에 흩어져내리는걸 보다 못해 정기호가 눈깜짝할사이에 한대 말아서 넘겨주었다.

《자, 여기다 자네 침을 발라서 몰라구.》 하고 그는 불까지 붙여주었다.

울면서 겨자먹기로 최만석은 담배연기를 한모금 가볍게 빨았다. 순간 매캐하고 향긋한 맛이 감촉되

였다.

(하, 이것봐라, 가난뱅이들이 엉큼하다? 《미도리》 못지 않은걸.) 하며 최만석은 연거퍼 세모금을 깊숙이 들이켰다. 그러자 목이 껍-막히고 머리가 팽-돌면서 뱀이 뒤집힐듯한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이나 허리를 꼬부리고 재채기와 기침을 연거퍼 하고나서야 눈곱을 닦아내었다.

《아이구, 혼썰이 났군. 원 무슨 담배가 그리두 독한가.》

《아 그만한 잎담배연기두 삼켜내지 못하구서야 어떻게 가난을 사겠다구 그러나? 자네같은 지주나 으리들이 우리들에게 〈선사〉 한 가난은 이 잎담배 연기보다 몇갑절 지독했다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었거든.》

《...》 최만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무슨 말로든지 짹짹하게 눌러놓아야겠는데 그제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렇게 앉아만 있자니 따분하고 일어나자니 아직 담배 한대도 다 태우지 못했다. 그러기도 하거니와 오늘은 어쩐지 맥이없어 일어서고싶질 않다.

그런데 정기호가 벌써 담배꽂초를 내던지며 호미를 들고 일어선다.

《자, 이젠 한대 피웠으니 일을 시작해야지.》

《벌써?... 이사람 기호, 먼길을 올라온 사람이 아직 숨도 채 돌리지 못했는데 벌써 시작하려나?》

《만석이, 농사일이란 철을 놓치면 안되네. 오늘이 조밭김을 묵이면 그만큼 난알을 손해보네. 농사군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량심을 가지구 살아야 하네. 자네가 바로 지금 그 농사군의 량심을 사려구 애쓰고있지 않나. 그런것만큼 힘이 들더라도 오늘은 이 밭을 끝내야 하네.》

《...》 최만석은 역시 할 말이 없었다. 하물며 정기호에게 늘 자기를 깨우쳐주면서 《농부수업》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하는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세웠다.

두 《친구》는 곧 일을 시작했다. 정기호는 이미 매내려오던 가운데 밭고랑을 타고앉았고 최만석은 아래밭머리 첫이랑을 타고앉아 매여올라가기 시작했다.

최만석의 눈에는 잡초가 그리 많지 않아보였다. 능쟁이나 토끼풀따위의 흔해빠진 풀들이 밭이랑사이마다 드문드문 돌아있었다. 최만석은 그것들을 호미로 와락와락 긁어놓았다. 그랬더니 잡초들이 허리가 끊겨져 밭고랑에 어지럽게 휘뿌려졌다.

(그런데 무슨놈의 씨앗을 이리도 우둔하게 뿌려놓았나? 이래놓으니 조가 숨을 쉬고 살수 있나. 봄에 종자가 모자란다고 우는소릴 하는까닭을 이제야 알았군. 역시 가난한것들이란 하나같이 머리가 둔

하다니까.)

최만석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세가 등등하여 푸르고 굵은 조밭이랑을 가느다랗게 쏘아주며 나갔는데 좀 가느다랗고 연해보이는 포기들은 모조리 뽑아버리고 푸르딩딩하고 싹해보이는 포기들만 외줄로 남겨놓았다. 결국 일이라는건 해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성수도 난다. 그저 힘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무슨 농부의 량심이 필요한가.

그는 왼손으로는 뽑아버리고 오른손에다 쥔 호미 날로는 굵어버리면서 정기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김을 매나갔다. 오늘 조밭김을 같이 매보니 정기호도 주둥아리만 찢지 일은 축내지 못한다. 이제 이 밭빼기를 다 맨 다음에는 정기호를 밭머리에 불러다 세워놓고 톡톡히 망신을 주리라...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두 《친구》가 마주쳤다.

《아니, 벌써 여기까지 매올라왔구만! 숨씨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기호는 진심으로 감탄해하였다.

《사람이 도지사를 하든 군수를 하든 일을 하긴 해보아야겠구만. 내 좀 해보니 일이라는게 그리 쉽다고는 할수 없지만 또 그렇다구 해서 그리 어려운것두 아니야.》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정기호는 두눈을 슴벅이며 이쪽을 뻗히 건너다보았지만 최만석은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정기호를 굽어보았다.

《무슨 소린가구? 그걸 내 오늘 톡톡히 알려주지. 저쪽 밭머리에 좀 나가세.》 하고 최만석이 성큼성큼 앞서걸었다.

《?...》

머리를 수긋하고 최만석의 뒤를 따라 방금 그가 맨 밭이랑을 타고나오던 정기호는 그만 깜짝 놀라 그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혹시 잘못보지나 않았는가하여 그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아 최만석이가 뽑아던진 조포기들을 주어들고 다시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틀림없는 조포기들이었다. 그리고 이랑에 남겨놓은것은 조가 아니라 가라지였다. 그러니 최만석은 조를 쏘아버리고 가라지풀을 남겨놓았던것이다.

정기호는 최만석이가 매어나간 밭이랑에 얼굴을 박듯이 숙이고 나가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조포기들을 걷어안았다. 인차 한아름이 되었다. 아마 저 아래이랑까지 주어모으면 서너아름은 실히 될것이다. 이를 어쩐단말인가. 다시 심을수도 없고, 겨우내 피죽을 먹으면서도 한알도 다치지 않은 조종자를 이렇게 없애버리다니...

《이사람 기호, 어째 좀 창피스러운 생각이 드나? 왜 얼굴을 밭고랑에 틀어박구 그러나?》

여기까지 따라올라온 최만석이 제편에서 빈정대기까지 한다.

그제야 정기호는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최만석의 면상을 그가 속아버린 조이포기로 후려치려 하다가 후들후들 떨리는 손을 내리웠다. 그는 추연히 머리를 쳐들어 드넓은 전야를 둘러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들판인가! 저 들판에 뿌리내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곡식들을 가꾸기 위해 농부들은 이 땅에 태를 묻고 한생을 살아온다. 저 곡식한포기, 한포기마다에 기울인 농부들의 정성과 노력은 얼마나 신성하고 위대한것인가, 그 신성하고 위대한 근로정신과 량심을 최만석이와 같은 기생충들이 과연 살수 있단말인가, 아니 10년이면 살수 있단말인가...

순간 정기호는 언제인가 《한정승의 벼농사》라는 야사를 읽은 기억이 떠오른다.

《여보게, 최만석이, 내 말좀 들으라구. ...멀지 않은 옛날 한정승이라는 량반이 자기도 농부들처럼 얼마든지 벼농사를 본때있게 지을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서울에서 락향했다네. ... 어느덧 논김매기철이 왔네. 그런데 가만히 보자니까 논김이라는것도 별게 아니고 그저 실한 포기들은 내놓고 그보다 약한 포기들을 뽑아버리면 될것 같아보이더라 말일세. 그래 그렇게 했다네. 그리고난 이 한정승이라는 량반은 온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논벼가 제일이라고 자랑을 했다네. 사람들이 와보니 글썽 돌피를 내놓고 벼포기들을 모조리 뽑아버리지 않았잖나. 그러니 결국 한정승의 벼농사는 돌피농사가 되고 말았네. ... 무슨 소린지 알아듣겠나?》하고 정기호가 최만석을 애처로운 눈길로 굽어보았다.

그런데 최만석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입을 비죽거리며 대답했다.

《흥, 그대두 한정승이라는 량반은 벼농사를 망쳤지만 나야 조이농사를 망쳤으니 그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지.》

《허허허!...》

정기호는 눈물이 솟구치도록 웃고나서 저렇게 철면피하고 우매한자가 어떻게 근면하고 지혜로운 농부들을 지배하였을가 하고 최만석의 두리몽실한 얼굴을 찬찬히 건너다보았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만석은 이제는 점심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지계에 지고온 점심보따리를 매우 힘들게, 정중하게 내려서 보자기를 풀어헤친 다음 친구쪽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기장조이찰밥과 닭고기를 그 좋은 이발로 맛있게 씹어먹기 시작했다.

5

최만석은 자기를 돌피농사나 짓는 한정승이라는

량반에 비유한 정기호의 말을 절대로 인정할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 최만석이가 그런 바보에 비할수 있겠는가, 그는 이제는 그만하면 자기도 정기호만 못지 않는 실농군의 체모를 갖추어가고있다고 신심에 넘쳐 생각했다.

오늘도 그는 자기의 이러한 심정을 하소하려 아버지한테로 가고있었다.

《아니, 자네 낮에 힘들게 일했는데 또 어디루가나?》 정기호가 최만석에게 물었다.

그러자 최만석은 매우 처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친 산소를 찾아가네.》

《산소에 갈 추석날은 아직 한달이나 있지 않나.》

《나두 다 아네, 하지만 걱정이 되어서 그러네.》

《무슨 걱정?》

《아, 글썽 저 일본쪽바리들이 읍에다 화학공장을 세울 때 공업용수원지를 만든답시구 우리 부친의 묘지에서 멀지 않은곳에 저수지를 파놓았네. 자네두 알지?》

《음, 나두 알구있네.》

《그러니 글썽 내가 마음을 놓을수 있나. 이제라도 장마가 지면 어찌겠나. 나야 이제는 땅도 재산도 다 내놓은 사람인데 누굴 믿고 살아가겠나. 아버지의 녀이라도 믿어야지. 부모를 모시는데서는 자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늘 보아야 지극하더군. 나두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었으니 선친을 모시는데서도 자네들하구 달라서야 되겠나.》

정기호는 듣고보니 정말 《감동》되었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말했다.

《자네 효성이 놀랍구만! 어서 가보게.》

최만석은 부친의 묘지앞에 다달으자마자 대돌앞에 두무릎을 꿇으며 숨찬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다.

《보고싶었든 아버지! 그동안 귀체만강하옵니까!...》 하고 최만석은 숨을 돌리고나서야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사연많은 곡절과 시련에 대해서는 하느님도 다 알고계십니다. ... 저는 인력거 대신에 짚신을 신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과 오솔길을 발목이 시도록 다니었으며 토스레웃에 땀내와 때가 배여도 그것을 갑옷처럼 펼쳐입고 남의 두뿔, 세뿔을 하였습시다. 오죽하였으면 저의 처가 물집이 진 이 손을 놓지 못한채 뜨거운 눈물을 하여염없이 흘렸겠습니까... 논란에 들어서서 김을 땀때에도 저는 다른 농부들처럼 장판지에 달라붙은 거마리를 때려잡느라고 부산을 피우지 않았으며 그놈이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강한 의지로 참아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가지를 가지고서도 확실히 최만석이라는

어른은 그 어느편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위치를 당당하게 지킬뿐만아니라 영특한 지혜와 립기웅변으로 하여 반드시 한자리를 차지할것이라고 말할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조발 김매기, 진거름푸기, 황소를 휘여잡는 일도 몇몇하게 해내었습니다.··· 꿈결에도 보고싶은 아버지이시여! 이제 저는 일에서는 하나도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한편 인력거와 금붕어쇠가 달린 농작들, 거울,

놋그릇, 비단옷가지들, 지어 화로까지 다 제값에 팔아서 몽치돈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는바 여기서는 아버지의 머느리이며 저의 세번째 첩인 세월이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몽치돈은 기름종이에 싸서 독안에 넣은 다음 그 독을 부엌바닥에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러니 돈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토지문서가 자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된 것은 얼마전 정기호라는자가 그 무슨 려명이 밝아온다느니,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땅이 차례질수 있다느니 하는 소리를 췌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런것만큼 존경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토지문서를 지키고 저는 아버지의 박달나무관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동란의 계선을 넘어섭시다!··· 그럼 아버지의 귀체만강을 위하여, 그리고 이 최만석의 성공을 위하여 약주를 한잔 붓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마친 최만석은 꿈무늬에서 술 한병을 꺼내어 부친의 비석앞에 조금씩 세번을 쏟은다음 병채로 들이마시었다.

또다시 며칠이 흘러갔다.

어느날밤에 최만석은 정기호를 보았다. 정기호는 이마에다 새빨간 천을 동이고 허리에다가는 말가죽혁띠를 묶었는데 거기에는 두자루의 권총이 찢려져있었다. 그는 어깨에 곡괭이를 메고 부암산골짜기로 올라오더니 바로 아버지묘지앞에 놓인 대돌을 들어내고 토지문서가 묻혀있는 땅을 파헤치는것이였다. 그는 눈깜짝할사이에 토지문서가 들어있는 함을 꺼내놓고 두자루의 권총을 뽑아 량손에 갈라들더니 그 함에다 대고 연발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최만석은 권총소리에 잠을 깼다. 꿈이였다. 그는 그길로 묘지에 달려올라가보았다. 묘지앞의 대돌은 그대로 있었으며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최만석은 도무지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하여 그날 저녁부터 최만석은 일본군용모포를 가지고 올라가서는 대돌앞에서 자고 새벽에 내려오곤 했다.

그렇게 닳새를 지나보내던 날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최만석은 이 비가 늦장마를 예고하는 아주 불길한 징조인줄 몰랐으며 늦장마로 하여 생기는 산골물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것도 역시 알수

없었다.

마침내 사태가 지기 시작했다. 사태는 영안화학공장의 수원지가 터지면서 시작되였다. 사실 아무리 유명한 풍수군이라고 해도 마약장사 최규택의 묘지아근에 공업용수원지가 생기리라는것은 예언할수가 없었다. 하여 사태는 이처럼 선친을 존경하는 최만석의 지성도 아랑곳하지 않고 묘지를 통채로 밀고내려왔다.

사태가 졌다는 소식을 듣고 최만석이 달려올라왔을 때에는 벌써 시커먼 물결이 나무뿌리와 바위돌들을 굴리며 무섭게 내려쬰지고있었다. 나무단들과 풀단들이 떠내려오는속에서 최만석은 잊혀진 나무단을 보았다. 순간 그는 그것이 다름아닌 자기 아버지의 박달나무관이라는것을 알았다.

《저런! 저 관이 떠내려오는군!》

《저게 누구네 묘지에서 나왔을가?》

《저 드센 물살에서 터지지 않는걸 보니 저건 분명 잘사는 집 관이다.》

개울가에서 서성거리는 마을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기호는 얼마전에 최만석이 부친의 묘지 걱정을 하면서 부암산골짜기로 들어가던 일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저게 최만석부친의 관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만석은 자기 부친의 관부터 건져낼 생각은 안하고 왜 저렇게 안절부절을 못하고서있는가?

정말 개울건너편에서는 최만석이가 물살에 뒤번져지며 떠내려가는 자기 부친의 관은 보지않고 무엇때문인지 시커먼 물결이 사뭇치는 개울가 기슭을 울리뛰고 내리뛰고있었다.

(아니, 저사람이 왜 저래? 자기 혼자 힘으로 관을 건져낼수 없어서 저럴가?···)

정기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개울건너편에서 최만석의 새된 목소리가 날아왔다.

《여보게, 정기호!- 그걸 좀 잡아주게- 아, 아, 그쪽으로 간다- 빨리 잡아라아-》

《??...》

정기호는 최만석이 손짓하는 물결속을 굽어보았다. 새까만 함이 물결에 휘감겨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떠내려오고있었다. 그 함은 것처럼 안타까와하는 최만석앞으로가 아니라 이쪽 기슭으로 떠내려오고있었다. 이것저것을 생각할 경황이 아니였다. 정기호는 짚고 서있던 갈구리로 함을 건져내었다. 새까만 옷칠을 먹은 함은 어찌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그 세찬 물결에 부대끼며 여기까지 떠내려오면서도 깨여지지 않았다. 다만 뚜껑이 약간 열려졌을따름이였다.

《그게 무슨 함이여?》

《글쎄, 여기에 혹시 저 최만석의 조상유골이 있지 않을까?》

《하긴 제 부친의 관이 떠내려가는걸 보구두 건지
지 않은걸 보아선 여기에 진짜 유골이 있을수도 있
지.》

《아니, 금은부치일거요.》

《이러구저러구 함께 있소. 뚜껑이 열려진김에 뜯
어보자구.》

《옳소, 뜯어보게 정기호.》

정기호가 열려진잠에 손을 넣자 함뚜껑이 열렸다.
거기에는 유지로 두세겹을 꼼꼼히 싸 종이몽치가
나왔다. 종이몽치를 천천히 펼쳐보았다. 그면 첫장
에 먹으로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었다.

토지소유증서

평수-6만 7천 오백삼십평

소유자- 최 만 석

소유년월일-1925년 3월 6일

정기호가 토지문서의 첫장에서 눈길을 떼는찰나
에 어느새 물결복판까지 건너온 최만석이 단말마적
으로 소리를 질렀다.

《정기호, 그걸, 그 함을... 보지 말라. 그 함을 달
라!...》

《하- 그렇게 됐구만!...》

정기호는 태연한 표정으로 토지문서함을 뚜껑까
지 단아서 최만석에게 면바로 던져주었다. 최만석
은 한팔로 토지문서함을 꼭 붙안고 이쪽 기슭으로
건너오려고 다른팔을 공중높이 쳐들고 열심히 휘저
었다. 그러나 여직껏 잡고있던 나무뿌리마저 떠내
려가니 최만석은 그 어디에도 몸을 지탱할수가 없
었다. 그가 또다시 무슨 소린가 웅크렸으나 그의 머리
가 토지문서와 함께 물결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것은 한시대를 다산 착취계급을 쓸어버리는 력
사의 격류였다.

나의 고향집 문앞에서

류동호

나의 고향집이여

쉽지 않구나

오는 길 천리는 단숨에 달려왔어도

한치도 못되는 네 문턱을 넘어서기는

정말 쉽지 않구나

나를 키워준 어머님이

이제 맨발로 달려나오실 저 문턱

어찌하여 선뜻 넘어설수 없는것인가

무엇인가 안고온것이

무엇인가 잃은것만 같은 마음이구나

아, 태줄을 묻은 저 처마아래

나를 키운 사랑이 교여있건만

그 손길에 쥐여줄 아들의 위훈이 없어

맞아줄 반가움에 더해줄 기쁨이 없어

내 이렇듯 서성거리는것인가?!

어쩐지 어릴적 그날처럼

바지가랭이 다 적시고

어머니 지청구가 두려워

마당가에 머뭇거리던 그때처럼

고향집문턱이 높아만보이는 아쉬움

하루에도 그 몇번

어머니의 기쁨을 안고

마음속에 넘어보던 문턱

고향집 문앞에 서서

내 삶의 걸음걸음 되짚어보는 이 마음

아쉬움이 없어야 하리

마음속에 걸리지 말아야 하리

고향집문턱 그것마저 잊은듯만듯 달려나오는

반가움에 젖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내 찾는 발걸음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리

어머니에게 안겨줄 기쁨

잃을가 가슴에 움켜안고

종종걸음 다우쳐 어머니를 부르며

있는줄도 모르고 넘던 문턱

그때처럼 마음에 아쉬움이 없어야 하리

어머니앞에

고향사람들앞에

위대한 조국앞에

땃땃이 빛내인 삶의 위훈을 안고

문턱이 없는 고향집을 찾아야 하리

봉건적억압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싸운 농민들의 투쟁을 폭넓게 그린 작품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1, 2, 3부)에 대하여-

리창유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894년(갑오년), 당시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은 봉건통치배들의 가증스러운 착취를 반대하여 펼쳐일어난 농민들을 위주로한 인민대중의 투쟁이었을뿐아니라 국내의 혼란된 기회를 리용하여 기여들어온 일본침략군을 맞받아 용감히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이었다. 전라도 고부고을농민들의 봉기를 도화선으로하여 개시된 갑오농민전쟁은 당시 극도로 침예화된 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의 필연적산물로서 우리 나라 근대 역사에서 인민대중의 애국적기개와 피의 교훈을 함께 기록한 커다란 역사적사변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은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비록 실패를 면치 못하였지만 일제침략자들과 무너져가고 있던 리조봉건통치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조선인민의 열렬한 애국정신과 강의한 투쟁모습을 남김없이 시위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3부작으로 된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1, 2부는 박태원 작, 3부는 박태원, 권영희 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갑오농민전쟁의 커다란 인민사적의의를 새롭게 규정하여주시면서 소설을 쓸데 대하여주신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창작한 작품으로써 오늘 수많은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고있으며 사랑을 받고있다.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인민이 지나온 역사를 취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역사적사변을 줄거리로 하면서도 폭넓은 예술적화폭의 중심에 주인공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군상의 성격을 확고히 내세우고 형상을 창조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 문학은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력사소설은 일정한 력사적사변이나 력사상 의의있는 사건을 줄거리로 취하여 다양한

인간들의 운명문제와 성격을 그려내게 되므로 소여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보여줄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지식과 교양을 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력사적사변이나 력사적사건이 아무리 큰 인식교양적가치를 나타낸다고 해도 성격형상과 결부되어 그려지지 않고서는 형상으로 기름진 문학적이야기로 재현될수없으며 이렇게 취급된 력사적사변이나 력사적사건에 대한 《서술》은 작품의 군더더기에 불과한것이 다.

우리는 력사소설창작에서 력사적사변을 장황하게 라렬하는것으로 당대사회의 서사적화폭을 펼쳐보이려는 그릇된 경향의 흔적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독자들은 그러한 따분한 장면들을 건성 건성 뛰어넘으면서 작품을 읽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제1부)의 창작성과는 귀중한 시사를 준다.

작품은 1892년 늦가을부터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93년말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있는 일들을 기본으로 취급하고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부패타락한 봉건통치배들과 량반지주놈들의 악정과 가증한 수탈행위, 그리고 이 시기 가난한 인민들의 생활을 그려냄에 있어서 이 려저러한 력사기록문헌자료들과 사실자료들을 전달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농민전쟁의 계기로 되었던 전라도 고부고을 양교리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량반지주인 리진사놈과 돈 7만냥으로 벼슬을 사고 내려온 고을군수 조병갑의 교활하고도 악착스러운 착취상 그리고 농민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다그치는 전봉준을 비롯한 애국적선비들, 《일심계》의 조직책임자 오수동(오상민의 아버지, 그는 갑신정변에 참가한 사람이다.)과 같은 시대의 선각자들의 생활을 밀접히 련결시켜 하나의 폭넓은 시대적화폭을 창조하고있다.

봄내 여름내 뻘뻘하게 일해도 소작료이외에 판가에서 걷어들이는 각종 가렴잡세로 털리우고나면 쌀 한가마니 남지 않아 가을타작후 맨손으로 나앉지 않으면 안되는 작인들, 샅일을 해주고 걷어들인 룡잎팔이로 겨울날 량식을 마련하지 않을수 없었던

주인공 오상민일가의 눈물겨운 정상이며 한끼 죽물도 마련할길 없어 온식구가 굶어쓰러졌는데 관가에서는 새로운 명목의 돈을 내라고 닥달질하다 못해 유일한 재산이던 술 하나까지 다 빼앗아가고 새로 부임한 군수놈은 또 부역을 나오라고 독촉이 성화같으니 할수 없이 류량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길보네의 기막힌 처지...

작품에 그려진 가난한 농민들과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장가도 못든 문서방과 같은 리진사택 머슴군들,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간이하의 수모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리진사놈의 첩의 아들 리상무며 돈한냥을 빚지고 그것을 제때에 물지 못해 어린동생 서분이를 지주집 종으로 빼앗긴 순돌이... 등부조리로 짖 들어찬 당대사회 최하층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이 양교리 농민들과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을 통하여 생동하게 펼쳐지고있다.

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가난한 사람들을 악착하게 착취하고 갖은 교활한 방법으로 혹독하게 수탈하는 리진사와 같은 랑반놈들과 악정을 일삼고 제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군수 조병갑의 비인간적처사에 의하여 빚어진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농들의 착취행위를 조장시키고 그놈들을 내세워 악정을 실시하는 봉건조정 of 통치배들과 봉건사회제도자체의 그릇된 정사의 산물인것이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썩어빠질대로 썩어빠진 봉건사회에서 봉건관료들의 착취와 수탈에 시달리다못해 앉아서 굶어죽느니보다 투쟁에 일떠서지 않으면 안될 가난하고 무권리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다양한 인물군상의 최하층 농민들과 비천한 인물들의 성격을 통하여 그려줌으로써 모순에 찬 당대사회상을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문제에 귀결시켜 형상적으로 느끼게 하고있다.

여기에 장편력사소설 《감오농민전쟁》(1, 2)이 거둔 귀중한 창작성과의 요인이 있고 독자들로 하여금 예술적흥미를 가지고 작품의 형상세계에 저도 모르게 끌려들어가게 되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다양한 인간성격들을 기쁨지고 생동한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개성이 있게 형상한것이다.

생동한 생활세부를 탐구하여 인간성격을 그려내는것은 소설의 예술적품위를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 형상수법의 하나로 된다. 더더구나 력사소설인 경우 작중인물들의 성격은 그가 그려지는 시대와 인간풍모에 맞게 형상되어야 하므로 적중한 생활세부의 탐구에 작가의 깊은 사색과 피타는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과거 우리 인민의 력사와 그 시대 인간들의 생활처지와 생활풍습, 언어 등을 잘 알아야 한다.

작가는 우리 나라 봉건통치말엽에 성행하였던 매관매직행위와 같은 력사적사실에 준하여 민비가 자기의 심복인 민영준대감을 통하여 여러 고을의 군수자리를 돈을 받고 팔아먹는 장면을 생동한 하나의 세부를 삽입하여 그려내었다. 이러한 세부는 7만냥에 고부고을의 군수자리를 산 조병갑이 그 봉창을 몇급질 하느라고 악착하게 농민들을 수탈하는 몇몇 세부로 이어져 악정을 일삼는 봉건관료배의 더러운 몰골을 눈앞에 방불히 느끼게 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줄게 심복들의 도움을 받고 천민출신의 부자들을 닥달하여 그들의 재산을 털어내며 하층관료들의 《죄》를 다스려 백성들의 환심을 산 후 만석보저수지보수공사에로 농민들을 내몰아 물을 확보한다음 묵은땅을 공짜로 나누어주는척 하고는 가을에 가서 물세요, 땅세요 하면서 별의별 가렴잡세로 한해 농사소출을 빼앗다 못해 종곡까지 털어가고는 조금이라도 저항해나서면 가차없이 잡아가두거나 형벌을 적용하는 세부들은 악질관료로서의 고부군수 조병갑의 교활하고도 악랄한 수탈행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궁정인물들인 가난한 농민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생활세부들도 이채롭다.

이삭주이로 한알두알 모은 콩 두되를 갈아 남편의 《제사날》에 두부를 갖는 주인공 오상민의 어머니 한씨의 지극한 효성, 자기를 먹으라고 떠놓은 초두부 한그릇을 앓아드려누운 씨동이 아버지 길보에게 갖다 대접하는 상민의 아름다운 마음씨,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기적적인 사실을 알고 나무해관 돈으로 중값 한마리를 사들고온 상민의 속깊은 규양을 모르고 뭇 먹여기르겠는가고 꾸짖는 한씨, 그 닭 한마리가 자라 씨암탉이 되자 그것을 잡아 앓고있는 리진사네 머슴 문서방을 대접하는 상민이...

이러한 생활세부들에는 찌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남의 아픔을 동정하고 극진히 위해주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과 아름다운 마음씨가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가.

이와는 반대로 수십년을 하루같이 별의별 곳은 일을 다 시키다가 그가 앓아눕자 약 한첩 써주지 않고 제딸이 해산하는 날에 죽으면 부정을 탄다면 서 길가에 내다버리게 하는 리진사내외의 악착한 비인간적행위며 농민폭동군의 요구를 다 들어줄것처럼 해놓고는 그들이 일시 뿔뿔이 헤어지자 관군을 내몰아 그들의 가족까지 산채로 불속에 잡아넣고 불태워죽이는 봉건통치배들의 귀족같은 만행...

작품에서는 이러한 세부를 통하여 악정을 일삼는 봉건통치배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래야 살수 없음을 형상적으로 느끼게 하고있다.

고부군수 조병갑놈의 악정이 점점 심해지자 양교

리농민들을 비롯한 각지 농민들은 급기야 전봉준의 지도하에 봉기를 일으키고 악질관료들을 처단한다.

이러한 생활논리의 필연적인 귀결로 되는 이들의 투쟁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납득됨으로 하여 독자들은 류량걸식하던 끝에 온 가족을 굶겨죽인 길보가 낫을 들고 달려와 리진사놈을 찍어넘기는 장면에 접하여 통쾌감을 금치 못하게 되며 말한마디 못하던 어린종 서분이가 《주인아씨》의 낮쪽에 신작을 내던지고 한뼉 아무런 삶의 권리도 가지고있지 못하던 리진사네 머슴들이 쌀뿔주를 열고 쌀을 나누며 종문서를 불태우고 농민봉기군에 합세하는 장면들이 생활적진실로 안겨오는것이다.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다음으로 실재한 역사적사실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주인공 오상민과 전봉준을 비롯한 각이한 계급과 계층, 다양한 인물들의 운명선을 통해 참다운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애국자들이라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밝혀준것이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엄격히 준하면서도 역사를 창조한 인민대중의 형상을 중요 위치에 세워놓고 형상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다양한 인물군상의 인민대중의 형상을 창조함이 없이 전인민사적의의를 가지는 갑오농민전쟁과 같은 거대한 역사적사변을 그려낼수없기때문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농민전쟁을 지휘한 전봉준과 같은 실재한 원형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이야기의 첫시작부터 농민출신의 인물을 중심에 놓고 그와 관련되는 수많은 농민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운명선을 함께 끌고나감으로써 전라도농민전쟁과 같은 거대한 역사적사변을 폭넓게 그려낼수 있었고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적진실을 더 생동하게 느낄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실재한 역사적사실과 역사적인물을 중심에 놓고 그린다 해도 그것을 고립무원하게 취급한다면 한 역사적인물의 일대기는 보여줄수 있어도 농민전쟁과 같은 인민사적의의를 가지는 인민들의 투쟁을 폭넓게 보여줄수 없음을 잘 실증해준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과 결부시켜 그리는데만 주의를 돌리고 실재한 역사적인물, 그것도 전라도농민전쟁이라고 하면 이 전쟁을 앞장에서 지휘한 전봉준과 같은 인물을 주인공의 위치에 세워놓고 그려내지 않는다면 역사적사실 그자체를 외곡하게 되거나 왜소화하여 비진실하게 그려나게 된다. 그러므로 력사소설창작에서 실재한 력사적인물을 큰 비중으로 취급하면서 력사적사실을 인

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는 것은 자못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1부)의 전반부는 주로 주인공 오상민일가를 비롯한 고부고를 양교리농민들이 리진사놈의 착취를 받다가 또다시 그곳에 군수자리를 돈주고 산 조병갑놈의 가혹한 수탈과 착취를 받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주인공의 하나인 전봉준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오상민의 시점을 통하여 분파적으로 암시된다. 그러다가 양교리마을 농민들이 더는 살수 없게 된 형편에서 고을관청에 대표를 보내어 강경히 항의를 들이대자고할 때부터 전봉준은 형상체계의 중심위치에 등장하여 형상된다.

악독한 군수인 조병갑은 농민대표로 선출된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로인을 《란민》으로 몰아 무참히 학살한다. 이 치떨리는 만행앞에서 고부고를농민들을 오래동안 농민폭동을 구상해오던 애국선비 전봉준의 지휘하에 드디어 봉기를 일으킨다.

전봉준은 오상민과 같은 비중으로 작품의 제2부에서 주인공의 한사람으로 등장하며 시종일관하게 형상체계의 중심위치에서 그려지고있다.

전봉준은 농민폭동군을 인솔하고 고부고를을 점령하자 관청을 습격하여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악질관료와 토호들을 처단할뿐아니라 관가의 창고를 열어 쌀과 천을 꺼내어 빈한한 농민들을 구제한다. 이에 당황한 봉건정부는 《량호초토사》 홍계훈을 파견하여 관군으로 하여금 농민군을 포위공격하도록 하나 놈들의 기도를 미리 간파한 전봉준은 농민군을 이끌어 백산, 황토현 전투에 이어 장성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곧 봉건통치의 아성의 하나이며 리왕조의 본관지인 전주성을 들이쳐 함락시킨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 취급된 고부농민폭동과 그로부터 전라도농민전쟁의 개시, 백산, 황토현 전투며 장성에서의 관군의 격파 그리고 전주성함락과 같은 실재한 역사적사건과 주인공 전봉준을 비롯하여 동학에 관여하는 중요인물들, 고부군수 조병갑, 벼슬파는 거간군인 조정대감 민영준, 초토사 홍계훈, 지어는 작품의 마지막에 약간 언급되는 조정대신 김병시와 같은 인물들은 다 실재한 인물들이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실재한 사건과 인물들과 함께 허구에 의하여 설정된 다양한 계급, 계층의 인물군상을 배합시켜 전라도농민전쟁을 폭넓게 그려냄으로써 력사소설로서의 사상예술적폭격을 일층 높이고있다. 이러한 창작경험은 력사소설창작에서 실재한 력사적사실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문헌에만 매달려 력사에 파묻힌 인민대중의 형상을 도외시하거나 또 실재한 력사적사건과 인물을 중시하지않고 순 허구적인 사건과 인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경향을

다 같이 경계하는 의미에서도 시사적이라고 본다.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1, 2, 3부)은 갑오농민전쟁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도 실재한 역사적 사실과 작중인물들의 세계관적제한성을 통하여 사실주의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다.

《보국안민》의 기치밑에 제배를 불리는데만 급급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악착한 봉건관료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농민폭동군들의 대규모적진출에 접을 먹은 부패무능한 봉건왕조와 민씨일파는 청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여 이들의 기세를 꺾어보려고 하였다.

왜적이 우리 나라에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자 전봉준은 서울진격을 뒤로 미루고 립시후전을 하게 된다. 이럴 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왜놈들은 자기들의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조정의 승낙도 받지 않고 군사를 파견하며 제놈들의 군사를 내몰아 전봉준농민군을 격파한다. 소설의 제3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에 놓고 주인공 전봉준이 서울진격을 뒤로 미룬 자신의 처사를 뒤늦게 후회하면서 전라도, 충청도일대를 휩쓴 농민폭동을 옹계 조직지도할수 없어 안타깝게 모대기던끝에 일체침략자들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으로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변절자의 밀고로 일체놈들에게 체포되는 심각한 역사적사실을 통하여 일체놈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1, 2, 3부)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끝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방대한 인물들의 생활과 운명선을 잘 밀착시키고있으며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 이야기들을 지그자그형식으로 잘 굴절시켜 이야기를 끌고나감으로써 구성의 립체미를 보장하고 갑오농민전쟁과 같은 역사적사건을 30년전의 익산민란과 그후의 갑신정변, 그리고 청일전쟁과 같은 역사적사변들을 이러저러한 인물들의 과거생활과 련결시켜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는것이다.

소설은 오상민이 나무하러 갔다가 불쌍한 씨동이 형제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추수가 다 끝난 콩밭에서 콩 몇알을 주어 주린 창자를 달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로부터 이야기를 펼친다. 이러한 이야기는 곧 갑신정변에 참가하여 죽었다고 소문이 난 상민의 아버지 오수동이 홀동광산에 들어가 봉건조정의 그릇된 정사를 개혁할 뜻을 품고 《일심계》라는 조직을 무었을뿐아니라 그 대렬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바뀌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시 금송아지대감(금으로 송아지모양의 조각품을 만들어 민비에게 퇴물을 올린 사실이 있는자이다.)으로 불리우는 민영준의 거간으로 민비가 고을군수자리를 돈을 받고 파는 이야기로 번져지고 그것이 다시 고부고을군수자리를 7만냥의 돈으로 산 조병갑이 교활하고 악착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다 못해 종국까지 빼앗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확대된다. 사건은 동일한 시간에 여러곳에서 벌어지며 이에 따라 작품의 서사적화폭은 횡적으로 급격히 확대된다. 여기에 이러저러한 인물들의 과거생활이야기가 굴절되어 기본이야기줄거리를 보강하고있다. 그러나 과거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 벌어지는 현재의 사건과 인간의 운명문제를 형상적으로 부각하고 심도있게 해명하기 위한데 종속된다.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부터 복잡한 사건으로, 단순한 이야기로부터 심각한 문제성을 안은 이야기로 확대되면서도 사건과 이야기가 평면적으로 라렬되지 않고 치밀하게 엉켜 구성의 짜임새를 보장하고있는것은 이 작품의 비교적 높은 예술적기교를 잘 실증해준다.

물론 작품에는 1, 2부에서 등장한 적지 않은 중요인물들 레컨대 문서방, 덕삼이 등과 같은 긍정인물들의 운명선들이며 활빈당의 보호를 받아 새살림을 펼친 리진사네 몇몇 머슴군들의 생활, 《일심계》성원들의 생활이 3부에서 망각되고있거나 거의 무시된 부족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은 제1부와 제2부에서 거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독자들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다주인공적인 구성을 가진 소설창작에서뿐 아니라 력사소설창작에서 자못 중요한 시사를 준다고 생각한다.